

호사법

001~030

본문 4~18쪽

001 ③	002 ④	003 ⑤	004 ⑤	005 ①
006 ①	007 ③	008 ②	009 ①	010 ③
011 ③	012 ③	013 ⑤	014 ④	015 ④
016 ⑤	017 ④	018 ②	019 ②	020 ②
021 ⑤	022 ⑤	023 ③	024 ①	025 ⑤
026 ②	027 ④	028 ⑤	029 ③	030 ①

001 토의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토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담화의 한 형태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구원은 자신이 발언의 기회를 얻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연구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통계와 조사 자료와 같이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④ 연구원은 교수의 의견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 책임자의 의견에 대해 실효성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연구원이 비판적 듣기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연구원은 ‘에너지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토의의 주제에 대해 원자력 정책 확대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연구원이 토의의 주제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02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자료는 산업 부문에서 1,000달러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비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동일한 가치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60%를 산업 부문이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교수가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교수는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온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구원은 원자력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산업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② 연구원은 원자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에너지 공급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제시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정부 책임자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 운동의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003 말하기 전략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토의에서 [D]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들 동의하시는 거지요?’라는 말은 토의 참여자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해 주는 발언에 해당한다. 또한 ‘지금부터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발언은 토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발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너지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토의의 주제를 제시해 주는 동시에 주제와 관련된 실태(‘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1.9%씩 증가하고 있으나, ~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를 제시하고 있다.
 ② ‘지금 우리는 에너지 위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는 토의 주제를 정리하는 발언이며,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는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주는 발언이다.
 ③ ‘기업이나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라는 사회자의 발언은 토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발언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④ ‘정부 책임자이신 □□□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사회자의 발언은 정부 책임자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토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004 협상 과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협상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식사 가격 인상이다. 그런데 식당 측은 식사 가격 인상의 불가피함을, 직원 측은 가격 인상이 식사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

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사 가격 인상이 음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부터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당 측에서 식사 가격 인상을 통해 어떻게 식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협상의 말미에 회사 측에서 식당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② 반찬 수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협상에서 집단 식중독에 대비한 회사 측의 응급 의료 지원 방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④ 임금 인상은 이 협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005 협상 전략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직원 대표 1'은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식당 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직원 대표 2'는 '식중독 사고', '식당 이용 단체 거부' 등 식당 측의 약점을 공격하고, 긴말하지 말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며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힘의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식당 대표 1'은 식사 질 개선의 조건으로 식사 가격 인상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타협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식당 대표 2'는 인연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다는 점에서 '약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회사 대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호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06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회사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식사의 질이 개선되면 이용자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하여 식당 경영 실적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식사의 질이 개선될 경우 식사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회사의 사례는 식당 업체의 경영 실적이 향상되어 식사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식당 업체가 이윤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다.

③ △△회사의 사례는 식사 질의 개선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다.

④ △△회사의 사례는 매출이 증가하여 식당 경영 실적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직원 수가 더 많아서 식당 경영 실적의 향상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업무 시간의 연장은 논리적으로 인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007 대화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들이 가리킨 위치는 '시제에 오신다는 아버지의 재종형제'의 위치이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당숙의 자녀가 재종형제이다. 따라서 재종형제는 나와 6촌 사이의 형제다. 그런데 지문의 대화 상황에서, 아들은 '시제에 오신다는 아버지의 재종형제'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6촌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으려면 된다. 또한 아버지와 나의 촌수는 1촌 관계이므로 7촌 관계에 있는 ㉠이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숙에 해당하는 분으로 나오는 6촌 관계의 친척이다.

② 아버지와 4촌 관계이고, 내 입장에서 6촌에 해당한다.

④ 내 입장에서 6촌 관계, 즉 재종형제에 해당한다. 당숙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⑤ 내 입장에서 8촌 관계의 친척에 해당한다.

008 비언어적 표현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내가 괜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라는 아버지의 말에 '그럼요, 걱정 마세요.'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처음 듣는 말이니?'와 함께 제시되어 다소 의아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③ 뒤의 '삼대'라는 언어적 정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④ 아버지의 사촌 형제에 대한 언급 이후, 그 사람과 아들의 촌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네 입장에서 보자면'과 같은 발화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표현이다.

⑤ 이어지는 '이제 다 알았어요.'라는 표현과 함께 아버지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 표현이다.

009 말하기 전략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수업 중 발표이기 때문에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이다. 학급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취미인 '캘리그래피'에 대해 알려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발표 주제로 '캘리그래피'를 선정했다는 발표 첫 부분에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캘리그래피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교지 표지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선아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본 경험을 제시하여 청중들이 캘리그래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발표자가 청중에게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하지만, 질문이 없어 추가적으로 발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르. 발표 내용은 캘리그래피의 특징, 연습 방법, 전망에 대해 각각 소개하고 있으며 발표 마무리 부분에서 이 중 일부를 다시 강조하고 있지 않다.

010 매체 활용의 적절성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C]에서는 동일한 작가가 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그때마다 다르다는 캘리그래피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며 캘리그래피는 글자를 읽는 것뿐 아니라 글씨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먹물의 종류에 따라 감상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청중과 직접 대면하여 발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어의 작품이 있는 교지의 표지를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② 같은 글자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에 어울리는 사진 자료를 제시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청중에게 보여 줌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실제로 캘리그래피와 관련된 회사와 대학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여 주어 발표 내용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11 말하기 전략의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통신사 측은 인터넷 전화와 관련된 비용 문제를 이야기 나누고자 했으나, 회사 측은 유선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듣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회사 측은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회사 측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② 회사 측은 통신사 측에 질문을 했지만 설의적 질문은 아니다.
 - ④ 통신사 측은 경험담을 활용하여 회사 측이 제시한 대안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 ⑤ 통신사 측은 회사 측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다.

012 협상의 전략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회사 측의 세 번째 발화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면(상대방 요구 수용) 착신 전환 서비스의 무료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조건 제시)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안을 ㉠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통신사 측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화에서 통신사 측은 회사 측에 착신 전환 서비스의 무료 사용 기간 연장이 불가능함을 밝히며, 대신에 인터넷 전화기의 무상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통신사 측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인터넷 전화의 기본료 할인이 불

- 가능하며 대신에 인터넷 전화 무상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통신사 측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기본료 할인 혜택을 주는 대신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통신사 측과 회사 측의 네 번째 발화에서 통신사 측은 착신 전환 서비스의 무료 사용 기간의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며, 회사 측은 부가 서비스 무료 사용 기간도 착신 전환 서비스의 무료 사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013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⑤에서 '연희'의 밑줄 친 발화는 여동생이 태어나길 바랐는데 남동생이 태어나서 섭섭하다는 의미를 직접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기>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생님은 상대방이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무슨 이상한 냄새 나지 않니?'와 같은 발화는 간접적 표현이다.
 - ② 아들은 아빠가 오시지 않았지만 먼저 밥을 먹자는 의도를 '아빠는 언제 오세요?'와 같은 발화에 담고 있으므로 간접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약속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지금 몇 시야?'와 같은 발화에 담고 있으므로 간접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식당 내 온도를 높이길 바라는 의도를 '식당이 좀 춥지 않나요?'와 같은 발화에 담고 있으므로 간접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14 발표 전략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세계 각국의 온난화 현상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세계 각국의 피해가 담긴 사진을 시각 자료로 활용하는 장면은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온난화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 통념을 제시하며 화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캐나다와 미국 등의 한파를 사례로 제시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한파 현상을 그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이상 한파 현상을 지구가 스스로 과도하게 쌓인 열을 마치 털어 내듯이 진동하며 식히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생의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15 발표 전략의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것이지 청중의 지식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011년 1월 16일의 서울, 모스크바의 기온을 구체적 수치로 밝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② ‘마치 힘 빠진 팽이가 휘청거리며 도는 것처럼’에서 발표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그림 자료를 활용해서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016 발표 내용의 점검과 조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발표의 첫 문단에서 ‘겨울철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 환경 회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는 기류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 현상이 중심 내용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언급은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제시는 없이, 공생의 입장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기후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트 기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한파가 제트 기류에 미친 영향은 발표 내용과 관련이 없다. 이 발표는 제트 기류의 변화로 인해 한파가 형성된 것을 다루고 있다.

② 한파로 인해 평균 기온 상승이 주춤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없으므로 그 양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③ 시작 부분에서 발표의 주제가 겨울철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여름철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④ 한파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라고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트 기류가 약해져 폴라 보텍스가 평상시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 내용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17 말하기 방법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찬성 1’의 입론에서 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점과 근거를 제시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응답한 의견을 수치로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 사건’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주장의 배경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실태 조사 결과의 정확한 비율을 밝히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⑤ 논제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밝히고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018 공통 전제의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찬성 측은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른 기본권이나 사회적 공익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사회

적 공익을 위해 이러한 ‘잊혀질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필요에 따라서는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알 권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만의 주장이다.

③ 반대 측이 ‘잊혀질 권리’가 사회적 공익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반대 측에서 인정할 수 없는 진술이다.

④ 반대 측의 주장에 가깝기는 하지만 반대 측도 사회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반대 측은 기본권이 사회의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⑤ 양측 모두 법률과 관련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다.

019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국내와 EU 모두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요구할 권리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는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대 측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다.

③ 정보 주체의 권리를 사회적 책임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 측의 주장과 다르다.

④ 확산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는 사례는 ‘잊혀질 권리’를 우선하는 주장이 맞지만, ‘잊혀질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반대 1’의 주장과 다르므로,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⑤ ‘반대 1’은 ‘잊혀질 권리’와 함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알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가 ‘알 권리’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와 모순된다.

020 협상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에서는 공장 설치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인력의 20%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민들의 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 대표의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⑥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시청이 회사의 공장 이전을 허가하되,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고용률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저희 공장 부지로 ○○ 마을이 최적입니다. ~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원만한 방식으로 공장 이전 계획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우리 시는 시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인력의 20%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주민 대표는 공장 이전 계획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복지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시청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⑤ ‘저희 마을 사람들은 공장 이전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 주민 대표의 목표점을 확인할 수 있다.

021 협상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을 보면, 시청 대표는 쟁점이 된 문제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상대의 감정을 조정(감정에 호소)하려는 발언(‘시에서도 공장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을 하고 있다. 또한 목표를 둘러싼 갈등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제 해결을 나중으로 미루는 발언(‘그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천천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을 하고 있다. 이는 협상의 전략 중 약화 전략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협상에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발언으로 갈등 처리 전략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상대 쪽의 패배를 강요하는 전략이다. 흔히 이런 전략을 ‘힘의 전략’이라고 한다.

③ ㉢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의 목표를 중시하려는 전략이다.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이런 전략을 ‘호혜 전략’이라고 한다.

④ ㉣은 협상에서 서로의 양보점을 확인하여 타협하려는 발언이다. 일부 ‘호혜 전략’과 관련이 있으나, 복지 시설 설치가 ‘시청 대표’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협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022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회사 대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복지 시설의 설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시청도 회사를 위해 세금 혜택과 같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⑤는 기업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시청에서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회사 대표의 목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관련된 자료는 주민 대표의 주장과 일부 관련되어 있다. 주민 대표는 회사에서 주민들

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제시된 인터뷰는 벤처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와 관련된 주장은 협상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제시된 인터뷰는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학교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자료와 관련된 주장은 협상에서 찾을 수 없다.

④ 제시된 인터뷰는 공장이 주민들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자료로, 공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023 면접 내용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면접관 1의 첫 번째 질문이 전공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에 해당하며, 면접관 2의 두 번째 질문이 학과 지원 동기를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면접관 1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전공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면접관이 학생에게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은 면접에 반영되지 않았다.

024 질문의 유형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면접관 1’은 먼저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고, 세 번째 질문에서 표준어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모호한 답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한 추가 질문을 제시한 것은 없다. 답변을 토대로 질문한 것은 세 번째 질문인데, 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③ 답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되묻는 질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여 제시한 것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단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답변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025 피면접자의 답변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피면접자의 답변 중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E]이다. 입학 후 학과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어학을 전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를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면접관의 질문에 맞추어 지금까지 배운 과목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언급한 후 국어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추가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에 해당한다.

② [B]는 면접관의 질문에 맞추어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답하고 있으

므로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에 해당한다.

③ [C]는 면접관의 질문에 따라 ‘자장면’과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됨을 담고 있으므로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에 해당한다.

④ [D]는 면접관의 질문에 따라 전공 관련 공부 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봉사 활동에 대해 담고 있으므로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에 해당한다.

026 토론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민간 자본 유치 도로의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찬성 측에서는 통행 시간을 단축하여 유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도로 이용 수요가 기존의 도로와 민간 자본 유치 도로로 분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 역시 그 이전보다 덜 혼잡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공장이 대도시에서 집중되지 않고 중소 도시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ㄷ. 대도시와 중소 도시 간 서비스업의 질적 차이가 해소된다는 주장은 찬성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 도시 간 서비스업의 질적 차이는 반대 측에서 근거로 언급했으나, 질적 차이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중소 도시의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ㄹ. 민간 자본에서 도로의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토론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다.

027 토론의 절차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반대 측에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간 자본 유치 도로의 건설로 인해 지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찬성 1’은 입론으로 민간 자본 유치 도로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민간 자본이 도로 건설을 하는 이유를 묻는 다음에 찬성 측의 답변에 이어 통행료 인상의 가능성을 묻고 있다. 이는 ‘찬성 1’이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자본의 이익은 언급하면서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는지는 말하지 않은 데 대한 확인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반대 신문을 통해 통행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라는 찬성 측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③ ‘찬성 2’는 자신의 경험, 즉 민간 자본 유치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 시간을 단축한 경험을 근거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찬성 1’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로 건설에 참여한 민간 자본의 경제적 이득, 민간 자본이 만든 도로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이익 등과 같이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점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짓고 있다.

028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업자에게 일정한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로는 수요 예측이 과하게 되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것이므로 반대 측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부풀려진 수요 예측에 의해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없다.

② 민간 자본 유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민간 자본 유치 도로의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보기>의 내용과도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부풀려진 수요 예측에 의해 계약이 맺어졌다는 점과 도로 운영권 다툼이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를 이 토론에서 찾을 수 없다.

④ 민간 자본 유치 도로 자체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자금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보기>에서 제시된 자료는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라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찬성 측의 주장 근거로 <보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9 발화 의도의 반영 여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는 대화 상대인 예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㉓의 반언어적 표현인 ‘상냥한 목소리’는 언어적 표현과 어울려 상대방이 편안하게 용건을 말하도록 배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㉖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어제 종례 시간에 안내했던’ 정보가 대화의 화제가 맞는지를 즉각 확인하고 있다.

④ ㉑는 전화를 이용해 음성 통화를 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소개서 양식을 찾았음을 목소리를 크게 하여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㉔는 밝은 목소리의 물음을 통해 상대의 의사를 거둬 확인함으로써 배려를 반갑게 여기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030 의사소통 전략의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은 통화하는 시간이 늦은 시간일 뿐 아니라 화생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화자의 책임, 미안함 등을 거듭 나타내면서 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요청은 의문형의 발화를 통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미안함을 드러냈지만 화자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아서 화자의 부담을 최대화한 것이 아니므로 ①에 비해 적절성이 부족하다.

③ 책임을 화자 자신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①, ②에 비해 선생님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적절성이 부족하다.

④ 자신보다는 상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화자 자신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③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부담을 주는 요구를 하고 있다.

⑤ ①과 비슷하지만 안내문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기보다는 상대에게도 부담을 함께 지우고 있다.

작문

031~060

본문 20~36쪽

031 ②	032 ⑤	033 ③	034 ①	035 ⑤
036 ③	037 ③	038 ③	039 ④	040 ③
041 ③	042 ②	043 ④	044 ②	045 ④
046 ③	047 ④	048 ②	049 ③	050 ④
051 ③	052 ④	053 ①	054 ③	055 ③
056 ①	057 ③	058 ①	059 ④	060 ④

031 요약하기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는 글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1문단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였던 인간의 노동력을 최근 자동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2문단은 기업들이 경쟁의 심화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인간 노동자를 기계 노동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원문은 기계의 출현으로 인한 인간 노동의 비중 축소를 다루지만,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 시간의 감소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원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인간은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고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한 진술이다. 하지만 원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④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은 원문을 타당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의 조언을 살펴보면 예시나 사례 같은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요약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은 원문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원문에 제시된 내용을 벗어나 요약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에 가까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032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글은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을 대조하면서, 샐러드 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인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이러한 글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차별 대우

하고 문화적으로도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다.

② ㉞: 마지막 문단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 인정과 관용의 자세부터 갖추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다.

③ ㉟: 이 글은 샐러드 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론적 설명(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과 실제 사례(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④ ㉠: 첫째 문단에서 다문화 사회의 개념(‘한 국가나 사회 속에~다문화 사회라고 부른다.’)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을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의 정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033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취업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국적 분포를 보여 주고 있으며, ‘(나)-ㄱ’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차별 경험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ㄴ’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국적, 인종,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를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국적, 인종, 문화에 대한 차별 의식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샐러드 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외국인 노동자 수의 변화 추이는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할 경우에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와 국적 분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이 글의 주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는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④ ‘(나)-ㄱ’에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차별 경험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한 용광로 정책의 단점(‘이 관점에서는 소수의 문화가 지닌 정체성은~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으로 볼 때, ‘(나)-ㄱ’을 통해 용광로 정책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ㄴ’으로 보아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국적이거나 인종,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을 겪었다는 점에서, 소수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샐러드 볼 정책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⑤ 글쓴이는 샐러드 볼과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가)와 (나)에서 차별을 겪은 외국인들의 국적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034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둘째 문단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문단의 내용이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문화 정책을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의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다. 또한 샐러드 볼과 같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글의 주제를 놓고 볼 때에도 ㉠은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와 같이’는 앞의 내용을 지시하는 말이므로, ㉠의 앞에는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에 대해 설명한 문장들이 와야 한다. 따라서 ㉠은 샐러드 볼 이론에 대해 설명한 바로 뒤의 문장(‘그에 비해 ~ 만들어 낸다.’)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조화’의 의미는 ‘서로 잘 어울림’이므로 단어의 의미가 중복된다.

④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의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어로서 내용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므로 역접의 기능을 지닌 ‘그러나’가 적절하다.

⑤ ㉡이 포함된 문장은 일반적인 주어(‘우리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능동 표현(‘사회를 만들려면’)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35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 5’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 준다. 또한 ‘II-2-(3)’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들을 고려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적극적 홍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료 3’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은 ‘재판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자료 2’와 ‘자료 4’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의 하위 항목에 추가하면 ‘II-3-(1)’과도 호응이 된다.

③ ‘자료 1’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은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 한다.

④ ‘자료 4’와 ‘II-2-(1)’은 배심원이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루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에 ‘배심원의 법적 전문 지식 배양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를 하위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036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어울린다. 또한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법부와 국민의 노력이 ‘사법 정의 실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국민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② 국민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제도적 개선을 주



장하고 있다. 또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④ ‘사법 권력이 보배가 되어 국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맞지 않고 국민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정착을 위해 보수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주장한 것으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03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를 보면, ‘정작 밥상머리 교육을 안다고 답한 사람도 예절 교육으로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라고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한 식사 예절 교육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를 활용하여, ㉠의 하위 항목에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사 예절 교육 강화’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II -1’은 가정 교육과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실태를 제시한 부분으로, (가)의 ‘요즘은 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매체가 넘쳐나고’를 통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보기 2>의 주제는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자.’이므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시간의 부족’은 문제점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다. (가)와 ‘(나)-1’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나)-2’를 보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중 41.2%가 ‘가족 공동의 주제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으로 ‘가족 내 공동의 주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가)의 ‘가정에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라는 내용과 (다)의 ‘아무리 좋은 교육법이 나와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유대감을 높이고 대화했던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문화입니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자녀의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활용하여, 결론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038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것이 문제 상황이 된다. 또한 ‘최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가정 교육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가 원인이고,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결과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점

차 줄어들고 있다.’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지만, ‘인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청소년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부재’한 현실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아니다.

④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지만, ‘인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이 원인이고, ‘과거 밥상머리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결과에 해당하므로 인과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과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교육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039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의 내용을 보면 ‘제부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얼마 전에 다룬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여행을 갈 만한 장소를 찾다가 텔레비전에 방영된 제부도를 알게 되어 여행을 가고 있다.

② 글쓴이는 밀물과 썰물로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여행을 통해 친구와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③ 글쓴이는 제부도 주민의 말과 파도, 갈매기, 전망대 등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여행을 다녀오면서 친구와 이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여행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040 글쓰기 전략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는 글의 중간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 즉 학교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쓴이는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의 동아리 수를 비교하여 우리 학교의 동아리 수가 적음을 밝히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통계 자료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동아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 원인의 분석에는 유추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교 동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 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②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동아리 개설을 신청했던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 개설 및 활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⑤ 동아리 개설 및 활동 규정을 개정하면 얻을 수 있는 동아리 활성화의 효과까지 제시하여 제안의 타당성을 밝힘으로써 독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041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주어 '그것은'의 지시 내용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이므로 서술어는 그 원인을 밝히는 내용이 되도록 '적기 때문입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전개되므로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어인 '그런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부사의 끝음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⑥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곰곰이'로 고쳐야 한다.

④ '교정'은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등을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한다는 의미의 '개정(改定)'으로 고쳐야 한다.

⑤ '동아리 개설 및 활동 규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나 그 효과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

042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 정보 표시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하므로, 'Ⅱ-1'을 소비자와 판매자를 포괄하여 '식품 정보 표시 제도의 도입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이 쓰고자 하는 글은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 소개하기'이므로 식품 정보 표시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학생들에게 알릴 만한 필요가 있음을 중심 내용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③ 학생은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친구들이 자주 먹는 식품들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므로, 'Ⅱ-2-나'의 '해외 각국의 식품 정보 표시 실태'를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의 식품 정보 표시'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학생은 식품 정보 표시 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므로, 'Ⅱ-3'의 '식품 정보 표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해당 하위 항목을 포괄하는 '식품 정보 표시 제도의 장점'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학생이 쓰고자 하는 글은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 소개하기'이므로 식품 정보 표시 제도가 생활의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는지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043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를 통해 다른 연령군에 비해 청소년들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청소년들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이 주로 가공식품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식품 정보 표시 제도를 통한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국민의 비만율을 언급하면서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알맞은 영양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를 활용하여 비만 예방과 영양 섭취는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식품 정보 표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는 개개인에게 알맞은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비만 예방과 만성 질환 예방·치료를 위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를 활용하여 식품 정보의 고려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임을 제시하면서 식품 정보 표시 제도가 건강에 있어 유용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는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자주 섭취하는 음식 종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나)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식품 정보 표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다)에서는 12~18세 청소년들이 가공식품 선택 시 제시된 영양 표시를 읽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 영양 표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19~29세, 30~49세, 50~64세에 비해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은 청·장년층에 비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에 식품 정보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음을 제시하며, 식품 정보 표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다.

044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나)-1'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가)에 나타난 청소년의 적정 수면 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 그것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평균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나)-2'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상의 원인이 인터넷 게임, 사교육, 그리고 야간 자율 학습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 개인의 자기 관리 소홀이나 가정의 관리 소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과 야간 자율 학습은 '관리 소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 분위기에서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교육은 (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학벌 위주의 풍토와 지나친 경쟁 분위기가 만연된 사회 병리 현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상의 가장 큰 책임을 학교의 관리 소홀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청소년의 적정 수면 시간이 8시간 30분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나)-1'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이와 커다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③ '(나)-2'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상의 원인이 사교육, 야간 자율 학습,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상이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 분위기와 가장 큰 관련이 있으며, 학생 및 가정의 관리 소홀도 문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 (다)를 보면, 청소년의 수면 부족은 신경 정신 기능 및 신체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을 야기하는 심야 시간대의 사교육이나 야간 자율 학습, 그리고 인터넷 게임 등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다)-1’을 보면, 청소년의 수면 부족이 집중력과 주의력, 기억력, 창조성 등과 관련된 지능 발달 및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적절한 수면이 오히려 청소년의 학습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유용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다)-2, 3’을 보면, 청소년의 수면 부족은 감정 제어 기능의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가, 성장의 억제, 비만, 면역 기능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수면 부족이 대인 관계 및 정상적인 신체 발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 자료는 청소년의 수면 부족이 대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발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데 유용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45 글쓰기 전략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제 수행 기록’에 따르면 학생은 숲 파괴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공간적 내용 조직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쓰기 과제인 그림을 분석하여 ‘숲 파괴를 경계하자.’라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였다.

②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③ 인터넷과 환경 서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⑤ ‘끝’부분에서 종이를 함부로 사용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있다.

046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무가 곧게 뻗은 숲은 생명의 샘이지만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들은 생명의 무덤이 되고 만다.’라는 표현에는 대조와 비유가 활용되었고, 그림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숲 파괴로 위태로워진 지구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표현을 통해 글에서 다룬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림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았다.

② 대조가 반영되지 않았다.

④ 비유가 반영되지 않았다.

⑤ 글에서 다룬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047 논설문의 내용 조직 및 전개 방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에서는 그린 푸드 존에서 우수 판매 업소가 되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보기 2>에서 우수 판매 업소를 지정하는 절차가 어렵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논설문 과제’에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린 푸드 존 제도를 내실화하자는 내용의 글을 쓰기로 했으므로 서론에서 학생들의 먹거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본문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쓴다고 했으므로 그린 푸드 존 제도의 전국적 실시 현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본문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실시 현황을 쓴다고 했으므로 학교 매점 외에 우수 판매 업소가 거의 없는 현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다.

⑤ ‘논설문 과제’와 일치하도록 결론에서 그린 푸드 존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내용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048 논설문의 자료 활용 방안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수 판매 업소 192개 중에서 190개가 학교 매점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린 푸드 존 제도를 지키지 않는 학교 매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 제시된 통계 자료에서 위반 업소 현황의 자료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푸드 존에 있는 업소의 수를 알아야 한다. 업소의 수와 위반 업소 수의 비를 구해야만 지역 별로 그린 푸드 존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인터뷰는 현장의 의견을 그대로 듣는 장점이 있지만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이 일반적인 생각과 차이가 없는지 유의해야 한다.

④ (나)의 신문 기사는 ○○시의 자료만 보여 주고 있으므로 (가)와 연결하여 그린 푸드 존의 위반 현황을 제시할 때는 (나)가 특정 지역의 자료임을 고려해야 한다.

⑤ (나)와 (다)에서 우수 판매 업소가 적은 이유는 우수 판매 업소가 되면 가게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린 푸드 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판매 업소 상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049 효과적으로 의견 전달하는 글쓰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의 경우 실명제 전환은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취지, 광장의 비유적 표현, 상담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인증을 마친 사람에게만 글쓰기 권한을 주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해결 방안 제시 등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②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④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⑤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제시되고 있으나,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050 기사문 내용 조직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사문에서 통일성이 결여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초고'에서 '이런 것을 보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참 중요한 직업이 아닐 수 없다.', '심장병은 참 위험한 질병이다.'와 같은 문장은 기사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어 통일성을 해치는 것들이다. 그런데 '수정 기사'에서는 그 둘 중 후자만 삭제되어 있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육하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정보가 담기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문 작성상의 기본 원칙이다. '기사 초고'에는 '언제', '어디서'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았다. 편집 회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기사'에서 '지난 10월 5일'로 '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였으나 '어디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② 기사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과 본문을 구분하여, 전문에서는 기사 내용을 압축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그러나 '기사 초고'는 전문과 본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기사문의 일반적인 형식에 맞추어 전문과 본문으로 구분하여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한 '편집 위원 2'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기사'에서는 첫째 문단에서 내용을 요약하여 전문으로 내세웠고, 둘째 문단에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여 본문으로 배치해 놓았다.

③ 기사문의 표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어구나 문장으로 사건이나 상황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한데, '기사 초고'의 표제는 기사의 핵심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 응급조치를 배워야 할 이유가 기사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표제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편집 회의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 기사'에서는 기사의 핵심을 잘 드러낸 내용으로 표제가 수정되었다.

⑤ 기사문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면 취재를 충실히 하여 가급적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초고'에는 사건 이후의 내용이 없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충족해 주기 어려웠는데, '수정 기사'에는 구조된 남성과 구조한 학생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051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들의 SNS 이용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SNS 이용 시간이 과도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SNS 이용 목적이 바람직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한 것이다.

② 설문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업 및 일상생활에 끼치는 SNS의 악영향에 대해서 쓰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52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SNS가 친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중독성이 강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학업 및 업무에 악영향을 주며,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SNS 이용 시간이 과도한 것이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만을 가지고 SNS 이용을 취미로 여기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SNS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글이므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SNS 이용의 긍정적 효과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⑤ (나)를 통해서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SNS의 목적과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053 자기소개문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수정 후>의 글에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조언 중 ㉠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수정 전>의 글에는 자신이 고집불통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수정 후>의 글에는 장난감이나 간식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내용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수정 전>의 글에서는 네 번째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수정 후>의 글에서는 세 개의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자기소개문의 문항에서 자신의 성격상 특징을 꿈과 연결하라고 했는데, <수정 전>의 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 후>의 글에서는 자신의 성격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자기소개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⑤ 대학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글임을 고려하여 <수정 후>의 글에서는 '나'를 '저'로 바꾸고 높임법을 사용하여 예의를 갖추어 표현하고 있다.

054 내용 생성 및 조직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내용은 내용 생성의 전략으로 자유 연상에 해당한다. 자유 연상은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며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 연상의 방법은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성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은 학생의 작문 초고에 제시된 '개인적 요인은 사회가 개입할 수 없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사회 제도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는 저출산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작문의 초고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저출산의 요인)를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 ‘왜 문제일까?’ 는 작문의 초고 중 서론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 는 작문의 초고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공공의 차원에서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⑤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 ‘연관된 사회 문제가 뭐지?’ 는 작문의 초고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시된 내용은 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대책으로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라는 작문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055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을 보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국가가 함께 출산율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ㄷ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함께 출산율 간에는 관련성(상관관계)이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초고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들의 자아 실현 욕구로 인한 사회 활동의 증가’ 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참여에 소극적인 여성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을 보면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이나 보육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로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다.

② ㄴ을 보면 직장 여성들의 출산·육아와 관련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모성 보호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ㄱ에서 프랑스는 직장 여성들의 근무 복지를 향상하는 데 3%가 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ㄴ에서 직장 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모성 보호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ㄴ 모두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이다.

⑤ ㄱ은 출산과 보육 지원에 드는 재정 현황이나 복지 제도의 실태 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며, ㄷ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과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다.

056 작문 계획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지와 민수의 사고 과정에는 모두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 제시 순서를 미리 고려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민수와 달리 은지만이 내용 제시 순서를 고려하였다는 반응은 적절치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지는 민수와 달리 작문 과제를 분석하여 과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반면 민수는 과제에 대한 분석이 없어 과제에서 요구한 것과 무관한 글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민수는 우리나라의 건강식을 소개한다는 내용을 생성함으로써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사고를 한 반면, 은지는 주제에 한정된 사고를 하고 있다.

④ 민수는 은지와 달리 인터넷 백과사전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글에서 활용할 정보를 찾아 사고를 전개하고 있다.

⑤ 은지는 민수와 달리 평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떠올림으로써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057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Ⅱ-3-가’ 에서 인권 침해의 발생 원인으로 ‘ID 도용, 해킹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유형으로 사생활 침해가 이에 해당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Ⅲ. 결론’ 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I. 서론’ 에서도 적합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1인 미디어는 블로그, SNS, UCC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전반을 가리키며 인권 침해의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중심 화제인 ‘SNS에서의 인권 침해’ 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상위 항목은 ‘SNS에서의 인권 침해 발생 원인’ 을 언급하고 있다. 개요에 제시된 내용은 SNS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 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상위 항목의 내용은 SNS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방안이고, 개요에 제시된 내용은 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방 방안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의 확립’ 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58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가)의 신문 기사는 SNS가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글을 올릴 때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SNS에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①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SNS에 글 자체를 올리지 말라는 내용은 <보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정보 통신 윤리 교육 이수의 내용은 <보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보기>의 자료는 처벌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글을 올릴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정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NS에 그 정보를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일은 무책임하게 정보를 퍼뜨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059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동도서관 문제는 동네 서점의 활성화 문제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Ⅱ-1-가~다' 는 동네 서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상위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

② 가격 할인 경쟁은 유명무실한 도서 정가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③ 상위 항목이 '동네 서점 위축의 원인' 이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하위 항목이 되어야 한다.

⑤ 'Ⅱ-2-라' 에서 '동네 서점만의 이점을 살리는 전략의 미비' 를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전략 모색' 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060 작문 목적의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네 서점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은 동네 서점 운영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지역 주민을 예상 독자로 한 글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동네 서점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동네 서점 운영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동네 서점 운영자에게 이를 촉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② 지역 주민에게 동네 서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동네 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쓸 수 있다.

③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도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구매의 다양한 통로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⑤ 동네 서점 운영자의 입장에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문법

061~096

본문 38~50쪽

- | | | | | |
|-------|-------|-------|-------|-------|
| 061 ④ | 062 ① | 063 ⑤ | 064 ① | 065 ⑤ |
| 066 ② | 067 ⑤ | 068 ② | 069 ④ | 070 ⑤ |
| 071 ② | 072 ③ | 073 ⑤ | 074 ③ | 075 ② |
| 076 ③ | 077 ④ | 078 ③ | 079 ② | 080 ② |
| 081 ③ | 082 ③ | 083 ② | 084 ⑤ | 085 ② |
| 086 ② | 087 ④ | 088 ③ | 089 ④ | 090 ⑤ |
| 091 ③ | 092 ④ | 093 ④ | 094 ③ | 095 ⑤ |
| 096 ④ | | | | |

061 이중 모음 발음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식의' 와 '지혜의' 에서 '의' 는 모두 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 '의' 앞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조사 '의' 의 발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사 '의' 는 [네] 로 발음해도 이를 허용한다.

② 조사 '의' 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조사 '의' 는 [ㅣ] 로 발음할 수 없다.

⑤ '지식의' 와 '법칙의' 의 '의' 는 모두 조사이므로 발음이 동일하다.

06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어' 는 '굿다' 의 활용형이다. '그어' 에 '긋-' 이라는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굿다' 가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③, ④, ⑤ '코끼리', '설거지', '반드시', '사라지다' 는 모두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소리대로 표기된 것이 외에 별도로 밝혀야 할 형태소의 본 모양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 들이다.

063 담화 표지의 기능에 대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표시해 주는 담화 표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번에는' 은 지금까지의 화제와는 다른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알려 주는 담화 표지이다.

② '우선' 은 '어떤 일에 앞서서' 라는 뜻으로 여러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알려 주는 담화 표지이다.

③ '따라서' 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



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인데, 여기에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담화 표지로 쓰이고 있다.

④ ‘그것’은 앞에서 제시된 ‘응회암’을 지시하는 말인데, 이러한 지시어를 사용하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글이 응집성을 갖추게 된다.

064 문장 성분의 역할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수학을,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에서 동일한 서술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 절의 ‘좋아하고’를 생략한 것인데, 이는 꼭 필요하지 않은 서술어의 자연스러운 생략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의 예로는 ‘수학여행 계획과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치르다’는 ‘중간고사를’이라는 목적어와 호응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수학여행 계획’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따라서 ‘수학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처럼 써야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우리는 가끔 가까운 친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에게 실망하기도 한다.’처럼 써야 한다. ‘실망하다’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필요한데도 부적절하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진가’라는 말이 ‘참된 값어치’라는 뜻이므로, ‘참된 진가’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관형어가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④ 서술어가 ‘하고 싶은 말은’과 호응하도록 ‘~조용히 공부하지는 것이다.’로 고쳐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안 된다’와 호응하지 않는 부사어 ‘반드시’를 ‘결코’ 등으로 고쳐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065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단어 ‘첫째’가 ㉠에서 설명한 수사로 쓰인 것은 ‘처음에 헤아리는 수’를 뜻하면서 그 뒤에 조사가 결합된 ㉡이고, ㉢에서 설명한 관형사로 쓰인 것은 ‘순서, 차례가 먼저’를 뜻하며 뒤에 놓인 체언을 수식하는 ㉣이다. 또 명사 중 ㉠에서 설명한 ㉤이 가리키는 ‘말이’의 뜻으로 쓰인 것은 ㉤이고 ㉡에서 설명한 ㉤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066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브르매’는 첫째 음절의 ‘ㄷ’과 둘째 음절의 ‘ㅍ’가 모두 ‘ㅍ’로 바뀌었으므로 ‘브르매’만으로는 답지에 제시된 국어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쁜’은 연결 표기로, 분절 표기인 ‘깊은’과

표기 형태상 차이가 있다.

③ ‘도코’는 중세 국어에서 ‘ㅣ’나 반모음 ‘ㅣ[y]’ 앞에서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④ 중세 국어에서 ‘여름’은 ‘열매’를 뜻하는 단어였다. 즉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둘째 철’을 뜻하는 현대 국어 ‘여름’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뜻은 다르다.

⑤ 현대 국어의 ‘하다’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단어는 ‘하다’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하다’와 별개의 단어이다.

067 표준 발음법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발이랑’은 명사 ‘발’에 조사 ‘이랑’이 결합한 것으로 [바치랑]으로 발음하며, ㉡의 ‘발이랑’은 명사 ‘발’과 명사 ‘이랑’의 합성어로 ‘ㄴ’이 첨가되어 [반이랑] → [반니랑]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에서 ‘발’의 ‘ㅍ’은 ‘이랑’과 결합 후에 [ㄴ]으로 발음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발’의 ‘ㅍ’은 제8항(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ㅍ]로 발음되어 조사 ‘이랑’과 결합하여 [ㅍ]가 된다.

② ㉡의 ‘발이랑’은 [바치랑]으로 발음한다.

③ ㉢의 ‘발이랑’에서 ‘발’은 ‘이랑’과 결합하기 전에 [반]으로 발음한다.

④ ㉣의 ‘발이랑’은 ‘발’과 ‘이랑’의 합성어로,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반니랑]으로 발음한다.

068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넉넉하다’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든 경우로 ‘넉넉지’로 쓰고 [넉넉찌]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거센 소리가 된 경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흔하다’는 ‘하’의 ‘ㅏ’가 줄면서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거센소리 ‘ㅌ’으로 소리 나는 사례이다.

③ ‘익숙하다’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든 경우로 ‘익숙지’로 쓰고 [익숙찌]로 발음해야 한다.

④ ‘깨끗하다’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든 경우로 ‘깨끗지’로 쓰고 [깨 찌]로 발음해야 한다.

⑤ ‘저렇다’ 등에서 거센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저러하다’가 줄면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069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내 동생은 나보다 철수를 좋아한다.’는 ‘내 동생이 내가 철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철수를 더 좋아한다.’로 읽힐 수도 있고, ‘내 동생이 나보다는 철수를 더 좋아한다.’로도 읽힐 수 있다. 이처럼 한 문장이 여러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것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썰매는 달리는 것이고 팽이는 도는 것이므로 ‘썰매와 팽

이가 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직접 인용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금지되어진다’에는 ‘되다’와 ‘-어지다’의 이중 피동이 나타나 있다.
 ③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내려오시라고’는 적절하지 않다.
 ⑤ ‘생각은’이라는 주어에는 ‘~것이다’라는 서술어가 어울린다.

070 **담화의 유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매체의 성격, 예상 독자(청자)에 따라 담화는 그 형식을 적절하게 바꾸게 되며, 담화에 따른 문법적 특성을 지닌다. ⑤에서 지적한 내용은 대개 문장의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가)에서 쓰인 피동 표현 ‘-게 되-’가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라는 구어적 상황을 가정하여 담화가 구성되어 ‘요’와 같은 종결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요체의 상대 높임 표현, ‘-(으)시-’를 통한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가)가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나)의 담당자 답변 문장에서는 주제에 따라 두 문장으로 나누어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쓰인 ‘영위’, ‘교부’, ‘매입’, ‘발생’ 등은 주로 법률문과 같은 문장에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나)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이들 한자어를 고유어나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쓰는 한자어로 교체하였다.

071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들어서다’, ‘들어오다’는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서다(들어서다)’,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들어오다)’ 등으로 ‘들다’ ①의 뜻을 살리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나누는 것은 하나의 표제 단어 안에서 다의어 관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대개 번호가 앞인 것이 중심적 의미, 뒤의 것이 주변적 의미이다. 표제어 번호가 별개인 것은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③ ‘전국에 풍년이 들다’에서 쓰인 ‘들다’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풍년이 들다, 한파가 들다, 가뭄이 들다’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된 예문의 ‘들다’ ①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들다’ ② 뜻의 유의어로는 ‘가지다, 쥐다’ 정도를 제시할 수 있

겠으나, ‘올리다’는 들어맞지 않는다. 만약 ‘역기를 들다, 손을 들다’에 쓰인 ‘들다’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면 ‘올리다’를 유의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⑤ ‘들다’의 속담은 ‘들다’와 ‘나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나, ‘들다’의 속담에 쓰인 ‘나다’는 ‘일을 마치고 나니’와 같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서 뜻이 다르다.

07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ㄴ의 주어 ‘고원’을 ‘네(네가)’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이 되므로, 올바른 의문문의 형태는 ‘-나다’를 사용한 ‘네 이제 엇더하나다’가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끝난다.
 ② ㄴ은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ㅓ’의 형태로 끝나는 반면 현대 국어는 ‘ㅏ’의 형태로 끝난다.
 ④ ㄷ은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특이하게 ‘-나다’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⑤ ㄷ의 주어 ‘네’를 ‘따리(딸이)’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게 된다. 주어가 3인칭일 경우 ‘-나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엇데’를 고려하여 의문문의 마지막 모음이 ‘ㅓ’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073 **표준 발음법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기(士氣)’와 ‘인기(人氣)’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결합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이 없다. 한자어는 단어 내부에서 일정한 규칙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한자어는 형태만으로 그 발음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된소리 유무를 일일이 표시해 주어 화자들이 표준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예) 소수[소:수(小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소수(素數): 2, 3, 5처럼 1보다 크고, 1과 그 자체 외의 정수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갈등(葛藤)’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평등(平等)’의 ‘평’은 ‘ㄹ’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넓-’은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넓게’는 “어간 받침 ‘ㅃ,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여덟’의 ‘덟’은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옆집’은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 ㅌ,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미집’의 ‘미’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아침밥’은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ㅌ, ㄴ, ㅌ, ㄴ’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된밥’의 ‘된’은 ‘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074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생’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이므로, ‘이에요’를 결합하면 ‘동생이에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모자’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② ‘올챙이’에 ‘이에요’를 결합하면 ‘올챙이에요’로 줄여 쓸 수 있다.

④ ‘나무’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무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⑤ ‘경찰관’처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에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075 비문의 해소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잊어버리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억하여 내지 못하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며, ‘잃어버리다’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따라서 ㉠에서는 ‘잊어버린’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라는 문장은 ‘나’가 ‘철수와 영희’를 각각 만났다는 것인지, ‘나’와 ‘철수’가 함께 ‘영희’를 만났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중의적 표현이다. 따라서 ‘나는 철수와 함께’라고 고쳐 중의성을 제거하였으므로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 ‘꽃’은 무정물이므로 조사 ‘에’와 호응하지만, ‘동생’은 유정물이므로 조사 ‘에게’와 호응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엄마, 아버지가 방금 들어오셨어요.’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면서 주격 조사로 ‘께서’를 쓰지 않고 ‘가’를 썼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다. 고친 표현에서는 주격 조사로 ‘께서’를 사용했으나,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엄마, 아버지께서 방금 들어오셨어요.’ 정도가 적절한 표현이다.

076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선울’과 ‘환울’의 사례를 통해 가설을 검증해

보면, 모음 이외에도 ‘ㄴ’ 받침 뒤에서는 ‘울’로 표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합격률’과 ‘취업률’의 사례를 통해 가설을 검증해 보면, ‘오’ 받침 이외에 ‘ㄱ’ 받침과 ‘ㅂ’ 받침 뒤에서도 ‘률’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검증해 보면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경우에는 ‘률’로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한글 맞춤법 규정 11항 [붙임 1]에서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선율’, ‘환율’을 검증해 보면, 자음 뒤에서 ‘률’로 표기한다는 설명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또, ‘선율’, ‘환율’을 검증해 보면, 모음 뒤에서만 ‘율’로 표기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제시된 사례를 검증해 보면, 단어 형성법의 차이에 따라 ‘률’과 ‘율’의 표기가 선택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세율’을 검증해 보면 ‘ㅣ’ 모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음에서도 ‘율’로 표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성공률’과 ‘실패율’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3음절로 된 단어에서 ‘율’과 ‘률’이 모두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77 담화의 특징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인 ‘민규’와 같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나’이고 ㉡은 ‘나’이지만,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민규’로 동일하다.

② 보영이는 갑자기 대화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담화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여 지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③ ㉢은 보영이가 말한 ‘영화’가 앞서 영수가 언급한 ‘영화’와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⑤ ㉢은 화자인 영수와 청자인 민규를, ㉣은 화자인 보영이와 청자인 민규, 영수를 포함한다.

078 문자 생활사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素那’와 ‘金川’이 하나의 이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素那’와 ‘金川’을 읽은 결과가 같았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자의 뜻과 음을 정리한 표를 보면, ‘素那’를 음독하여 [소나]와 유사한 발음으로, ‘金川’을 훈독하여 [쇠내]와 유사한 발음으로 읽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素那’와 ‘金川’이 각기 다른 고유 명사를 나타내기 위한 표기라는 설명은 가설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④, ⑤ ‘자료’의 ‘참고’에 제시된 한자의 뜻과 음을 고려할 때, ‘素那’, ‘金川’가 유사한 발음으로 읽히기 위해서는 ‘素那’는 음 부분을 읽고 ‘金川’은 뜻 부분을 읽어야 한다. 따라서 ②, ④, ⑤ 모두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079 음의 길이 구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짧게 발음한다. ‘꼬이다’는 ‘꼬-’라는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거나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③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80 어문 규범의 구체적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불필요하게 ‘으’를 덧붙여서 생기는 오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되물은’의 ‘되물-’은 ‘되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바뀐 것으로,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날으는’의 ‘날-’은 ‘ㄹ’로 끝나는 어간이며, ‘-는’ 앞에 ‘으’가 덧붙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③ ‘부풀은’의 ‘부풀-’은 ‘ㄹ’로 끝나는 어간이며, ‘-는’ 앞에 ‘으’가 덧붙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④ ‘울으니까’의 ‘울-’은 ‘ㄹ’로 끝나는 어간이며, ‘-니까’ 앞에 ‘으’가 덧붙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⑤ ‘끝으시다’의 ‘끝-’은 ‘ㄹ’로 끝나는 어간이며, ‘-시다’ 앞에 ‘으’가 덧붙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081 문장 성분 간의 호응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은 앞뒤 문장의 내용이 적절하게 배열되지 못하였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의 성격이 비슷해야 하나 이 경우 서로 관계가 없는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 놓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열리지 않는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열리지 않는다’가 적절하다.

②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문장에서 ‘선생님’을 높이는 것

이므로 ‘빨리 오라’로 표현해야 한다.

④ ‘것’은 단순 지시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이라는 내포적 의미가 있으므로 ‘철수가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또는 ‘철수의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로 해석될 수 있다.

⑤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는 것이다.’로 표현해야 한다.

082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분다’의 경우, 활용 형태가 ‘불어, 불으니, 분는’으로 제시되어 결합되는 어미에 따라 어근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불규칙 활용 동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붓다’, ‘붓다’는 모두 [분:따]로 발음되므로 동음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② ‘붓다’과 달리 ‘붓다’는 【...에/에게 ...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붓다’² ‘1’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따르다’와 유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불은’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한 용례로 볼 수 있다.

083 호칭어와 지칭어의 쓰임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대화 2’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선희 아빠’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한 호칭에 해당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 아빠’, 혹은 ‘여보’라는 호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들이 살아 계신 자기의 아버지를 지칭할 때에는 ‘아버지’, 또는 ‘가친’으로 지칭해야 한다. ‘선친’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③ ‘삼촌’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형수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형수의 자식들이 사용해야 한다. 형수는 시동생에게 ‘도련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저희’는 복수 대명사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따라서 ‘저희 나라’라고 할 때 ‘저희’라는 지칭어는 말하는 당사자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포함된 집단 전체, 즉 국민 전체를 낮추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저희 나라’의 ‘저희’는 ‘우리’라는 지칭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⑤ ‘빙장어른’은 남의 장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부하 직원은 자신의 장인에 대한 지칭어로 ‘장인어른’을 사용해야 한다.

084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재출자는 초출자 ‘ㄱ, ㅋ, ㆁ, ㆁ’에 ‘·’를 합성한 ‘ㆁ, ㆁ, ㆁ, ㆁ’이며, ‘ㄱ’는 초출자인 ‘ㄱ’과 ‘ㅏ’를 합성한 것으로 재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훈민정음 28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훈민정음 28자는 초성 17자(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ㄹ, ㅁ, ㅂ, ㅍ, ㅅ, ㅈ,



츠, △, ○, ㅎ)와 중성 11자(·,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ㅋ)로 구성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ㄷ’과 ‘ㅌ’은 기본자 ‘ㄴ’에 가획을 한 것이다.

② ‘ㅂ’과 ‘ㅃ’은 기본자 ‘ㅍ’에 가획을 한 것이다.

③ ‘ㅎ’과 ‘ㆁ’은 기본자 ‘ㅇ’에 가획을 한 것이다.

④ 초출자는 기본자 ‘·’에 나머지 기본자 하나를 합성하여 만든 ‘ㄱ, ㅋ, ㆁ, ㅊ’이므로 ‘ㄱ’은 기본자 ‘ㅣ’와 ‘·’를 합성한 것이다.

085 음운 현상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잇하다’를 [이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ㅂ, ㄷ, ㅈ, ㄱ’과 ‘ㅎ’이 서로 만나면 ‘ㅍ, ㅌ, ㅊ, ㅋ’으로, 두 음운을 합쳐서 발음하는 음운의 축약과 관련된다. 따라서 구개음화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활용하여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붙인다’의 표준 발음은 [부친다]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받침 ‘ㅌ’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같이’는 [가티]가 아닌 [가치]로 발음해야 하며, 이는 받침 ‘ㅌ’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④ 앞의 ‘밭이랑’은 [반니랑]으로, 뒤의 ‘밭이랑’은 [바치랑]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의 ‘밭이랑’은 ‘밭+이랑(명사, 실질 형태소)’의 구조로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닌 반면, 뒤의 ‘밭이랑’은 ‘밭+이랑(조사)’의 구조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⑤ ‘밭을’은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여 [바들]로 발음하지만, ‘밭이’는 구개음화의 조건이기 때문에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086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않-’을 ‘안-’으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나, ‘되어’의 과거형 ‘되었’이 줄어든 ‘됐’을 써야 한다. 따라서 ‘안됐는데’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부사에 ‘-이’나 ‘-히’가 붙어 다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가 붙는 경우는 주로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ㅅ’ 받침 뒤,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하다’가 붙지 않는 어간 뒤, 부사 뒤이다. ‘-히’가 붙는 경우는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어든 형태,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이다.

④ ‘웬일’은 ‘어찌 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로, ‘어찌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의 관형사 ‘웬’과 명사 ‘일’이 결합하여 합성어

를 이룬 것이다.

⑤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지만, ‘그러다’는 동사로 제시된 대화에서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받는다. 따라서 제시된 대화에서는 ‘공부하고 나서’라는 의미의 ‘그리고 나서’라고 수정해야 한다.

087 어문 규정의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설악’은 발음에 따라 [서락]을 로마자로 표기해야 한다. ‘칠곡’을 보면 받침의 ‘ㄹ’을 ‘l’로 표기해야 할 것 같지만, ‘밀양’을 보면 [미량]에 따라 ‘ㄹ’을 ‘r’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칠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말의 ‘ㄱ’은 ‘k’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설악[서락]’의 로마자 표기는 ‘Seorak’이다.

다음으로, ‘문래’는 발음에 따라 [물래]를 로마자로 표기해야 한다. ‘전주’를 보면 받침의 ‘ㄴ’을 ‘n’으로 표기해야 할 것 같지만, ‘한라’를 보면 유음화된 발음에 따라 [할라]를 기준으로 겹쳐 나는 ‘ㄹ’을 ‘ll’로 표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래’의 로마자 표기는 ‘Mullaë’이다.

088 중의성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의문의 의미를 파악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c를 몇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지’ 뒤에 ‘는’을 붙이면 된다. 주어진 문장에서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고 해도 몇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다.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이나 주체의 의도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못’ 부정문은 주로 주체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중의성이 생긴 경우이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려진 그림인지, 아버지가 가진 그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로 확정하려면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다.’로 바꾸면 된다.

② b는 조사 ‘와’에 의해 두 문장 성분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중의성이 문제가 된다.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내 친구도 결혼하고 그녀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올해 둘이 서로 결혼했다는 의미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하였다.’로 수정하면 된다.

④ d는 의존 명사 구문의 불명확성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그가 웃는 모습이 이상한 것인지, 그가 웃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가 웃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가 웃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로 수정하면 된다.

⑤ e는 수식 구조의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그녀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녀의 표정이

밝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녀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로 수정하면 된다.

089 높임 표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대화 상황에 있는 사람은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다. ‘말씀’이 ㉞에서처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말을 언급할 때에는 겸양 표현으로 쓰이지만, ㉝에서처럼 상대방의 말을 지칭할 때에는 높임의 기능을 하므로, ‘대화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말을 언급할 때에는 낮춤의 기능을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㉜의 ‘당신’은 대화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2인칭으로 볼 수 있다.

② ㉝의 ‘당신’은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3인칭으로 볼 수 있다.

③ ㉜, ㉝ 모두 대화 상황에 없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씀’을 지칭하므로 3인칭으로 볼 수 있고, 문맥상 높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 ㉝의 ‘당신의 말씀’은 3인칭의 발언을 지칭하고, ㉜의 ‘당신의 말씀’은 대화 상대방의 발언을 지칭하는데, 문맥상 모두 높임의 기능을 한다.

090 국어 자료의 변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15세기의 ‘㉠·㉡’, 17세기의 ‘㉢·㉣’로 볼 때, 17세기에도 15세기와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법인 연철(이어 적기)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7세기에는 ‘석달’처럼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표기법인 혼철(거듭 적기)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481년의 자료에는 방점이 사용되고 있지만, 1632년 이후 자료에는 방점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② 1481년과 1632년 자료에 사용되는 ‘ㅍ’나 ‘ㄱ’은 현대 자료에 한자어 ‘산(山)’과 ‘강(江)’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③ <보기>를 통해, 1481년에 ‘ㅎ’로 쓰이던 것이 1632년에는 ‘ㅏ’로 쓰였고, 현대어에서는 ‘ㅑ’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④ 1481년의 자료(㉠·㉡·㉢)와 1632년의 자료(㉣·㉤)에는 두 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나, 현대어 역 자료(㉥·㉦)에는 두 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다.

091 표준어 규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래, 위’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웃퐁’이 표준어이다. ‘웃퐁’은 ‘방에 웃퐁이 세다.’의 용례로 쓰이는 단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래, 위’의 대립이 있고, ‘뚝’의 ‘ㅌ’이 된 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윗뚝’이 표준어이다.

② ‘아래, 위’의 대립이 있고, ‘쪽’의 ‘ㅈ’이 된 소리이기 때문에 ‘위쪽’이 표준어이다.

④ ‘아래, 위’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웃똥’이 표준어이다.

⑤ ‘아래, 위’의 대립이 있고, ‘도리’의 ‘ㄷ’이 된 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윗도리’가 표준어이다.

09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은 어간이 ‘ㄷ’로 끝나는 용언이 어미 ‘-아/-어’와 결합하면 어간의 모음 ‘ㄷ’가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잠가’의 경우 ‘잠그-’에 ‘-아’가 결합하면서 ‘ㄷ’가 탈락한 형태이고, ‘담가’의 경우 ‘담그-’에 ‘-아’가 결합하면서 ‘ㄷ’가 탈락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로, ‘치르다’의 어간 ‘치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ㄷ’가 탈락하여 ‘치러’와 같은 형태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간의 끝 ‘ㄴ’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어간의 끝 ‘ㅂ’이 어미 ‘-어’ 앞에서 ‘우’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093 외래어 표기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외래어 표기법에서 [f]는 모음 앞에서 ‘프’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프’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ighting’은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빠리’가 아니라 ‘파리’로 표기한다.

② 모음 앞에서 [ʃ]는 모음에 따라 ‘샤’, ‘샤’, ‘셔’, ‘셰’, ‘쇼’, ‘슈’, ‘시’로 표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멤버십’이 아니라 ‘멤버쉽’으로 표기한다.

③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라디오’는 굳어진 외래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용을 존중하여 ‘레이디오’가 아니라 ‘라디오’로 표기한다.

09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경우 ‘예방’의 ‘예’는 ‘미리’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미리’와 ‘예방’의 의미가 서로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의 경우 ‘입덧은’이라는 주어의 서술어가 ‘기능이라고’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막는’의 자릿수는 잘 지켜졌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에서 질병의 지시 대상이 모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는’의 자릿수도 잘 지켜졌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에서 질병의 지시 대상이 모호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에서 '뿐만 아니라'는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인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의미 관계상 이 표현이 매우 적절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095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휘'는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중후가'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휘'는 '중후'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축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롭이니'는 '사르미니'와 같이 음절 끝 자음을 다음 모음으로 이어 적지 않고 끊어 적고 있으므로 끊어 적기로 쓴 표기이다. 또 '도적글'의 경우 'ㄱ'을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또 뒤 음절의 초성으로도 적는 거듭 적기가 나타나 있다.

② '티다가'를 보면 '이' 앞에서 'ㅌ'이 'ㄷ'으로 구개음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뉴평노', '널와다'를 보면 '뉴'나 '이' 모음 앞의 'ㄴ'이 탈락되지 않았으므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안영으로'는 '안영과'로 풀이되어 있다. 즉 '으로'가 지금의 공동 부사격 조사 '와/과'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6 관용적 표현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는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라'는 상징적 서술을 앞세움으로써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 또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③은 '제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을 비꼬는 말이며, ⑤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엇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앞 절이 뒷 절의 주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 절과 뒷 절이 합해져서 하나의 의미(주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독서

097~180

본문 52~90쪽

097 ③	098 ⑤	099 ⑤	100 ④	101 ③
102 ③	103 ①	104 ④	105 ①	106 ③
107 ②	108 ⑤	109 ⑤	110 ③	111 ①
112 ⑤	113 ④	114 ⑤	115 ④	116 ⑤
117 ⑤	118 ⑤	119 ⑤	120 ③	121 ②
122 ③	123 ③	124 ③	125 ⑤	126 ⑤
127 ④	128 ②	129 ③	130 ⑤	131 ③
132 ④	133 ①	134 ①	135 ③	136 ④
137 ⑤	138 ③	139 ③	140 ②	141 ⑤
142 ②	143 ②	144 ①	145 ②	146 ③
147 ③	148 ③	149 ①	150 ④	151 ④
152 ④	153 ⑤	154 ④	155 ③	156 ④
157 ④	158 ③	159 ③	160 ①	161 ⑤
162 ③	163 ⑤	164 ②	165 ③	166 ⑤
167 ④	168 ④	169 ⑤	170 ③	171 ④
172 ④	173 ④	174 ④	175 ③	176 ①
177 ⑤	178 ①	179 ③	180 ④	

「한국 전통 예술에 나타난 호랑이」

| 해제 |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전통문화 속 호랑이를 소재로 삼아 논하고 있는 글이다.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단순한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숭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 이는 고분에 그려진 그림에서부터 드러난다.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생각해 고분의 사신도에 호랑이를 그려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숭배와 경외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호랑이는 영험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호랑이를 친숙한 대상으로 여겼음을 나타낸다.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 주제 | 전통문화 속 호랑이의 의미와 그 변모 양상

| 구성 |

- 1문단: 호랑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인식
- 2문단: 고구려와 통일 신라 시대의 호랑이에 대한 인식
- 3문단: 수호신으로서의 신령스러움이 강조된 고려 시대 호랑이의 모습

- 4문단: 조선 시대에 이르러 친숙한 이미지로 변모된 호랑이의 모습
- 5문단: 전통문화 속 호랑이의 모습에 반영된 호랑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

097 글의 전개 방식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전통문화 속 호랑이의 모습과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가 어떻게 인식되었고,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구려의 고분, 통일 신라 시대의 묘, 고려 시대의 분묘 등에 그려진 호랑이의 모습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조선 시대의 의궤도, 민화 등에 그려진 호랑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 전통문화에 그려진 호랑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호랑이에 관한 예술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은 대상에 대한 관점이 변모하게 된 원인을 여러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전통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호랑이의 특징적 모습을 통해 호랑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④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호랑이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⑤ 호랑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

098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호랑이의 영험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도상이 조선 후기의 민화로 이어져 독창적인 해학과 익살, 재치를 물씬 풍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민화에 그려진 호랑이의 과장된 듯한 묘사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호랑이가 영험한 존재로 널리 수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이다. 호랑이가 용과 흡사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호랑이를 영물로 여겨 신성시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고려 시대의 사신도에 그려진 호랑이의 얼굴 표정은 용과 호랑이를 합성해 놓은 모습이다. 이는 (가)의 호랑이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다.

③ 고구려, 통일 신라, 고려 시대에 호랑이를 고분이나 무덤에 그려 놓은 것을 통해 호랑이가 수호신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민화 속 호랑이가 보여 주는 익살스러운 모습이 호랑이를 친근하게 여기는 의식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의 역학」

해설 이 글은 인간의 행위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자유 연상법을 활용하여 꿈을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정신 내부의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꿈은 소망의 성취이지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현실에서 의식에 의해 억압된 소망이 의식이 약화되는 꿈에서 왜곡된 형태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신 내부의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인데, 이와 같은 역학 관계는 자유 연상에도 적용된다. 즉 꿈꾼 당사자가 꿈을 망각하거나 추가, 위조하는 것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다시 강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은 그것들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주제 꿈과 자유 연상을 통해 본 정신의 역학 관계

구성

- 1문단: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
- 2문단: 무의식에 접근하는 통로로서의 꿈과 자유 연상법의 활용
- 3문단: 꿈의 왜곡을 통해 본 정신 내부의 역학 관계
- 4문단: 자유 연상을 통해 본 정신 내부의 역학 관계

099 세부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3, 4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수면 상태에서는 의식의 검열이 약화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억압된 소망이 꿈을 통해 압축이나 전치와 같은 무의식 고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취된다. 그러므로 의식의 검열이 강화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압축이나 전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 4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에서 소망을 억압하게 된다.

② 4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들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가차나 강도가 결정된다.

③ 1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신경증과 같은 병리적 현상이나 무의미해 보이는 말실수, 정상적인 시공간의 질서나 논리적 연관이 무시되는 꿈은 무의식에 접근하는 주요 통로로, 무의식적인 정신생활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④ 1, 2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꿈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정신생활을 이해하는 지름길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 연상법을 활용하여 꿈을 재구성함으로써 무의식적 동기를 찾아낼 수 있다.

10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3, 4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꿈을 통해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수면 상태에서 의식의 검열이 사



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약해지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 4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보면, 첫째 조카의 장례식에서 만난 남성을 다시 만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에서 둘째 조카의 장례식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그 남성을 만나 소망을 성취하고 있다.

② 4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보면, 값을 돈이 없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무의식적 사고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에 대한 의식적 사고가 갈등하면서 이들의 역학 관계에 따라 무의식적 사고가 기억에 저장함으로써 망각이 일어난 것이다.

③ 1, 2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보면, 프로이트는 무의미해 보이는 말실수도 결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말실수를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았다. 의장의 말실수 역시 며칠째 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에 지쳤지만 다시 회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사고들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무의식적 사고가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1, 2, 4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신 내부에서 갈등하는 사고들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망각과 말실수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학 관계에 따라 무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1 내용의 비판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B학생은 인간이 의식에 의해 지배되고 그 행동은 의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A학생이 소개한 영화의 핵심인 무의식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발상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학생은 무의식적 동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기로 보기 때문에 위조될 수 있다거나 꿈을 매개로 한다는 반박은 적절하지 않다.

② B학생은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의 행동이 의식에 의해서만 지배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유 연상법을 통해 꿈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견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정신 내부의 역학 관계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프로이트의 견해이므로 적절한 반박으로 볼 수 없다.

⑤ B학생은 인간의 행동이 의식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나누어 각각 무의식과 의식이 지배한다는 반박은 적절하지 않다.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

해제 | 미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은 사회화 과정에서의 인간의 능동성을 인정하며,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상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사회·문화 현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

탕으로 이 이론에서는 자아의 형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토대로 자아의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을 대표하는 미드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의 자아가 객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나'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자발적인 자아의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특징과 의의

구성 |

- (가):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등장 배경
- (나):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핵심적인 입장
- (다): 상징적 의미의 획득과 자아 형성에 관한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입장
- (라): 자아의 발달에 관한 미드의 이론
- (마): 자아에 관한 미드의 견해와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의의

102 문단의 핵심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에서는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과 관련해, 상징적 의미의 형성과 자아의 형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러 관점에서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특징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사회적 압력이 인간의 자아를 통제하고 규정한다는 기존 사회학의 입장에 반발해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상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사회·문화 현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핵심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미드의 견해를 토대로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아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객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나'라는 대비되는 개념을 제시한 후, 자발적인 자아의 활동을 강조하고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의 의의를 덧붙이고 있다.

10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미드는 자아의 발달 단계를 '유희기', '게임 단계', '일반화된 타자'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게임 단계에서는 조직된 활동을 통해 타자의 역할을 취한다. 이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을 습득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에 그려져 있는 B의 모습을 보면 B가 A의 역할을 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에 나타나 있는 B의 모습을 A의 역할을 취해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를 매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풋말을 가지

고와 설치하는 A의 행동이 상징적 의미를 매개로 B와 상호 작용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에 따르면, 상징적 의미는 본래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④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에서는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A와 B의 관계가 B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⑤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대상과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A가 ‘개를 조심하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온 행위는 A가 B를 ‘조심해야 할 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B에게 전달해 준다. 이에 따라 ㉔와 같이 B의 자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B가 A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달된 상징적 의미를 내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04 새로운 정보의 추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㉑에서는 객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나’를 설명하고 있다. 객체로서의 ‘나’는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내면화된 자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를 알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기대·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체로서의 ‘나’는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자아이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입각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 작용의 상황에서 공동체의 규범이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해서 참여자의 행동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상징적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참여자는 객체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고, 주체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에서는 객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나’를 구별한다.

③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은 객체로서의 ‘나’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을 습득하면 객체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 줄 수 있다.

⑤ 주체로서의 ‘나’는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자아이다. 이러한 자아는 공동체의 규범이나 가치에 따르지 않는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墓誌銘)」

| 해제 | 이 글은 박지원이 자신의 누님을 여의고, 장지로 떠나가는 상여를 보며 통곡하며 애도한 마음을 묘지명으로 남긴 것이다. 기존의

문체와 형식을 따르지 않고 슬픈 마음을 진솔하고 감상적으로 잘 표현한 글로서 선인들의 명문에 지지 않을 글이라 할 수 있다.

| 주제 | 누님의 죽음을 애도함.

| 구성 |

- 1문단 : 누님의 죽음에 통곡함.
- 2문단 : 누님과의 추억을 회상함.
- 3문단 : 누님의 상여 실은 배를 멀리 배웅하며 슬퍼함.
- 4문단 : 인생의 허무함을 시로 표현함.

105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옛사람 중에 참문장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글이 인정을 따르고 생생한 광경을 묘사한 참문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①에서처럼 ‘복고주의’라고 바라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박지원의 글은 자유로운 문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이 보면 어쩌면 폄하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상자 속에 잘 보관하는 것이 낫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박지원의 글은 당시의 정형화된 문체나 형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박지원의 글이 파격적인 형식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진솔한 감정을 애상적이고 수준 높은 문체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에 도 박지원의 처남과 같이 글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일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박지원의 묘지명 역시 일반적인 묘지명과 같이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름만 바꾸어 넣으면 아무나 해당될 수 있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⑤ 당대의 관습적인 지(誌)는 죽은 이의 성씨, 본관, 일생 등을 정형화된 순서로 기록하던 것이었다. 이와 달리 박지원의 묘지명은 누님과 추억, 추모의 마음과 같은 독창적인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다.

106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의 내용을 보면, 옥비녀와 장신구는 동생 박지원의 울음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 꺼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이 혼수품이나 장난감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의 ‘남편의 선산이 아곡에 있었으므로, 장차 그곳 서북쪽 묘역에 장사하게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상여와 더불어, 함께 출발하였다. 중미는 새벽에 두포의 배 안에서 송별하고, 통곡한 뒤 돌아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유인의 휘는 아무개요, 반남(潘南) 박 씨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세월이 흘러, 중년에 들어서는 노상 우환에 시달리고, 가난을 걱정하다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분화의 원리」

| 해제 | 지리적 격리에 의해 일어나는 중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한 개체군이 지리적으로 격리되면 두 개체군 이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만약 그 부모종과 새로운 종 사이에 생식적 장벽이 형성된다면, 유전자 풀이 변하게 되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된다.

| 주제 | 이지역성 중분화와 생식적 장벽

| 구성 |

- 1문단: 유전자 풀의 격리로 인한 새로운 종의 분화
- 2문단: 유전자 흐름을 1차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인 지리적 격리
- 3문단: 개체의 이동 능력에 따른 지리적 격리의 정도
- 4문단: 개체군의 특성과 이지역성 중분화 발생의 용이성과의 상관관계
- 5문단: 생식적 장벽의 의미와 발생 유형

107 세부 정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의 ‘이지역성 개체군이 서로 나누어지려면 지리적으로 얼마만큼 격리되어야 하는가? 이는 각 개체의 이동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한 것에서 개체의 이동 능력은 지리적 격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의 ‘이때 두 개체군 사이에는 유전자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단지 자연 선택, 유전적 부동, 돌연변이 등의 과정에 의하여 변화할 뿐이다.’에서 유전적 부동은 개체군의 진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많은 종의 분화 과정에서 유전자 흐름을 1차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은 지리적 격리이다. 이러한 형태의 종의 분화 과정을 ‘이지역성 중분화’라고 부르며’에서 알 수 있다.

④ 5문단의 ‘생식적 장벽은 개체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어떤 종의 유전자 풀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에서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개체군이 작고 다른 개체군과 격리되어 있으면 이지역성 종의 분화가 일어나기 쉽다. 격리된 소개체군은 거대한 개체군에 비하여 유전적 부동이나 자연 선택 과정 등에 의해 유전자 풀이 크게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10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유전자 풀이 변하여 그 부모종과 새로운 종 사이에 생식적 장벽이 형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생식적 장벽이 형성되었다면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맥아당을 먹은 초파리와 녹말을 먹은 초파리는 서로 다른 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맥아당을 먹은 암컷 초파리는 녹말을 먹은 종이 다른 수컷 초파리가 아닌, 맥아당을 먹은 종이 같은 수컷 초파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실험은 생식적 장벽에 의한 중분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는데, 2문단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이 실험에서 먹이를 달리한 몇 개의 실험군으로 초파리를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 즉 지리적 격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1세대의 초파리들은 동일한 유전자 풀을 지닌 같은 종이다. 따라서 녹말과 맥아당으로 먹이를 달리하더라도 유전자 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③ 1문단에서 유전자 풀이 격리되어 두 개체군이 각기 다른 진화의 경로를 밟게 되는 경우를 개체군 사이에 유전자 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맥아당을 먹은 초파리와 녹말을 먹은 초파리 간에 교배가 이루어졌다면, 이 초파리들은 종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전자 풀이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생식적 장벽에 의한 중분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초파리를 몇 개의 실험군으로 나누고 실험을 하였다. 이는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의 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문단에서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의 분화 과정을 이지역성 중분화라 하였고, 5문단에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생식적 장벽’이 형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지리적 격리 환경이 조성된 맥아당을 먹은 초파리와 녹말을 먹은 초파리 사이에 생식적 장벽이 형성되었다면 이지역성 중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0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암컷 개뿔벌레가 다른 종의 수컷이 보내는 형광 신호에는 관심이 없고 같은 종의 수컷이 보내는 형광 신호에만 응답하는 것은 ‘행동 격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짝짓기가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생식 세포 격리’와는 양상이 다르다. ‘생식 세포 격리’가 수정 전에 나타나는 생식적 장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이 사례는 수정 후에 나타나는 생식적 장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서식지 격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시간적 격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생식 세포 격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110 어휘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의 ‘-으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이와 유사하게 ‘-아서’도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으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② ‘-으려’는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④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 ⑤ ‘-크지라도’는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낸다.

「문화의 사용」

| 해제 | 이 글은 문화 개념을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로 나누고, 행위자들이 정착된 삶과 비정착된 삶에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 주제 | 스위들러의 문화 구분 방법과 특징

| 구성 |

- 1문단: 문화의 사용 방식에 따른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의 구분
- 2문단: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의 차이점
- 3문단: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의 유동적 성격과 유지를 위한 행위자들의 노력 강도의 차이
- 4문단: 문화가 생성되는 환경의 차이로서의 정착된 삶과 비정착된 삶
- 5문단: 정착된 삶과 비정착된 삶에서의 행위자의 전략의 차이

111 세부 내용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특정 지역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의 문화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스위들러의 문화관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통은 어느 정도 적극적 노력을 해야 유지되고, 이데올로기는 이를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이 글 전체에서 보면,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는 행위자가 놓여 있는 맥락에서 자신의 행위 전략을 구성하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을 보면, ‘동일한 상징체계라도, 정착된 삶에서는 행위자가 그것을 상식으로 사용하는 반면 비정착된 삶에서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⑤ 1문단에서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는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고, 3문단에서도 이 세 가지 개념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112 생략된 정보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을 참고하면, ‘주로 기존의 행위 전략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태도가 나타난다.’거나 ‘문화와 경험 간의 연계에서 인간이 느끼는 긴장감이 약화된다.’는 내용이 ‘정착된 삶’의 특성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5문단을 보면, 비정착된 삶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ㄴ: 5문단에서는 사례를 통해 정착된 삶과 비정착된 삶 사이에 이동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11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낭만적 사랑의 문화를 사용하여 남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전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을 행위 전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상식을 버리고 낯선 시대의 문화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노력의 강도가 가장 높은 이데올로기로, 점점 익숙해지면서부터는 전통으로 받아들이며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② A씨가 베트남에 살면서 오랫동안 마스크를 통해서 꿈꾸어 온 낭만적 사랑은 보수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 지역의 전통과 상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2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A씨는 고향인 베트남에서는 일상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던 상식적인 일들이 한국이라는 다른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하는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힘든 삶을 살아온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려는 A씨의 태도는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와 밀의 윤리관」

| 해제 | 칸트와 밀의 윤리관을 견주어 그 차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칸트는 윤리적 행위의 근거로 선천적 의무를 제시했고, 밀은 경험을 제시했다. 칸트와 밀의 윤리관은 각자의 방식을 통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접목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칸트와 밀은 개인의 도덕적 행위와 사회 규범이 충돌할 경우 어떤 면에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개인 윤리의 시급성이 정해지면 저절로 사회 윤리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에서 방법론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제 | 칸트와 밀의 윤리관의 차이

| 구성 |

- 1문단: 칸트와 밀의 윤리관의 특징
- 2문단: 칸트와 밀의 윤리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 3문단: 칸트와 밀의 윤리관에서 ‘좋은 행위’를 위한 판단 근거
- 4문단: 윤리적 행위 근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114 핵심 정보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칸트와 밀은 서로 극명한 방법론적 차이를 보인다고 한 후, 3문단에서 '칸트 식의 윤리관을 수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좋은 행위'를 위한 판단 근거는 결코 경험일 수 없다.', '한편, 밀 식의 윤리관을 수용한다면, '좋은 행위'를 위한 판단 근거는 오직 경험이다.'라고 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 글은 칸트와 밀의 윤리관의 차이에 관하여 윤리적으로 좋은 행위를 위한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칸트의 윤리관과 밀의 윤리관 중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나타나 있을 뿐, 바람직한 윤리관의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2문단의 '비록 양자의 주장은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칸트와 밀은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을 통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접목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지향점을 갖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4문단에서 칸트와 밀의 철학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칸트와 밀 철학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윤리관의 변천 양상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④ '윤리적 행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1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A가 학교의 이곳저곳을 청소한 것과 B가 청소 당번으로 맡은 일을 모두 끝마친 행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행동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사회 윤리적으로 선한 것으로 간주하는 밀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좋은 행위'로 평가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는 마땅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소 당번으로 맡은 일을 모두 끝마친 것이므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1문단에 따르면 A의 행동을 특정 개인의 감성적 조건에 좌우된 것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할 사람은 밀이 아니라 칸트이다.

③ B의 행동은 보편타당한 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칸트는 B의 행동을 선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⑤ A의 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뿐, 보편타당한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칸트는 A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좋은 행위'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116 전제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의 '이때 제시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은 무엇보다 보편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의무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야 한다.'에서 칸트 식의 윤리관에는 인간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윤리적 명제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간이 의지가 약한 연약한 존재라서 칸트가 보편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의무로서 기능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개인 윤리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발현된다는 것은 밀 식의 윤리관과 관련 있다.

③ 3문단에서 상시로 변하는 코앞의 경험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검증을 거친 경험이 가져오는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인간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밀 식의 윤리관과 관련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칸트는, 윤리적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의 감성적 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윤리적 명제에 단 하나의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 그 명제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보았던 것이다.'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

「랭스 성당의 권위」

| 해제 | 이 글은 중세 서구 문명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랭스 성당에 대한 글이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랭스 성당이 지닌 건축학적,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랭스 성당의 건축학적 특성에 담겨 있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중세 서구 문명 사회에서 대립했던 기독교와 왕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권력 관계가 랭스 성당이라는 건축물에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랭스 성당이 기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모두 투영된 건축물임을 밝히고 있다.

| 주제 | 기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모두 투영되어 있는 랭스 성당

| 구성 |

- 1문단: 기독교와 왕의 권력 관계가 투영된 랭스 성당
- 2문단: 건축학적 측면에서 본 랭스 성당의 권위 1 - 넓은 트랜sept
- 3문단: 건축학적 측면에서 본 랭스 성당의 권위 2 - 높은 천장
- 4문단: 건축학적 측면에서 본 랭스 성당의 권위 3 - 서 측면의 조각상
- 5문단: 기독교와 왕의 권위가 투영된 지상 최고 권력의 상징물, 랭스 성당

117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랭스 성당은 기독교의 권위와 프랑스 왕의 권위가 함께 투영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교황과 왕의 권력 관계가 잘 드러나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관계로 말미암아 랭스 성당이 건립된 것인지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랭스 성당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서, 특히 랭스 성당의 높은 천장과 실내 공간은 고딕 양식의 건축적 목표인 수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높은 천장, 서 측면의 조각상 등은 랭스 성당이 지닌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관식이 치러지는 넓은 트랜셉트와 서 측면 장미창 윗부분에 새겨진 프랑스 왕의 조각상들은 프랑스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랭스 성당의 중앙 출입구와 좌우측 출입구에는 랭스 성당의 종교적 권위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

④ 랭스 성당의 트랜셉트는 대관식이 거행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른 성당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넓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셉트의 넓이로 인해 랭스 성당은 성과 속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118 내용 전개 방식의 특성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랭스 성당의 트랜셉트, 천장, 서 측면의 조각상에서 나타나는 건축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는 랭스 성당의 건축학적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에는 랭스 성당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을 뿐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중심 화제인 랭스 성당의 건축학적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고 있을 뿐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는 랭스 성당이 변모해 온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서양 중세에서 바로크 시대라는 특정 시점에서 랭스 성당이 지닌 권위와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119 세부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랭스 성당 서측 중앙 출입구에 새겨진 조각상은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방문'을 옮겨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랭스 성당이 지닌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권위가 드러나는 조각상만으로 지상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상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교황과 프랑스 왕의 권위가 모두 드러나는 부분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랭스 성당의 높은 천장은 권위이자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관식 성당의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가)의 수직적 구조는 고딕 성당의 건축적 목표를 보여 주는 것으로, 건물과 천장이 높을수록 천상 세계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③ 랭스 성당의 서 측면 장미창 위에는 프랑스 왕과 성모 마리아가 일렬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랭스 성당에 프랑스 왕의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동시에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랭스 성당의 중앙 출입구에는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방문'을 옮겨 놓은 종교적 조각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각상들은 종교적 권위를 높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별까지의 거리 측정」

| 해제 | 지구에서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지구로부터 천체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과 별의 빛을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대략 300광년 이하의 거리에 있는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며, 3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는 별의 밝기를 이용한 방법이 사용된다. 별의 밝기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데는 세페이드 변광성이 표준 광원으로 사용된다. 세페이드 변광성이 표준 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주기와 별의 절대 밝기가 비례하기 때문이다.

| 주제 |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 구성 |

- 1문단: 천문학의 기본 주제
- 2문단: 연주 시차를 이용한 거리 계산법
- 3문단: 별빛의 밝기를 이용한 거리 계산법
- 4문단: 세페이드 변광성의 특징과 그것을 이용한 거리 계산

120 세부 정보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별빛의 밝기를 이용한 측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주 시차 측정법보다 별빛의 밝기를 이용한 측정법을 더 선호한다는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지구 공전으로 인한 별의 관측 각도 차이가 바로 연주 시차라고 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연주 시차로 구할 수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파섹 정도이다. 1파섹은 3.26광년이므로, 100파섹은 326광년이다.

④ 4문단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표준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⑤ 2문단에서 연주 시차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데에 삼각 함수 계산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1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별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시기에 따라 관측되는 위치가 다르다. 이는 지구의 공전으로 연주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A는 100파섹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B, C에 비해 연주 시차가



크다. 이렇게 연주 시차가 있으면, 지구의 공전에 따라 별은 시기마다 관측되는 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A가 시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주 시차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삼각 함수 계산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③ 100파섹 이상 떨어져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연주 시차를 활용해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별이 지구에서 멀리 있을수록 연주 시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④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변하는 주기와 절대 밝기가 비례한다. 따라서 절대 밝기가 동일하면 별빛의 밝기가 변하는 주기가 동일하다.

⑤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C의 겉보기 밝기가 B보다 4배 어두우므로 C는 B보다 두 배 먼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이유의 추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두 세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두 세페이드 변광성 간의 상대적 거리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기준이 되는 세페이드 변광성까지의 실제 거리를 알면, 이를 토대로 세페이드 변광성 간의 상대적 거리 비율을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세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밝기는 밝기가 변하는 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세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밝기는 밝기가 변하는 주기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겉보기 밝기는 절대 밝기가 약해 어두울 수도 있지만, 거리에 따라 어두울 수도 있다.

④ 지구와 별의 거리에 따라 절대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알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유만으로 별까지의 실제 거리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표준 광원으로 삼는 세페이드 변광성까지의 실제 거리를 알아야 지구와 별 사이의 실제 거리값을 구할 수 있다.

⑤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 밝기는 절대 밝기와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 이용해 두 세페이드 변광성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상대 거리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준 광원이 되는 세페이드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23 답화 표지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는 모두 앞서 제시된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앞에서는 우주의 별에서 나오는 빛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 뒤에서는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질문은 ㉢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 마찬가지이다. ㉡ 앞에서는 별의 절대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비교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별의 절대 밝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역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의 내용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말로는 '다만' 이 있다.

② 앞의 내용과 다른 관점의 내용을 제시할 때는 '그런데', '그러나' 등의 접속어를 사용하고 한다. '그렇다면' 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그렇다면' 으로 앞의 내용이 뒤에 이어질 내용의 전제가 됨을 나타낼 수 있는데, ㉠는 뒤에 이어질 내용이 앞의 내용보다 우선함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질 내용이 앞의 내용보다 우선함을 나타낼 때는 '무엇보다' 를 사용한다.

⑤ '그것은' 과 같은 지시어를 사용하면 해당 문장의 화제가 바로 앞 문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반복해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나타낼 때는 '즉' 과 같은 말을 사용한다.

「서스펜스의 개념과 원리」

해제 | 이 글은 이야기 텍스트에서 서스펜스가 발생하는 원리와 두 가지 형태 속에서의 서스펜스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 서스펜스의 개념과 발생 원리

구성 |

- 1문단: 서스펜스의 어원과 복합적 의미
- 2문단: 서스펜스의 물리적 개념과 심리적 개념
- 3문단: 이야기 텍스트에서 서스펜스가 발생하는 원리
- 4문단: 이야기 텍스트에 나타나는 서스펜스의 두 가지 형태(과거 지향형, 미래 지향형)
- 5문단: 이야기 텍스트에 몰입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서스펜스

124 중심 화제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서는 작가의 전략에 의해 서스펜스가 독자나 관객을 몰입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은 있으나, 서스펜스에서 작가와 독자와의 거리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는 이야기 텍스트에서 서스펜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는 이야기 텍스트에서 서스펜스의 형태를 과거 지향형과 미래 지향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는 이야기의 극적 단계마다 제시되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간적으로, 인과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서스펜스의 어원과 복합적 의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125 생략된 정보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을 보면, 서스펜스는 물리적 개념과 심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을 보면, 서스펜스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② 5문단에는 서스펜스가 이야기 텍스트에서 독자들이 몰입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정보들 간에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다.

③ 2문단을 보면, ‘그것은 이야기의 내부에 우리를 이끌어 들인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이야기는 우리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요체가 바로 서스펜스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즉 서스펜스는 독자 혹은 관객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3문단을 보면, 작가는 시간성과 인과 관계라는 씨줄과 날줄을 가지고 극적 뼈대인 플롯을 구성한다는 설명이 있다.

12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 설명하는 영화는 과거 지향형 서스펜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4문단을 참고하면, ⑤는 미래 지향형 서스펜스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케인의 죽음은 영화의 도입부에 제시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영화는 네 명의 내레이터를 통해서 전혀 다른 케인의 삶을 드러내 보여 준다. 따라서 관객이 이를 바탕으로 과거 케인의 행적을 추리해 나갈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다.

③ 여러 명의 내레이터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기법은 과거 지향형 서스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주인공이 남긴 ‘로즈 버드’라는 유언의 의미를 불명확한 상태로 남긴 것은 정보의 공백에 기초를 둔 과거 지향형 서스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

| 해제 | 이 글은 팽이의 회전에 대한 호기심 유발로 시작하여, 회전 운동 속에 숨어 있는 물리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바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서, 회전하는 물체에 외력인 토크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궤도 반지름과 질량, 그리고 운동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물리량인 각운동량은 보존된다는 법칙이다. 이 글은 추의 원운동을 활용하여 각운동량의 개념을 설명한 뒤, 인공위성처럼 원운동이 아닌 다른 경로로 운동하는 경우나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몸처럼 하나의 축 주위를 회전하는 경우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 주제 |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과 실례

| 구성 |

- 1문단: 팽이의 회전과 각운동량 보존
- 2문단: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
- 3문단: 원운동이 아닌 곡선 운동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
- 4문단: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

127 세부 정보의 확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원운동을 하고 있는 추의 끈을 짧게 하면 추의 회전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질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각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으로 끈을 늘이면 운동 속도가 느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운동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곧 직선 관성 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② 2문단에서 각운동량은 질량, 속도, 반지름의 곱이라고 했으므로, 반지름과 속도가 일정하다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각운동량이 커질 것이다.

③ 3문단에서는, 인공위성이 지구에서 가까운 지점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빨라지고 먼 지점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느려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각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⑤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몸을 숙여서 회전하던 스케이팅 선수가 더 빨리 돌려고 할 때 몸을 곧게 세우고 팔을 올리는 이유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이다.

128 전제의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각운동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토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에서 설명한 ‘이 힘’, 즉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토크가 될 수 없다. 이 힘은 인공위성의 회전 운동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토크가 될 수 없다(전제). 따라서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도 토크가 될 수 없다(결론).’라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제란 논리적으로 결론이 참이 되게 만드는 명제를 뜻한다. 그런데 ‘회전하는 모든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므로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은 토크가 될 수 없다.’라는 진술은 전제와 결론의 결합이 아니다. 따라서 ①은 ㉠의 전제가 될 수 없다.

③ 토크는 회전하는 물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여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하지만, 그 정의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 성립하게 만



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과 타원의 관계에 대한 진술로는 참이지만, 이는 ㉠과 특정한 논리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⑤ 어떤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더 큰 질량을 지닌 물체의 인력뿐인 것은 아니며, 이는 논리적으로 ㉠이 성립하게 만들어 주는 전제가 아니다.

1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산대의 회전 운동이 시작된 후 우산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은 추의 회전 반지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속도와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반지름이 커지고 있으므로 추의 각운동량의 합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산이 완전히 펼쳐진 다음 일정한 속도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반지름과 질량, 속도 모두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따라서 이때의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한 그래프는 ③이다.

「미디어의 현실 구성」

| 해제 | 이 글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대규모 매스 미디어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미디어는 뉴스의 틀, 즉 프레임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뉴스의 인지적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수용자는 뉴스 프레임에 의해서만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인간은 외부의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인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의 인지적 효과는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의 개인적 프레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미디어의 뉴스 프레임과 인지적 효과

| 구성 |

- 1문단: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
- 2문단: 뉴스의 인지적 효과와 뉴스 프레임
- 3문단: 뉴스의 인지적 효과에 대한 산토 아이엔저의 연구 결과
- 4문단: 뉴스 프레임의 존재 이유
- 5문단: 뉴스의 인지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인지 구조

130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서 글쓴이는 뉴스의 인지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개인적 프레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제기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을 보면,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뉴스 프레임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② 1문단을 보면, 미디어 사회학자 토드 기틀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③ 3문단을 보면,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산토 아이엔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뉴스의 인지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④ 2문단을 보면, 뉴스 프레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창문의 틀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31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을 보면, 뉴스 프레임과 개인적 프레임이 일치하면 뉴스의 인지적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나, 두 프레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뉴스의 인지적 효과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ㄱ은 파업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ㄴ은 파업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독자의 개인적 프레임과 파업에 부정적인 관점을 보인 ㄴ의 뉴스 프레임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뉴스의 인지적 효과는 낮아지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과 4문단을 보면, 미디어는 자신의 주관적 시각, 즉 뉴스 프레임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보기>를 보면, ㄱ은 노조 활동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으며, ㄴ은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모두 사건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여 보도하고 있지 않다.

② 3문단을 보면, 일화적 프레임은 일화나 사건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으로, 주로 에피소드 형태로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였으며,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의 구조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으로, 주로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 해석 등을 상세히 제공하는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기>에 적용한다면 ㄱ은 주제적 프레임으로 볼 수 있으며, ㄴ은 일화적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작성한 것은 ㄴ이 아니라 ㄱ이다.

④ ㄱ은 노조 활동을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으며, ㄴ은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독자는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며, 그가 ㄴ을 읽게 될 경우 그는 기사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⑤ 5문단을 보면, 미디어의 수용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뉴스 프레임만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뉴스를 수용한다고 하였다.

132 새로운 정보의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를 보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매스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외에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작용 특성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 제시된 매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컴퓨터 매개 커

뮤니케이션에서는 뉴스 수용자도 뉴스 생산자와 같이 자신의 프레임 대로 뉴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지, 정보의 수용자가 생산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오히려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뉴스 생산자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⑤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현실을 인식하는 프레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3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문맥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의 '돌리다' 역시 문맥상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완곡하게 말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이다.

④ '화제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다.'라는 의미이다.

⑤ '어떤 것으로 여기거나 대하다.'라는 의미이다.

「수적 동일성」

| 해제 | 이 글은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사고 실험을 통해 철학에서 제기되는 수적 동일성 문제를 설명하는 글이다. 질적 동일성이란 같은 종류라거나 특징이 비슷하다는 뜻이고, 수적 동일성이란 완전히 똑같이 때문에 수적으로 하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와 새롭게 조립된 피닉스 호 중 테세우스의 배와 수적으로 동일한 것은 어느 배인가'라는 수적 동일성 물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수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임의적인 것이며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수적 동일성 문제와 그 해결 방안

| 구성 |

- 1문단: 테세우스의 배의 수적 동일성에 대한 문제 제기
- 2문단: 질적 동일성과 수적 동일성의 차이
- 3문단: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통한 테세우스의 배의 동일성 문제 해결의 한계
- 4문단: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수적 동일성의 결정 기준

13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동일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 뿐, 동일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수적 동일성과 질적 동일성의 차이점을 통해 수적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이다.'라는 사례를 들어 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④ 수리한 테세우스의 배와 피닉스 호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동일성의 문제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⑤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인용하여 동일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135 내용의 논리적 관계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은 같은 종류의 시계이므로 질적 동일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③에서 '저 과자'는 '내가 어릴 적에 자주 먹던 과자'와 수적으로 하나인 과자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과자라는 의미이므로, 질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가방'과 '내가 작년에 산 가방'은 수적으로 동일한 가방이므로 수적 동일성의 관계이다.

② '충무공'과 '이순신'은 수적으로 한 사람이므로 수적 동일성의 관계이다.

④ '어머니 역할을 한 배우'와 '김소라'는 수적으로 한 사람이므로 수적 동일성의 관계이다.

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지갑은 수적으로 동일한 지갑이므로 수적 동일성의 관계이다.

136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 설명한 영혼 이론은 외형의 유사성이 아니라, 같은 정신을 가진 존재이므로 두 개체가 동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외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테세우스의 배와 피닉스 호가 동일한 존재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두 이론 모두 둘 때의 철수와 스무 살의 철수가 동일한 인물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적 동일성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수적 동일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관심에 따라 임의적으로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배가 동일한 배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둘 때의 철수와 스무 살의 철수가 동일인임을 알아야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신체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서 연속된 존재가 동일한 존재라고 판



단하므로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가 정비 이전의 테세우스의 배와 동일한 배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관련이 있다.

137 내용의 논리적 관계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이유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하여 테세우스의 배와 관련된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로 만든 테세우스의 배와 알루미늄으로 만든 테세우스의 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해결하려는 문제의 답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질문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베토벤 음악의 음악사적 의미」

| 해제 | 베토벤 음악이 음악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음악에 대한 청중의 달라진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1800년을 전후로 청중은 순수 기악 음악에 대해 열광했다. 순수 기악 음악이 의미하는 바는 음악의 절대적 형식과 언어로 해석되지 않는 지고지순의 음악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교향곡인데, 교향곡은 이전의 성악의 시대를 대체하게 되었다. 기악곡 음악은 언어로 해석될 수 없는 숭고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 철학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중에서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은 복합적인 역사적 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당대 이론가들이 그의 교향곡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이든, 모차르트의 계보를 잇는 과정에서 3대 교향곡의 정전이 성립되면서 베토벤의 천재성이 숭고미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 주제 | 베토벤 음악의 음악사적 의미

| 구성 |

- 1문단: 새로운 음악에 대한 청중의 욕구
- 2문단: 성악을 대체하는 기악곡
- 3문단: 기악곡으로서의 교향곡의 순수성과 초월성
- 4~5문단: 철학성을 지닌 이해의 대상으로서 기악곡
- 6문단: 베토벤의 교향곡의 숭고함과 「운명」 교향곡
- 7문단: 장르의 성립과 천재성 담론 속에서 형성된 베토벤의 음악적 위치

138 핵심 내용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1~3문단을 보면, 기존의 음악은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인간의 목소리로 분명한 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어야 했으나, 청중의 요구가 바뀌면서 음악은 관조적이고 삶과 유리된 고차적인 차원의 숭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악이 성악(인간 목소리로 만든 음악)보다 우수하다고 보았다.

② 기악은 인간 내면의 감정 표출과 무관하게 철학적 해석의 대상이었다.

④ 기악이 철학적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인간적 언어로 명료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⑤ 음악, 특히 기악이 인간 삶의 도구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보았다.

139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베토벤의 교향곡이 역사적으로 고전화되는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스타달이 로시니 음악을 보급한 것은 정반대의 사례이며, 로시니는 성악 작곡가의 대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교향곡의 장르 형성을 보여 주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② 슈츠와 코흐 등의 음악 이론가들에 의해 근대 음악 작품의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④ 4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쏟아져 나온 음악 비평을 통해 인쇄술의 보급이 음악적 계보를 형성하게 하는 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⑤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 미술계의 3대 천재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서 음악 분야에서도 그러한 천재, 예컨대 3대 천재들에 대한 당시 청중들의 요구가 고조되어 있었다. 이는 7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음악 분야에서도 음악 천재가 나왔으면 하는 천재성과 위대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향곡의 계보로서, 교향곡의 정전이 성립될 수 있었다.

140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이처럼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마치 이 교향곡이 운명적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감상하고 있는데, 이는 주제를 특정한 것으로 확정하여 이 관점에서만 음악을 해석하려는 방식이다. 즉 음악 외적인 언어적 의미가 음악의 의미를 지배하거나 확정 지어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보다는 그러한 언어적 의미에 얽매어 감상을 한쪽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a의 의미의 상대적 확정성’이란 뒷부분의 ‘그들은 음악이 어떤 한정된 의미 안에 갇혀 있는 채로는 도저히 그들을 무한의 세계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음악을 확정된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가)는 a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반면, (나)는 음악 본연의 미적 구조를 감상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따라서 (나)는 생활에의 적용 수준의 감상이 아닌 음악 그 자체의 미학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c능동적 이해’란 앞부분의 ‘감상자의 수동적 반응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음악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적극적 감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는 c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이 글에서 ‘b정서의 촉발자’는 c 앞에 있는

‘감상자의 수동적 반응’과 일맥상통하고, ‘㉠능동적 이해’는 ㉠ 뒤에 있는 ‘읽의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과 ㉡의 뜻을 이해할 때 앞뒤에 연결된 의미와 대조하여 각각 상반된 개념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승고하다는 답론’은 천재성이나 위대함에 대한 요구와 관련되므로 (가), (나)와는 관련이 없다.

「산지 추정 연구」

| 해제 | 이 글은 유물의 제작소나 원료 산지를 찾기 위한 산지 추정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이나 지표 조사가 유물의 출토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면 산지 추정 연구는 인간과 집단의 상호 작용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자의 이동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분배 또는 교역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이념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산지 추정의 방법으로는 화학 분석, 암석학적 분석, 양식론적 분석 등이 있고, 이 방법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주제 | 산지 추정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구성 |

- 1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개념
- 2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의의
- 3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목표
- 4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방법
- 5문단: 산지 추정 연구 방법의 이용

141 화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산지 추정 연구의 한계는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산지 추정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양식론적 분석만으로는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고 암석학적 분석이나 화학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는 방법적 논의일 뿐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유물의 제작소나 원료 산지를 찾기 위한 연구, 고대의 물자 이동을 추적하는 연구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분배 또는 교역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이념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고고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단순히 유물이 어느 산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소박한 자료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배, 교역 등의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 어느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 유물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산지 추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고 그 방법에는 화학 분석, 암석학적 분석, 양식론적 분석 등이 있음을 소개하고, 5문단에서는 방법들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42 관점에 따른 내용 비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산지 추정 연구는 유적의 연대를 추정한다든지 민족이나 사회 집단 등을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3문단에 제시한 것처럼 생산 전업화의 정도라든가 분배 교역의 조직 또는 계층화의 정도나 정치 조직, 나아가서 문명의 진화나 국가 형성 등의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추정 연구는 전통 고고학이 유물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에 머무는 데 반대하며 전통 고고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이념적 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통 고고학에서 말하는 유물의 유형별 분류는 유물에 내재하는 속성을 밝히는 화학 분석이나 암석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 고고학은 유적의 연대를 추정한다든지, 민족이나 사회 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물자의 이동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③ 전통 고고학은 유물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통해 민족이나 사회 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므로 양식을 사회 집단의 특성으로 연결 짓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양식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데 소홀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유물의 양식 분포로부터 유물의 교역을 추론하는 것만으로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적에 나타나는 속성을 통해 연대를 추정하거나 사회 집단을 추정하는 것은 전통 고고학의 연구 방법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오히려 전통 고고학의 입장이다.

⑤ 유물이나 유구의 속성을 통해 민족이나 사회 집단 등을 추정하여 정복·민족 이동·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통 고고학의 관점이다.

143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양식론적 분석이 아니라, 화학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산지 추정 연구의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 5문단에서 양식론적 분석 방법만으로는 그 결과의 타당성을 고집할 수 없고 암석학적 분석이나 화학 분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분석 방법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과 같이 양식적 특성을 분석하여 확정적 증거를 얻는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산지 추정은 이동된 물품과 그것의 원료 산지나 제작소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 또는 문화적인 일치성을 논증해야 하므로 유물에 내재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제반 속성들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 ‘2’는 그 방법 중 화학 분석 방법에 해당하며 산지 추정은 이를 통해 자료의 속성을 해석하여 물자 이동을 추적하는 연구이다.

③ 산지 추정은 분배 또는 교역 등의 인간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이념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3’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는 기법(1)이나 제작 과정(2), 분포(3) 등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④ 산지 추정 연구는 유물의 속성을 분석해 낼 수 있는 방법들과 분석 자료를 논리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한데 '3-(3)'에서 방연석 분포도를 활용하여 중국 남부 방연석 지역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산지 추정은 '1'과 같이 안동시 옥동 출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는 성분이나 기법, 제작 과정 등을 통해 분포를 확인하여 유물이나 원료의 이동을 추적하여 살피는 연구이다.

「창조적 소비」

| 해제 | 이 글은 소비에 대한 통념을 부정하고 소비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들을 소개하면서, 더글러스와 이셔우드, 부르디외 등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소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주제 | 소비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과 재개념화

| 구성 |

- 1문단: 소비라는 용어의 통념에 대한 반박
- 2문단: 소비에 대한 더글러스와 이셔우드의 견해
- 3문단: 현대 프랑스에서의 소비에 대한 부르디외의 미학적 비판
- 4문단: 계급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의 유형

144 서술 방식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소비에 대한 설명 중 통시적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소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더글러스와 이셔우드의 견해와 부르디외의 견해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소비, 가난 등의 개념들이 지닌 상대적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소비에 대해 일반적인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더글러스와 이셔우드, 부르디외와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45 전제된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을 보면, 소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경제학적 접근과 이성적 선택을 가정하는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보여 준다고 했다. 또한 사람들은 싼 것만을 사고, 비싸게만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논리에 반응하여 행동한다고 했다. 따라서 물건 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격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류학자들은 물건의 소유와 소비들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③ 2문단을 보면, 더글러스와 이셔우드는 물건들이 운반되고 사용되는 양상은 문화적 범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을 보면, 특정한 상품들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더불어 사람들의 위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더글러스와 이셔우드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⑤ 4문단을 보면, 부르디외는 사회 위계가 올라갈수록 미학적 특성을 중요시한다고 보았다.

146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프리카 티브 족에게 혼인 동맹을 통제하는 것은 위계가 높고 부유한 남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남성들은 교환의 영역에서 교환 가치들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아프리카 티브 족에게 교환에서 가장 상위 범주가 혼인 동맹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② [A]와 <보기>를 종합해 보면, 인류학적 관점에서 가난은 돈이나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핵심 영역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④ <보기>를 보면, 아프리카 티브 족에게 교환에서 높은 위계에 있는 것은 혼인 동맹을 통제하는 남성과 총, 금속이나 옷과 같은 위신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남성들)로 보았다.

⑤ <보기>를 보면, 인류학적 관점에서 티브 족에게 가난하다는 것은 높은 영역에 있는 교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47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말뭉'은 '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을 말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유종의 미를 거두다'는 훌륭하고 보람 있게 끝을 맺음을 뜻한다.

② '뱃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뜻한다.

④ '막바지'는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의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⑤ '대미를 장식하다'는 화려하고 인상적으로 끝을 맺음을 뜻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 해제 | 이 글은 중세까지 천문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당시에 관측된 태양과 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와 행성의 역

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심원과 주전원을 설정하여 설명했다. 이심원은 지구에서 약간 떨어진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고, 주전원은 이심원상의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원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들이 주전원을 돌기 때문에 역행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등각속도점을 설정하여 이심원을 도는 태양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주제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 구성 |

- 1문단: 중세까지 유럽을 지배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 2문단: 고대 천문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행성의 움직임
- 3문단: 이심원과 주전원 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
- 4문단: 등각속도점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
- 5문단: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점

148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에서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의 역행 현상과 태양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전 시대의 히파르코스가 주장한 이심원과 주전원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당시에는 가장 과학적인 설명을 한 이론이었다.

②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기독교 교리와 잘 맞은 것일 뿐, 기독교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④ 프톨레마이오스는 중세 이전인 2세기 때의 사람이다.

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천체의 운동을 역학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149 내용 적용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화성이 역행과 순행을 반복하면서 공전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는 화성이 이심원상의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원운동, 즉 주전원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⑤ 2문단의 내용만 보고 판단한다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2문단에 제기된 의문에 대해 서술한 3문단의 내용을 보면, 행성의 순행과 역행은 행성의 주전원 운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지구가 행성 원운동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심원)은 행성의 공전 속도가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다.

150 내용 추론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등각속도점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만큼 움직인다. 만약 등각속도점이 원의 중심이라면 같은 각도를 움직

이면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등각속도점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각도를 움직여도 그 거리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동한 거리는 같아도 움직인 각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등각속도점은 프톨레마이오스가 태양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이론상의 지점이다.

② '속도=거리/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움직인 시간이 같다면 거리를 많이 간 것이 속도가 빠르게 된다.

③ A → F와 B → G는 모두 등각속도점을 기준으로 90도를 움직인 것이 된다. 같은 각도를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시간은 같다.

⑤ 타원 궤도의 법칙을 알았다면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타원 궤도의 법칙은 등각속도점을 설정하지 않고 공전 속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1 단어 바꾸어 쓰기

답 ④

반입(搬入): 운반하여 들여옴.

유입(流入): 물자나 문화, 사상 등이 흘러들어옴.

수입(輸入): 다른 나라의 물자나 문화를 들여옴.

도입(導入): 기술, 방법 등을 받아들임.

매입(買入): 물품을 사들임.

「루카치의 리얼리즘 예술론」

| 해제 | 리얼리즘은 예술과 실제의 관계를 중시하며 예술이 그 실제와 관련된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사조이다. 리얼리즘을 중시하는 미학자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 삶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학자들을 대표하는 루카치의 리얼리즘 예술론을 소개하고 있다. 루카치는 모든 진정한 예술이 리얼리즘적 본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리얼리즘 양식의 표현 방식은 무한히 다양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루카치의 예술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리얼리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대 회화의 형식 실험과 추상적 경향에 대한 그의 비판적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 주제 | 루카치의 리얼리즘 예술론의 주요 내용

| 구성 |

- (가): 고전주의, 낭만주의와 대비되는 리얼리즘의 입장
- (나): 리얼리즘을 모든 예술 일반의 기본 특징으로 본 루카치의 관점
- (다): 루카치가 제시한 리얼리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리
- (라): 루카치의 인간적, 현세적인 리얼리즘 예술론의 핵심
- (마): 현대 회화의 형식 실험과 추상적 경향에 대한 루카치의 비판적 입장

152 문단 전개 방식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라)에서는 예술이 인간적, 현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루카치의 리얼리즘 예술론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루카치는 초월적이거나 내세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현세적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태도를 중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치는 예술을 통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포괄하는 인류의 삶과 운명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라)에서는 루카치의 예술론이 회화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예술과 실재의 관계를 중시하며 예술이 그 안에 실재와 관련된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리얼리즘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와 대립하는 리얼리즘의 성격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리얼리즘을 '모든 예술 일반의 기본 특징' 이자 '온갖 가치 있는 창작의 예술적 기초'로 본 루카치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루카치의 리얼리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현대 회화의 형식 실험과 추상적 경향에 대한 루카치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루카치는 현대 회화가 전반적으로 형식 실험과 추상적 실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리얼리즘의 약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153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의 작품은 이질적인 대상들을 조합해 문학적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대 회화 작품이다. 루카치는 이러한 현대 회화에 대해 작품을 실재와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비판했다. 따라서 ㉞에 대해 미적 체험의 감동을 통해 인간성을 고양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루카치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㉝는 일상에서 소박하고 진중하게 맡은 일에 열중하는 미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루카치의 관점에서 보면 미적 체험의 감동을 통해 인간성을 고양해 주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㉞는 손, 호두, 화살, 새 등의 이질적인 대상을 조합해 문학적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루카치의 관점에서 보면, ㉞와 같이 이질적인 대상들을 조합한 것은 작품을 실재와 멀어지게 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② 루카치는 형식 실험과 추상적 경향을 보이는 현대 회화에 대해 과도한 주관성으로 말미암아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③ ㉝는 일상에서 소박하고 진중하게 맡은 일에 열중하는 미덕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현세적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태도와 관련이 깊다.

④ ㉝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에 열중하는 미덕을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점에서 개별적인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4 견해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루카치는 예술이 인간적, 현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극복하면서 존재 의의를 찾는다고 보았는데, 예술이 이러한 태도를 통해 인간성을 높이 복돋아 준다고 보았다. 루카치에 따르면, 예술을 수용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인류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게 된다. 이처럼 예술을 통해 인간이 타인의 삶을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인류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인간 삶의 온갖 형상과 그 과정을 깊이 있게 보여 준다고 여겨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루카치는 리얼리즘이 모든 예술 일반의 기본 특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인간성을 높이 복돋아 주는 예술이 특히 리얼리즘을 통해 개화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② 루카치는 자율적으로 해석되어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상징'을 리얼리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리 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징'은 해석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상징'은 인간성을 복돋아 주는 예술이 리얼리즘을 통해 개화한다는 루카치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리얼리즘 양식의 표현 방식이 무한히 다양하다는 것은 리얼리즘이 모든 예술 일반의 기본 특징이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

⑤ 많은 작품들의 본이 되는 이상적 요소는 고전주의에서 지향했던 것이다.

「후설의 현상학」

| 해제 | 이 글은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부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실증주의 철학에 반기를 들어, 후설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의식의 지향성'과 '판단 중지'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 주제 | 후설의 현상학에서 주장하는 '의식의 지향성'과 '판단 중지'의 개념

| 구성 |

- (가): 의식 주체와 대상에 대한 실증주의 철학자들의 주장
- (나): 원뿔을 통해 본 의식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 (다): 후설이 주장하는 의식의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인 '의식의 지향성'
- (라): 후설이 제안한 '판단 중지'의 개념
- (마):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평가

155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에서 실증주의는 의식을 고정된 실체로 취급한 반면, 후설은 의식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미완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의식을 바라보는 기존의 주장인 실증주의와 후설의 주장 간의 차이점만 나타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기존의 이론인 실증주의 철학에서 주장하는 '의식의 확실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기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주장으로 현상학의 대가인 후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원뿔의 예를 들어, 관찰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같은 사물도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원뿔의 예를 통해 사물이 의식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라)에서는 (x+y)와 같은 특정 상황을 통해 주체의 의식과 대상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라)에서는 후설의 이론에서 제시한 '판단 중지'와 '괄호 치기'와 같은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외부 대상의 본질 추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본질 추구의 공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를 통해 새로운 이론인 후설의 현상학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마)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전통 철학에서 한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를 통해 후설의 현상학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15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림 속 인물이 정면이나 옆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의식 주체와 의식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사물이 주체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든 똑같이 보이는 외부 대상이란 없다. 그러므로 그림 속 인물의 다양한 모습은 인물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피카소는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 둘을 한데 묶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림을 그릴 당시 현상학의 '판단 중지'와 유사한 인식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② 현상학이 '외부 대상의 본질 추구'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지만, 한편으로 '본질 추구의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의 모습을 다양하게 포착한 피카소의 그림은 인물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그림 속 대상 인물은 '노에마'에 해당하고, 이를 바라보는 피카소의 의식은 '노에시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카소와 그림의 인물은 '노에시스-노에마'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의식이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로 지향성이고, 의식과 대상은 지향성으로 한데 묶여 경험이라는 사건을 이룬다. 이 그림은 그림의 모델인 특정 대상에 대한 피카소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157 세부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판단 중지란 주체와 대상을 한데 묶어서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경험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후설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외부 대상이 주체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체의 의식은 '스스로 완전무결한 실체'가 아닌 '어떤 외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미완성'의 것이다.

② (가)의 '후설은 누구의 눈에든 똑같이 보이는 외부 대상이란 없으며, 가장 명확한 외부 대상인 사물도 의식과 전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외부 세계가 주체의 의식 속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의식을 외부 대상과 같이 고정된 실체로 취급한 것은 실증주의 철학자들의 입장으로, 후설의 '판단 중지'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⑤ 주체의 의식과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체의 경험은 단지 의식에 주어진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주체가 의식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15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명확한 도형'에서 '명확한'은 '형태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바르고 확실하다.'라는 의미의 '정확한'과 바꾸어 쓸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실한'은 '틀림없이 그러한'의 의미로 '분명한'과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별개'는 '관련성이 없이 서로 다름.'이라는 의미로, '다른 방면'을 의미하는 '별도'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취급하다'는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거나 처리하다.'의 의미로, 문맥상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의 의미인 '간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이해하다'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를 의미하는 '파악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협상의 프레임과 정보 제공」

해제 |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둘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협상의 유형을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분배적 협상은 합이 고정되어 있는 가치의 분배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협상으로 '일방적 승리'와 '타협'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통합적 협상은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서로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적 협상과 분배적 협상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통합적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 | 협상의 개념과 유형

| 구성 |

- 1문단: 협상의 개념
- 2문단: 협상의 결과에 따른 협상의 유형
- 3문단: 분배적 협상
- 4문단: 통합적 협상

159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분배적 협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한계를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통합적 협상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협상을 결과에 따라 그 유형을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② 3, 4문단에서 통합적 협상과 분배적 협상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협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3, 4문단에서 그 개념 설명에 등장한 용어에 대해 풀이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통합적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160 독자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세 국가가 모두 가격을 내려 모두 손해를 본 경우는 어느 나라도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도 '일방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B의 상황에서 가격을 내린 두 국가는 이득을 본 반면 가격을 내리지 않은 다른 국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협상의 결과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본 경우이므로 분배적 협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③ C의 경우 가격을 내린 국가는 2,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나머지 국가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린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협상을 한 것이다.

④ 세 국가 모두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D와 같은 상황은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 낸 통합적 협상에 해당한다.

⑤ B와 C의 경우는 협상의 결과 이익을 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으므로 분배적 협상에 해당한다. 분배적 협상에서는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을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161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통합적 협상은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서로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경우로, 이런 협상에서는 가치 창출과 자기 몫 챙기기

가 동시에 추구된다. 즉, 협상 당사자 혹은 관련자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협력하여 사 측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노 측은 추가 상여금을 받음으로써 노 측과 사 측이 모두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입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받은 당사국은 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양쪽 모두 이익을 보는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업 단지를 유치하게 된 △△도는 이익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도는 이익이 없으므로 역시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므로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면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만,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협상으로 볼 수 없다.

「핸드오프 기술」

| 해제 | 이 글은 이동 통신에서 서비스 지역을 '셀'이라는 영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오프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핸드오프 기술은 사용자가 통화를 하면서 인접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주파수 변화에 따라 통화가 단절되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글에서는 핸드오프 기술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하드 핸드오프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드 핸드오프 기술의 단점을 제시하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인 소프트 핸드오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핸드오프 기술의 종류와 원리

| 구성 |

- 1문단: 핸드오프 기술의 필요성과 장점
- 2문단: 하드 핸드오프의 원리
- 3문단: 하드 핸드오프의 단점
- 4문단: 하드 핸드오프의 단점을 보완한 소프트 핸드오프의 원리

162 핵심 논지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1문단에서 핸드오프 기술이 어떤 것인지 소개한 후, 2문단에서 하드 핸드오프의 원리, 3문단에서 하드 핸드오프의 단점을 제시한 후, 4문단에서 하드 핸드오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 핸드오프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즉 핸드오프의 종류와 원리를 하드 핸드오프와 소프트 핸드오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핸드오프의 필요성이 1문단에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글의 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표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하드 핸드오프의 단점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 역시 글의 표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이 글에서는 핸드오프 기술의 적용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⑤ 하드 핸드오프의 단점을 보완한 소프트 핸드오프를 하드 핸드오프 다음에 설명하여 핸드오프 기술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기술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163 시각 자료에의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는 기지국 A에서 보내는 신호로는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반면에 (나)는 기지국 A와 B에서 보낸 신호로 통신이 모두 가능한 지역이다. 2문단에 따르면, 이동 전화 교환국이 기지국 B와 인접해 있는 여러 기지국들로부터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것을 보고 받는 것은 B로의 채널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기지국 B로의 채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지국 B의 신호가 가장 세기 때문인데, 이렇게 B의 신호가 가장 세지는 지점은 (나)의 중간 지점부터이다. 즉 (나)의 중간 지점 이후부터는 B의 신호가 가장 세기 때문에 이동 전화 교환국에 채널 전환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나)에서 (다)로 진입하면 이동 전화 교환국이 기지국 B와 인접해 있는 여러 기지국들로부터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것을 보고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 지역에서는 기지국 A의 신호로만 통신이 가능하며, (다) 지역에서는 기지국 B의 신호로만 통신이 가능하다.

- ② 하드 핸드오프 방식을 이용할 경우 단말기가 이동하면서 신호의 세기가 일정 수준보다 약해지게 되면 채널의 전환을 이동 전화 교환국에 요구한다.
- ③ 하드 핸드오프 방식으로 채널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단말기와 교실했던 기지국의 채널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 ④ 소프트 핸드오프는 복수의 기지국 신호를 동시에 이용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 다른 기지국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나)에서 복수 기지국 신호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64 이유의 추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셀은 이동 통신에서 이동 전화 기지국이 가장 양호하게 이동 전화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러한 셀이 여러 개 모여 서비스 지역을 형성하면, 셀과 셀 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인접한 셀에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렇게 하면 인접한 다른 셀로 이동 전화 단말기가 이동할 때 통화 단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어느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통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셀의 주파수로 바꾸어 준다. 이렇게 하면 셀의 주파수를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이용할 수 있어 제한된 주파수로도 이동 통신이 가능해진다. 셀이라는 작은 지역으로 나누어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65 사전적 의미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이란 의미를 지닌 말은 ‘지정(指定)’이다. ‘지시(指示)’는 ‘일러서 시킴.’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헌수필」

해제 | 양천상의 예를 들어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양천상은 매 장마다 일백 번씩 읽는 것을 법도로 삼았고, 책을 읽을 때에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절 들은 체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외우는 숫자를 채운 뒤에 먹고 자는 것에 응대하였다. 이러한 독서 태도를 통해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매번 책 한 권을 마치면 마음이 툭 터지고 정신이 가뜰해져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글쓴이는 양천상의 독서 방법과 태도를 통해 책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건문을 넓히는 독서의 효용을 체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 바람직한 독서 태도와 독서의 효용

구성

- 1문단: 양천상의 독서 방법과 태도
- 2문단: 양천상이 생각한 독서의 효용

166 독서 태도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양천상이 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그것을 먼저 해결한 후 독서를 이어나가는 태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평생 한가한 날이 없었고, 읽지 않은 책이 없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책을 읽을 때에는 비록 일이 생기거나 물건이 와도 일절 들은 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양천상이 외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책에 집중하여 읽는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③ 굳이 풀이하는 법도 없었고 매 장마다 일백 번씩 읽는 것을 법도로 삼았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양천상이 반복적으로 읽는 독서 태도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매 장마다 일백 번씩 읽는 것을 법도로 삼았고, 먹고 자는 것도 모두 폐한 채 반드시 외우는 숫자를 채운 뒤야 응대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67 독서의 효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 양천상은 책 한 권을 마치면 마음이 툭 터지고 정신이 가뜰해져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새로웠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 글쓴이는 책을 보는 까닭은 자기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밝히는 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던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을 독서의 효용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주희와 왕양명」

| 해제 | 이 글은 주자학의 주희와 양명학의 왕양명이 서로 다른 삶과 학문 세계를 견지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다. 주희는 아는 것이 먼저이고 행하는 것이 나중이라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한 반면에, 왕양명은 알고 있는 것과 행할 능력을 동시에 갖춰 나가야 한다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사고는 경전을 대하는 태도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주희는 경전을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지표로 삼은 것에 반해, 왕양명은 경전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이 결국 두 사람이 사뭇 다른 삶과 학문 세계를 갖게 된 이유가 되었다.

| 주제 | 주희와 왕양명이 서로 다른 삶과 학문 세계를 견지하게 된 이유

| 구성 |

- (가): 주희의 선지후행과 왕양명의 지행합일
- (나): 경전 해석에 대한 주희와 왕양명의 차이
- (다): 주희가 경전을 대하는 태도
- (라): 왕양명이 경전을 대하는 태도
- (마): 주희와 왕양명이 서로 다른 삶과 학문 세계를 견지하게 된 이유

168 문단 간의 관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희는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바꾸었고, 왕양명은 이를 다시 ‘친민(親民)’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경전과 ‘나’의 관계 설정에 대한 주희와 왕양명의 상반된 견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는 주희가 경전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고, (라)는 왕양명이 경전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라)가 (다)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글쓴이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주희가 선지후행을 주장한 반면에, 왕양명은 지행합일을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전체 논의의 시작 부분이 되고 있다.

② (나)는 주희와 왕양명의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해 경전 해석의 사례, 즉 『대학』의 ‘친민(親民)’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는 주희가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경전을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지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⑤ (마)는 주희와 왕양명이 경전과 ‘나’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삶과 학문 세계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69 세부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의하면, 왕양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양지(良知)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양지가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왕양명이 ㉠처럼 말한 이유는, 지(知)는 선천적이기에 누구나 갖고 태어나지만 행(行)은 그렇지 않기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왕양명은 지(知)보다 행(行)의 가치를 더 중시하였다.

② 왕양명은 지와 행의 사후적 합일이 아니라, 지와 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왕양명은 지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전의 해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④ 도덕적으로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주희의 주장과 상통한다.

170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주희가 ‘친민’을 ‘신민’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대학』 공부의 목적을 백성을 도덕적으로 새롭게 하는 데 두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새로운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주희는 그 기준이 경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희는 경전의 학습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왕양명은 백성을 피붙이 아끼듯 사랑한다는 의미로 ‘신민’을 다시 ‘친민’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경전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민’에 경전 학습이 선행되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왕양명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며 이를 단행본으로 독립시켰는데, 이때 그는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바꿨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그는 삶의 주안점을 세상 경영(經世)보다는 도리(道理)의 구명에 두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신민’은 백성을 도덕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고, ‘친민’은 백성을 피붙이 아끼듯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신민’과 ‘친민’ 모두 ‘백성’을 행위의 객체로 보고 있다.

⑤ (나)의 ‘보기에는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경전과 ‘나’의 관계 설정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롱테일 전략」

| 해제 | 이 글은 먼저 ‘80:20’ 법칙으로 알려진 파레토 법칙을 소개하고 이것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으로는 고전적인 마케팅 전략인 단골

고객 우대 마케팅이 있다. 이것은 전체 매출의 80%가 20%의 우수 고객으로부터 이루어지므로, 이들에게 서비스를 집중하는 마케팅이다. 그러나 이 전략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졌다. 인터넷 쇼핑 물과 같이 광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환경이 되면서 20%의 우수 고객이 아닌 전체 고객에게 집중하여 고객과 매출을 늘려 가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롱테일 전략이라고 한다. 또 롱테일 전략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인재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제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전략의 개념과 적용

구성

- 1문단: 파레토 법칙의 개념과 적용
- 2문단: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 - 단골 마케팅
- 3문단: 광고 비용을 줄인 단골 마케팅의 효과와 한계
- 4, 5문단: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롱테일 전략
- 6문단: 롱테일 전략이 적용된 조직 내 인재 관리

171 읽기 전략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전략의 의미를 밝히고 있으나, 그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파레토 법칙의 경우는 마케팅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롱테일 전략의 경우는 조직 내의 인재 관리에 적용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법칙이나 전략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의 한계를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한 독자는 논리적으로 4, 5문단에서 이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전략이 제시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시된 롱테일 전략에 주의해서 읽어야 두 전략을 비교·대조하며 각 전략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파레토 법칙이 마케팅 분야에 적용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전략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제시하고 있는 ‘단골 고객 우대 마케팅’ 사례를 확인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또 4, 5문단 롱테일 전략의 경우는 인터넷 쇼핑물 사례를 확인하며 읽을 때 롱테일 전략의 마케팅에 대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글쓴이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논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가 많다. 이 글도 3문단에서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이 80% 고객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는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결국 전체 고객에게 집중하여 고객과 매출을 늘려 가는 롱테일 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질문을 확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읽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용한 다른 분야의 경우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2, 3문단과, 롱테일 전략이 조직 내의 인재 관리에 적용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6문단에

유의해서 읽는다면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전략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읽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72 세부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c2c로 진행되는 인터넷 쇼핑물의 경우는 물건을 팔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재고도 필요 없는 거래가 형성되어 일반인이 참여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우수 고객이 아닌 전체 고객에게 집중하여 고객과 매출을 극적으로 늘려 가는 롱테일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가진 매장에서는 파레토 법칙을 적용하여 전체 고객이 아닌 우수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과 잘 팔리는 20%의 물건에 집중하여 전시하는 것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총량이 많을수록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클 것이므로 이 둘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이 떨어진다고 봄으로써 그 둘의 관계를 반비례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즉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의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20% 고객에 집중하는 반면, 롱테일 전략의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전체 고객에게 사용함으로써 매출을 늘려 간다. 결국 이 두 전략은 매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② 파레토 법칙을 적용한 마케팅 전략은 20%의 우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보지만, 롱테일 전략은 20%의 우수 고객이 아니라 전체 고객에게 집중하여 매출을 늘려 가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 80% 고객들이 차지하는 매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적절한 추론이라 할 수 없다.

③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롱테일 전략이 조직 내의 인재 관리에 적용될 때 전체 조직원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내의 경쟁은 일반 인재와 핵심 인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이것이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c2c로 거래되는 인터넷 쇼핑물의 경우는 물건을 팔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우수 고객이 아닌 전체 고객에게 집중하여 고객과 매출을 극적으로 늘려 갈 수 있게 되므로 우량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73 핵심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A]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품과 판매량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은 판매량이 많은 20%의 상품에 집중하는 마케팅이고,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진 부분(롱테일), 즉 80%의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마케팅이 롱테일 전략이다. 롱테일 전



략이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두면 80% 상품에 해당하는 ⑥의 매출이 늘어나서 ③의 롱테일 부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곡선이 그려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파레토 법칙은 80 : 20 법칙으로, 이것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은 20%의 우수 고객에게 마케팅을 집중하거나 판매량이 많은 20%에 해당하는 상품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④에 해당하는 20%의 상품에 마케팅을 집중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의 경우는 우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는 ③ 롱테일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부분에 해당하는 상품에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③ 롱테일 전략은 20%의 우수 고객이 아니라 80%의 고객을 포함한 전체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집중하여 고객과 매출을 늘려 가는 마케팅이다. 그렇다면 80%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c2c로 거래되는 인터넷 쇼핑 물처럼 물건을 팔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임대료도 재고도 필요 없는 거래가 형성되면서 많이 팔리는 20% 상품에 집중하던 기존의 마케팅과 달리 많이 팔리지 않는 80%의 상품도 접근이 용이해져 전체 상품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하는 마케팅이 등장한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예술 세계」

| 해제 | 초현실주의가 표방한 예술 세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초현실주의는 이성과 논리의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 속의 환상과 경이의 표현에 필요한 우연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였고, 자동기술법이라는 새로운 창작 이론을 근거로 하여 프로타주, 데페이즈망, 콜라주 등의 표현 기법을 창안해 내었다.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의 작품 경향은 개방적인 예술관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주제 | 초현실주의가 지향한 예술 세계와 창작 기법

| 구성 |

- 1문단: 초현실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
- 2문단: 초현실주의가 무의식 세계를 중시하게 된 학문적 배경
- 3문단: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자동기술법
- 4문단: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창안한 표현 기법
- 5문단: 초현실주의가 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

174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에서 초현실주의는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관습에서의 해방을 추구하고, 4문단에서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이 이미지를 창조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에른스트가 무의식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불가사의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른스트의 작품이 이미지보다 메시지의 전달에 초점을 둔 작품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프로타주 기법이 나뭇결이나 거친 물체면 위에 종이를 대고 문질렀을 때 우연히 나타나는 이미지를 회화에 적용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② 초현실주의가 합리적, 이성적 사유에 얽매어 있던 근대 서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무의식 세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③ 초현실주의가 지금까지의 예술이 표방해 왔던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에 방해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⑤ 초현실주의가 예술의 절대적 자유를 보증하는 자동기술법을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175 세부 정보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1문단에서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인 브르통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이성과 논리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제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초현실주의가 합리적, 이성적 사유에 얽매어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무의식의 세계라는 새로운 예술 세계의 지평을 열어 가고자 했던 혁신적인 운동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현실주의가 개척하고 제시한 비전은 이성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초현실주의가 개척하고 제시한 비전은 기존 회화가 표방한 가치를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초현실주의는 삶과 예술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④ 초현실주의는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래의 합리적인 세계관을 부정하였다.

⑤ 초현실주의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비판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안정복의 독서 방법」

| 해제 | 이 글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안정복의 독서 방법을 그의 편지글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안정복은 글쓴이의 원래 뜻을 자신의 입

장에서 해석하는 권철신의 독서 태도를 비판하며 그에게 쓴 편지글을 통해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독서의 바른 자세라 말하고 있다. 즉 독서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주변의 상황을 폭넓고 깊게 공부하는 것에 눈감게 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큰 공부를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는 글에 담긴 쉽고 분명한 큰 학자들의 말씀을 현재 있는 뜻 그대로 찾으면 된다고 보았다.

| 주제 | 안정복의 편지글을 통해 본 독서의 바른 자세

| 구성 |

- 1문단: 안정복의 독서 방법
- 2문단: 잘못된 독서에 대한 비판
- 3문단: 책을 읽는 과정과 방법
- 4문단: 독서를 하는 바른 자세

176 내용 비판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안정복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선입견에 묻혀 글쓴이의 원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독서의 바른 자세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철신은 자신의 생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 독서 방법이라 말하는 안정복의 의견에 대해 반박할 것이다. 즉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견주어 글의 내용을 해석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편지가 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1문단에서 볼 때 권철신은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견주어 해석하는 것이 독서의 바른 태도라 여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보는 것은 권철신의 입장이 아니라 안정복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에 견주어 자신의 견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권철신의 입장이라 볼 수도 없다.

③ 1문단에 나타난 ‘글쓴이의 원래 뜻’이나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는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3문단에서 안정복은 주자의 말을 인용해 책을 읽는 단계를 제시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읽다가 생각이 깊어지고 원리를 탐구하고 여러 차례 이 과정을 거친 뒤에는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정복이 말하고 있는 ‘글쓴이의 원래 뜻’이나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는 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말하는 것이 지 숨은 뜻을 배제하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뜻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정복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반박이라 할 수 없다.

④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쓴이가 글을 쓴 이유를 생각하며 의도를 파악하는 독서 방법을 안정복의 독서 방법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안정복은 편지글에서 책을 읽을 때는 ‘왜 그럴까’라

는 생각이 필요하고 이 생각이 있어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글에 담긴 큰 학자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여 깨닫는 것이므로 권철신이 반박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⑤ 안정복과 권철신의 독서 방법의 차이는 글의 내용을 따지며 꼼꼼하게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글의 배경을 생각하며 읽어 글의 내용에서 깨달음을 얻느냐 자신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해석하느냐의 차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 문단 등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며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의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권철신의 반박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177 독서 태도의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책에 담긴 글쓴이의 원래 뜻을 파악하는 독서가 진정한 공부라 보고 그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 <보기>는 독서에서 경계해야 할 것과 의문이 나면 반드시 물어 앞에 이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독서의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A]를 통해 볼 때 배경을 생각하며 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으나, <보기>에서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계나 순서를 뛰어넘어 빨리 이루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의문이 나면 반드시 묻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배경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단계를 뛰어넘어 앞에 빨리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 보는 것은 적절한 추론이라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는 앞에 이르는 성실한 독서의 자세를 전하며 단계나 순서를 뛰어넘어 빨리 이루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있고, [A]는 책에 담긴 글쓴이의 원래 뜻을 탐구하기 위해 처음에는 단순하게 읽다가 점차 생각이 깊어지고 갈수록 원리를 탐구하고 싶어지며 이 과정을 거친 뒤에는 깨닫게 되는 독서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의 과정은 여러 단계나 순서를 거쳐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글의 본 뜻을 파악하려는 성실한 자세라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② <보기>는 옛사람들을 들어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하고 안 뒤에는 더 성실해야 하는 독서의 과정을 제시하며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때 <보기>의 앞에 이르는 성실한 자세는 [A]의 독서의 과정과 연결지어 볼 수 있으므로 [A]에 나타난 과정을 거쳐 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A]는 책에 담긴 글쓴이의 원래 뜻을 탐구하는 독서의 과정에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으며, <보기>는 의문이 나면 반드시 묻는 성실함이 있어야 앞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를 할 때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이 나면 반드시 묻는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④ [A]는 책에 담긴 글쓴이의 원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



한 공부라 보고 있으며, <보기>는 작은 것이라도 그대로 실천해서 아는 것과 행동에 차이가 거의 없었던 옛사람들을 들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때 <보기>의 앞에 이르는 성실한 자세는 [A]의 독서의 과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A]에 나타난 과정을 거쳐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진정한 공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는 것과 행동에 차이가 없어야 독서를 통해 진정한 공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 해제 |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인류 전체가 500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화석 연료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수 등을 넣어 메탄을 얻는 열수 주입법과 압력을 낮춰 메탄을 얻는 감압법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모두 해저 지층의 변화를 야기해 심각한 지구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환법이 현재 연구되고 있다. 치환법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가스 하이드레이트 속에 밀어 넣어 메탄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구 온난화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주의하면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발법과 함께 지구 환경을 지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 주제 |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 구성 |

- 1문단: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념
- 2문단: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방법인 열수 주입법과 감압법
- 3문단: 열수 주입법과 감압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치환법
- 4문단: 지구 환경과 관련된 치환법

178 제목의 적절성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1문단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을 밝히고, 2문단에서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수 주입법과 감압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치환법을 말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는 치환법을 열수 주입법 또는 감압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미래 에너지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1문단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특성을 알 수 있지만, 매장 지역의 현황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③ 3, 4문단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탐사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④ 1문단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고체 연료임을 밝히고 있으나, 첫 시험 생산을 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

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179 정보 간의 관련성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을 볼 때,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벌집 구조처럼 입체형이다. 이 안에 메탄 등과 같은 가스들이 화학 결합 없이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밀어 넣으면 메탄 등이 다른 성분과 화학 결합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밀려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㉔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을 볼 때, ㉑은 가열된 기체가 아니라 열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② 2문단을 볼 때, ㉒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이 아닌, 그 층과 인접한 공극의 압력을 낮춰 메탄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④ 2문단을 볼 때, ㉓이 아니라 ㉔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에 직접 시추하는 방법이다.

⑤ 2문단을 볼 때, ㉑과 ㉒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녹여 메탄을 얻고, 3문단을 볼 때, ㉔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내의 메탄을 이산화탄소와 치환하여 메탄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㉑과 ㉒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바꿔 메탄을 얻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80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을 볼 때,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의 주변에 있는 공극 등에 시추하여 메탄을 얻는 방법은 감압법이다. 그러나 <보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에 직접 시추하고 열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열수 주입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에 인접한 공극에 시추하는 것은 감압법이지 열수를 주입하는 열수 주입법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을 볼 때, 치환법과 열수 주입법을 함께 사용하면 메탄의 생산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볼 때, 열수 주입법과 감압법은 해저 지층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3, 4문단의 치환법과 연결하여 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에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해저 지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보기>의 이산화탄소 덮개도 그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4문단을 볼 때,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을 볼 때,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함께 사용하면 메탄의 생산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문학

181~270

본문 92~136쪽

181 ③	182 ②	183 ③	184 ⑤	185 ③
186 ③	187 ⑤	188 ①	189 ①	190 ④
191 ①	192 ①	193 ④	194 ⑤	195 ③
196 ⑤	197 ①	198 ③	199 ②	200 ②
201 ④	202 ②	203 ④	204 ④	205 ②
206 ①	207 ⑤	208 ⑤	209 ⑤	210 ③
211 ⑤	212 ④	213 ③	214 ④	215 ④
216 ⑤	217 ②	218 ①	219 ①	220 ③
221 ⑤	222 ①	223 ②	224 ②	225 ⑤
226 ②	227 ③	228 ⑤	229 ⑤	230 ④
231 ③	232 ⑤	233 ③	234 ④	235 ④
236 ⑤	237 ④	238 ④	239 ④	240 ①
241 ⑤	242 ④	243 ③	244 ⑤	245 ④
246 ②	247 ③	248 ②	249 ④	250 ④
251 ③	252 ③	253 ③	254 ⑤	255 ③
256 ③	257 ⑤	258 ②	259 ②	260 ⑤
261 ④	262 ①	263 ②	264 ④	265 ④
266 ①	267 ⑤	268 ④	269 ④	270 ①

김종길, 「자전거」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가) 김종길, 「자전거」

| 해제 | 이 작품은 '자전거'를 소재로, 노년기의 삶을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에 유추하여 노년기를 바라보는 화자의 담담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그린 작품이다. 화자는 결국엔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햇살을 바라보고 방울 소리를 들으며 상쾌하게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이는 인생의 노년과 죽음까지도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 주제 | 인생의 노년기와 죽음을 응시하는 여유로운 태도

| 구성 |

- 1연: 가속이 붙는 내리막길
- 2연: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내리막길
- 3연: 편안한 내리막길
- 4연: 쓰러질 줄 알면서도 상쾌하게 달리는 내리막길
- 5연: 가을 석양의 내리막길

(나)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 해제 | 이 작품은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는 '숨가쁜 나무'의 모습에 젊은 시절 사랑과 그리움으로 어지러웠던 모습을, 2연에서는 잎사귀들을 떨어낸 '겨울나무'의 모습에 벗을 것을 다 벗어 버린 마흔 가까운 나이의 삶을 투영시키고 있다. 그리고 3연에서 화자는 마치 '겨울나무'처럼 탕 안에서 벗을 것을 다 벗어 버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 주제 | 벗을 것을 다 벗어 버리고 자아의 참된 모습을 확인한 데서 오는 기쁨

| 구성 |

- 1연: 숨가쁜 나무처럼 어지러웠던 스물 안팎의 삶
- 2연: 겨울나무처럼 다 벗어 버린 마흔 가까운 때의 모습
- 3연: 벗을 것을 다 벗고 자아의 참된 모습을 확인하는 기쁨

18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시간적 배경은 해가 질 석양 무렵으로, 이는 인생의 황혼기를 비유한 것이다.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담담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삶을 관조하고 있다. (나)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로, 화자는 겨울에 잎사귀들을 다 떨어내고 벗어 버린 '겨울나무'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시간적 배경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말을 뒤에서 받는 연쇄법은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에는 '결국엔', (나)에는 '때는'과 같은 시어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미상관 기법은 (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자전거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유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시상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18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러나 균형은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은 단정적 표현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노년기의 삶 역시 무언가가 갑자기 뛰어뜰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균형 잡힌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의미상 모순이 되는 어구를 배치하여 뜻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전거의 모습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유추하고 있다고 <보기>에 나와 있다.

③ '해가 저물고'를 통해 죽음을 유추하고 있다.

④ '상쾌하게'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지그시 브레이크도 걸어보면서.'는 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유롭게 언덕길을 내



려가는 모습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여유로운 응시와 수용적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183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는 살면서 가졌던 사랑과 그리움 등의 온갖 고뇌와 갈등을 다 내려놓은 삶의 자세를 보여 준다. 욕망과 그로 인한 갈등을 내려놓음으로써 화자가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시원하게’라는 시어를 통해 드러난다. 세상의 이목이나 주체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스물’은 사랑과 그리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마흔’은 모든 것을 벗어 버린 달관적 삶의 경지가 지닌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② 겨울나무와 대립된 것으로 흔히 ‘여름 나무’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를 특별히 ‘숨가쁜 나무’라고 표현함으로써 젊은 시절의 걱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탕’은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버린 공간으로, 화자의 심적 상태를 드러내기엔 적절한 공간이다.

⑤ ‘손을 흔들며 / 기쁘게’는 화자가 겨울나무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인법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윤홍길, 「장마」

| 해제 | 이 작품은 6·25 전쟁 당시 혈육을 잃은 두 할머니의 대립과 화해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날, 삼촌은 돌아오지 않고 상처 입은 구렁이가 나타난다. 구렁이의 출현에 할머니가 기절하신 상태라,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맞아 마치 삼촌을 대하듯 이야기하며 달랜다.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렁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이데올로기로 인해 형성된 민족의 갈등이 전통적 샤머니즘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 전쟁의 혼란 속에서 빚어진 한 가족 내부의 갈등과 샤머니즘을 통한 해소 과정

| 전체 줄거리 |

장마가 계속되던 6·25 전쟁 중의 어느 날, 국군인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할머니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던 외할머니는 슬픔에 겨워하며 빨갱이들은 다 죽으라고 허공에 대고 저주한다. 이런 외할머니의 행동은 빨치산 삼촌을 아들로 둔 할머니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때부터 두 할머니는 같은 집에서 말을 끊고 살게 된다. ‘나’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지서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할머니는 ‘나’에게 분노한다. 할머니는 점쟁이에게서 들은 ‘아무 날 아무 시’에 삼촌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야단법석을 떨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 삼촌은 돌아오지 않고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다. 구렁이를 본 할머니는 기절하고, 외할머니가 삼촌을 대하듯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게 된다. 구렁이가 돌아간 후 깨어난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드러

내고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화해하게 된다. 할머니는 ‘나’도 용서해 주시고 결국 눈을 감는다.

18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집안에 나타난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삼촌의 현신이라 여기며 잘 대접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구렁이의 출현에 따른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185 작품의 시점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는 자신의 내면 외에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알 수는 없지만,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는 모든 인물의 내면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고, 내용으로 볼 때 ‘나’는 이 집안의 손자로 그리 성숙한 나이가 아니라는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아이의 시점을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면 서술자는 방 안 식구들의 내면까지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다.

18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는 죽은 영혼이 이승을 떠나 어느 정도 머물다가 저승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소설 속에 드러난 구렁이가 삼촌의 영혼일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전통적 샤머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아무리 간곡하게 달래도 구렁이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승에 대한 미련을 털어 내고자 하려는 삼촌의 의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외할머니는 마치 삼촌을 부르듯 구렁이를 부르며 말을 걸고 있다.

② 구렁이에 갇혀 있는 삼촌의 영혼에게 미련을 버리고 편안히 저승으로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④ 삼촌이 오면 주려고 만든 음식을 구렁이 앞에 내놓아 대접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대접하기 위해 씻김굿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⑤ 외할머니의 행위는 삼촌의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87 대화에 담긴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는 모두 외할머니의 사투리가 사용된 부분이다. 사투리는 인물과 관련된 특징임과 동시에 상황의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그러나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하여 인물의 내면이 더 세밀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큰 소리로 웃은 사람에게 격양된 말투로 말하고 있지만, ㉡는 구렁이를 삼촌이라고 생각하며 달래듯 이야기하고 있다.

- ② ㉓는 비웃음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㉔는 삼촌의 영혼에게 갈 길을 가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㉓는 자신이 하는 일을 비웃는 듯한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외할머니가 한 말이고, ㉔는 삼촌의 영혼을 지냈으리라고 믿는 구렁이에게 외할머니가 한 말이다.
- ④ 사투리는 지방색을 드러내므로 토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고, 이야기 현장의 상황을 보다 생동감 있게 드러내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김창협, 「산민」

| 해제 | 이 작품은 관리들의 폭정을 피해 산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오언배울의 한시이다. 이 시의 주제 의식은 공간적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데, 사방에 이웃도 없고 척박하고 열악한 삶의 조건을 지닌 산속 공간과 더불어 좋은 삶의 조건을 지닌 평지의 대비는 백성들로 하여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벼슬아치로 인해 산속의 삶을 선택하게 하는 모순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작가는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비탄에 빠뜨리는 가혹한 지배 계층의 횡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 | 백성들의 힘겨운 삶과 관리들의 횡포

| 구성 |

- 1~4행: 산속의 인가를 방문함.
- 5~8행: 화전민의 고된 삶
- 9~12행: 산속 생활의 외로움과 두려움
- 13~16행: 폭정으로 인한 백성의 고달픈 삶

188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시는 화자가 산속 화전민의 집에 와서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민중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벼슬아치’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 시는 화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사물의 특성에서 착안한 유추의 사고가 나타나 있지 않고, 삶의 지혜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시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회상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 화자의 시선은 산속 화전민의 집과 그 주변을 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화전민 부부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시선은 원경과 근경에 관계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189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낙네가 밥과 반찬으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

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시의 첫 행의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화자와 아낙네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손님의 호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낙네의 행동을 ‘보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산밭’은 남편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공간으로, 이는 산기슭에 의지해 사는 화전민 부부의 삶을 지탱해 주는 수단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개와 닭’조차 산기슭에 의지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낙네와 남편의 외딴 살아가 외롭고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호랑이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 나물을 마음대로 뜯지 못한다는 것은 화전민 부부의 삶에 호랑이가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살기 좋은 평지이지만 ‘벼슬아치’가 두렵다는 것은 위정자의 폭정이 심해 평지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화전민 부부가 산골짜기에 들어와 사는 이유임을 알 수 있다.

190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시에서 산속의 화전민 부부가 고달프고 외로운 산 생활을 하는 이유는 평지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들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논설문은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삶만 챙기는 지도층들을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전민의 삶이 이웃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환경 파괴가 사회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③ 화전민이 산속에 들어와 사는 것은 벼슬아치의 폭정 때문이지 주택 부족 때문이 아니다.

⑤ 화전민이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은 실업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작자 미상, 「조용전」

| 해제 | 영웅 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소설의 전반부는 주인공의 고행담과 결연담이며, 후반부는 영웅적 무용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대 남성들의 이상적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 작품은 주몽 신화와 같은 ‘영웅의 일생’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작품 전체의 기본 구조는 주인공 조용과 역적 이두병 사이의 대결이며, 이러한 대결 구도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역적의 모함에 따른 주인공 부친의 죽음과 그에 대한 복수 의식이다. 주인공의 이러한 복수 의식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대의명분과 합치됨으로써 강력한 서사적 추동력을 얻고 있다. 이 작품이 지닌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의 대결 구도는 작품의 전개에 따라 ① 간신의 득세와 주인공의 시련, ② 시련의 극복과 대결력 배양, ③ 외적 격퇴와 대



결력 강화, ④ 정적과의 재대결과 최종 승리의 네 단계로 구체화되고 있다. 주인공인 조웅은 자신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초월자의 도움을 받아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대결력을 획득하여 이두병을 무찌르고 처벌함으로써 정적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 주제 | 조웅의 영웅적 행적과 충효 사상 실현

| 전체 줄거리 |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좌승상인 조정인은 간신인 우승상 이두병의 참소를 입고 음독자살한다. 조웅은 거리에 나가서 이 승상에 대한 욕을 거리에 써 붙이고 어머니와 피신한다. 조정에서는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등극하자 간신 이두병이 어린 황제를 내쫓고 스스로 제위에 오른다. 조웅 모자는 방랑하다가 부친의 초상을 그려 준 월경 대사를 만나 산사로 들어가 의탁하게 된다. 15세가 된 조웅은 낙산 도사로부터 3척 신검을 얻고, 철관 도사를 만나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게 된다. 조웅이 모친을 만나러 가는 도중 위국공 장 진사의 집에 우연히 들러 장 진사의 딸 장 소지와 남몰래 백년가약을 맺는다. 조웅은 산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위국으로 가서 위왕을 도와 서번군을 격파한다. 조웅은 위왕과 이별하고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남해 절도로 가서 마침 이두병이 사자를 보내어 태자를 죽이려는 것을 물리치고 태자를 구출한다. 서번왕이 조웅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웅이 태자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조웅에게 곤욕을 당한다. 조웅은 다시 서번왕의 항복을 받고 중국으로 와서 영웅, 명장을 규합하여 이두병이 임명한 지방 관리들을 차례차례로 처치하면서 위국으로 들어간다. 위왕과 연합하여 수십 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두병을 베고, 태자를 등극시킨다. 이에 왕실이 회복되니 조웅의 명성은 천하에 널리 떨치게 된다.

191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조웅이 최식과 주천을 이간질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강백은 본진으로 돌아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날이 새기만을 고대하더라.’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③ ‘최식이 주천더러 말하기를, / “이제 조웅의 용맹을 당할 장수가 없으니 항복하여 살기를 바람만 같지 못하다.”/ 하니 주천이 크게 성내어 칼을 빼어 들고 최식을 겨누며 꾸짖어 말하기를, / “원수는 나라의 중신이라. 저렇듯 추하고 더러운 뜻을 가지고 어찌 국록을 먹는 신하가 되었으며, 또한 군졸이 되었습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원수는 최식의 간사함을 절통히 여겨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 “네게 받은 항서를 무엇하리오? 너는 만고의 간신이며, 이두병은 중한 역적이라. 내 어찌 씨라도 두리오?”/ 말을 끝내자 칼을 들어 최식의 머리를 베어 적진 중에 던지니’에서 조웅은 역적을 용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주천이 더욱 성내어 크게 꾸짖기를, / “어찌 원수라 칭하리오?”/ 하고 창을 들어 문에 내달아 외치기를’에서 상관인 최식이 항복하려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설’이나 ‘각설’은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 사건이나 상황의 전환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193 갈등의 양상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날 밤에 적진의 장졸이 상림에 와 북병하였다가 자정 무렵을 기다려 방포 일성에 좌우 수풀에 일시에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하여 상림을 다 불태우는지라. 황진 장졸이 모두 즐겨 말하기를, / “이제는 적진 장졸이 혼백도 남지 못하리라.”/ 하며, 즐거워하더라.’에서 황진의 장졸들은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날 밤에 황진 중에서 상림에 장졸을 보내고 삼경에 이르러 바라보니 방포 일성에 화광이 충천하거늘 장졸이 다 즐겨 말하기를, / “이제는 조웅이 죽었도다.”/ 하며 본진 장졸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더니 살아온 몇몇 군사가 울며 고하기를, / “무섭고 두렵터이다. 분명 죽은 조웅이 다시 살아와 장졸을 짓치고 인하여 간데 없으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오리까?”’에서 황진의 장졸들은 조웅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적세를 보고 있는데, 문득 적진으로부터 방포 일성에 한 장수가 문기 아래 나서며 크게 외치기를, / “반적 조웅은 빨리 나와 내 창을 받아라.”/ 하는 소리 우레와 같거늘 원수 대로하여 선봉장 강백에게 명하여 치라 하니, 백이 창을 휘두르며 말을 내달아 진전에 나서며 크게 꾸짖기를, / “반적 두병의 장졸은 들으라. 네가 천시를 모르고 감히 우리와 대적하니 우선 너를 베어 분함을 씻으리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호통 일성에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들어 서로 싸우니 기치검극은 해와 달을 가리웠고 모래와 자갈이 일어나 안개 되어 양진을 분별치 못하는지라. 수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날이 저물거늘 원수가 징을 쳐 군사를 물리치니, 강백은 본진으로 돌아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날이 새기만을 고대하더라.’에서 승패를 가리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날 초경에 원수는 선봉장 강백을 불러 말하기를, / “적진이 우리가 수풀에 친 진을 보고 응당 불로 칠 것이니 어찌 저의 꾀에 빠지리오? 이제 진을 급히 옮기되 떠들썩한 소리를 일제히 금하라.”/ 하니 강백이 명을 받들고 진을 옮기더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황진의 야간 기습을 예측한 조 원수가 기습 공격을 피하여 위기를 넘긴 후에 무력으로 황진을 공격하여 승리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김기림, 「단념」

| 해제 | 이 수필은 평범한 속인들처럼 적당히 단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단념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끝없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주제 | 진정한 삶의 자세

| 구성 |

- 1~3문단: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단념의 연속
- 4~8문단: 다양한 삶의 태도
- 9~10문단: 단념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의지

194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모든 것을 단념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대비는 '일체'와 '무', 혹은 '두 단애의 절정'과 '곶짜기 밑바닥의 탄탄대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수필에서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설의적 표현은 '삼십이 넘어 가지고도 ~ 어쩌면 그렇게도 찬란한 명구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속인들의 삶의 태도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② 모든 것을 욕망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 준 인물들에 대한 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이 수필에서 비유적 표현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두 단애의 절정'이라는 비유를 통해 예술과 학문에서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일체냐 그렇지 않으면 무냐?'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19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 하나는 영구한 적멸로 가고 하나는 그 부단한 건설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영구한 적멸'은 ㉠을, '부단한 건설'은 ㉡을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구하는 삶은 ㉡이 아니라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의 후반부에 '이십대에는 성히 욕망하고 추구하다가도 삼십 대만 잡아서면 사람들은 더욱 성하게 단념해야 하나 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하는 것은 '무'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속인들의 처세와는 달리 끝없이 욕망하는 생활은 ㉡이 아니라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과 ㉡ 모두 '영웅의 길'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과 ㉡은 모두 평온을 바라는 시민의 삶의 태도는 아니다. 평온을 바라는 시민의 삶은 '얼마간 욕망하다가 얼마간 단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나) 신경림, 「농무」

(가)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해제 | 출근 버스에서 조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그녀의 생활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인은 구자명 씨의 고달픈 일과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집안의 안식과 평화가 여성들의 철저한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주제 |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 비판

| 구성 |

- 1~7행: 출근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 씨
- 8~16행: 가족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구자명 씨
- 17~24행: 여성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족의 안식

(나) 신경림, 「농무」

| 해제 | 이 시는 1970년대 농민시의 대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농무'는 표면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흥겨움을 드러내는 놀이이지만, 이 시에서는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직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면서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 주제 |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한과 고뇌

| 구성 |

- 1~6행: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심.
- 7~10행: 장거리에서의 농악
- 11~16행: 피폐한 농촌의 삶 토로
- 17~20행: 농무를 통해 분노와 한을 표출함.

196 작품의 공통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은 (가)에만 해당하는 표현상 특징, ④는 (가)와 (나)에 공통되는 표현상 특징, ⑤는 (나)에만 해당하는 표현상 특징을 의미한다. '르'은 (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출근 버스에서 조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한 화자가 이를 통해 그녀의 힘겹고 고달픈 가정생활을 상상하고 있다. 'ㄷ'은 (나)의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자조적인 현실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ㄹ'은 (가)의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나)의 '어떤 녀석은 / 꺾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에서 찾을 수 있다. 'ㄱ'과 'ㄴ'은 (가)와 (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197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출근 버스에 타자마자 즐기 시작하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통해 가사와 직장 일이라는 이중의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 여성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출근 버스 안에서 구자명 씨는 너무나 피곤해 '죽음의 집'을 자는 것이지 삶의 의무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이 특정한 하루가 아닌 사계절 내내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 ③ 차창 밖의 생동감 넘치는 경치와 차 안에서 즐기고 있는 구자명 씨를 대비하여 구자명 씨의 고된 삶을 그리고 있다.
- ④ ‘십 분’은 구자명 씨가 버스 안에서 즐기고 있는 시간인데, 아기와 시어머니, 남편 등 가족을 위해 잠을 빼앗긴 결과로 볼 수 있다.
- ⑤ ‘지붕마다’는 모든 가정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며, ‘여자’는 보통 명사로 한국 사회의 여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 매체 바꾸어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을 통해 팽과리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④에서 농무를 구경하는 것은 ‘조무래기들’이나 ‘치녀애들’ 뿐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 농촌 현실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적게 모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설무대에서의 공연이 끝난 후 텅 빈 운동장을 화면에 담은 것은 농민들이 공연 후에 느끼는 공허감을 부각하는 기법으로 적절하다.

② ‘분이 얼룩진 얼굴’에서 분장을 지우지 않았음을,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서 직설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이까짓 /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에서 비참한 농촌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내레이션으로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농민들은 춤을 추고 있다. 물론 이때 농민들의 내면적 심리는 깊은 좌절감과 울분일 것이지만, 그것을 농무의 신명(흥겨운 신이나 댄스) 나는 동작으로 분출하고 있으므로 춤에 몰입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날나리를 불꺼냐’에서 춤을 출 때 반주가 어우러져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호철, 「탈향」

| 해제 | 이 작품은 전후 실향민들이 겪었던 불안한 삶과 남한 적응 과정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향 친구 네 사람은 타향(부산)에서 각기 다른 대응 양상을 보여 준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화창간은 인물들의 불안정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현실의 비참함을 암시한다. 서술자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고향으로부터의 벗어남(탈향)을 통해 현실의 삶을 직시하고 고통스러운 홀로서기를 결단하고 있다.

| 주제 | 전후 실향민들의 고통과 각성

| 전체 줄거리 |

먼 친척 관계로 북한의 한동네에서 살아온 두찬, 광석, 하원, ‘나’는 피란하는 배에서 우연히 만나 부산에서 함께 살게 된다. 의기투합하며 고향에 돌아갈 희망을 가졌던 처음과 달리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사교성이 있는 광석은 남한에서 빠르게 적응해 가는데, 자존

심 강하고 무뚝뚝한 편인 두찬은 그런 광석을 경멸하면서도 부러움을 느낀다. 어느 날 화차가 갑자기 움직이자, 이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했는데 광석이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두찬은 이 상황을 모른 채하고 가 버렸고, 하원과 ‘나’가 광석을 화차로 옮기지만 결국 광석은 숨을 거둔다. 이후 두찬은 이들을 떠나고, 남은 하원은 고향에 돌아갈 꿈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원을 떠날 생각을 한다.

199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두찬은 자신을 붙잡지 않은 ‘나’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는 광석을 외면하고 가 버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 이제 무신 낮짜기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아아…… 광석아하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하원이 가운데에 놓이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원은 두찬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두찬이 이 때문에 하원을 원망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광석이 아재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댘시야, 잉.’이라는 하원의 말을 통해 보았을 때 하원이 광석을 평소 존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하원은 두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구석에서 하원이가 다시 소리 내어 흑흑 흐느꼈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

⑤ ‘넌 왜 그때 혼자만 간. 왜 날 붙들지 않았. 부르지도 않았. 그리고 이제 와선 팔세야, 이 새끼야.’에서 볼 수 있듯이, 두찬은 광석을 외면하고 간 것이지 두찬 때문에 광석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나’가 두찬 때문에 광석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0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금도 저희들끼리 키들거리며 지껄이곤 했다. 그러고는 북쪽 얘기를 하라고 자꾸 졸랐다. 두찬이는 해사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모로 짓기만 했다. 얘기할 줄 모른다는 뜻이리라. 풀이 죽은 낯색이었다.’에서 ‘부두’는 부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하원이 꿈꾸는 ‘집’은 불안정한 ‘화창간’과 대비되는 안식처이지만 고립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일이 끝나면 셋이 가지런히 돌아왔다.’를 통해 부두에서 이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원이더러 가운데 누우라니까 두찬이 모르게 아얏 소리를 지를 만큼 내 허벅다리를 꼬집어 뜯었다.’나 ‘두찬이는 머리칼을 앞으로 흘뜨린 채 내 곁으로 다가왔다. 구석에서 하원이가 다시 소리 내어 흑흑 흐느꼈다.’ 등에서 하원과 ‘나’, 두찬의 갈등을 읽을 수 있다.

③ ‘눈’은 ‘이북’의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 ‘이북’과 눈도 내리지 않는 ‘부산’이 대비되어 두 공간의 이질성이 드러나고 있다.

④ ‘산꼭대기 집’은 ‘우리 이젠 꼭대기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영주동 산꼭대기이다 집 하나 짓자.’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화차간에서의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부산에서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의미한다. ‘우리 동네 갈 쟈 꼭 같이 가자.’,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등에서 하원이 내면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재비네 움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 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물(움물)’로 상징되는 과거의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하원이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화차간’은 안정적인 정착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 화차가 이동할지 몰라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곳이며 이들이 잠시 몸을 깃들인 곳이다.

20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하원은 고향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힌 인물로, 하원의 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나’와 달리 하원은 현실적 자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고향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에서 인물에게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 내렸다.’에서 ‘나’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⑤ 일편에서 이들이 ‘사촌’처럼 인식된다든가, 서로 조카, 아재비로 부른다든가 하는 것에서 이복에서 이들이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헤어짐은 이러한 세계로부터의 이탈이자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정환, 「비가」

|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 때 당한 국치에 대한 비분강개와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조선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항했으나 결국 화친한다. 이때 왕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으며 소헌 세자와 봉림 대군이 볼모로 끌려간다. 작가는 이런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아픔과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10수로 된 연시조에 담아 표현했다.

| 주제 | 국치에 대한 비분강개와 왕자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제1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 제4수: 신하로서 잡혀간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불충에 대한 개탄

- 제6수: 조정에 진정한 충신이 없는 상황에 대한 한탄
- 제8수: 국치를 당한 것에 대한 아픔과 근심
- 제10수: 국치를 당한 것에 대한 비분

20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어느 사이에 다녀온고’, ‘뉘라서 모셔 오리’, ‘누구를 위해 한 것인고’, ‘그 아니 좋을소냐’, ‘뉘라서 슬퍼하리’ 등 각 수 두 번째 행에서 모두 의문형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낙관을 계절의 순환을 활용하여 드러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과거의 기대가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도 않는다.

④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화자의 아픔을 자연물인 풀과 대비하여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풀을 백성으로 보고 ‘구렁에 난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에 애민 정신이 들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가 선용’은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꿈에서라도 본 듯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 왕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박제상은 볼모로 잡혀간 사람을 구해 와 임금의 시름을 덜어 주었지만 현재는 박제상과 같은 인물이 없어 두 왕자를 구해 올 수 없다는 슬픔이 내포되어 있다.

③ 청나라와 화해를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두 왕자가 볼모로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망이 내포되어 있다.

⑤ 시름을 탁주 한 잔으로 푸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병자호란으로 당한 굴욕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안타까움이 내포되어 있다.

204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간절히 그리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왕자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더 커져 두 왕자를 꿈에서 보고 한밤중에 일어난 상황이다. ‘이역 춘궁’은 청나라에 있는 두 왕자를 의미하므로, 결국 ‘이역 춘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화자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꿈이 사라진다고 해서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작품의 상황으로 볼 때 꿈은 현재에 일어난 것이고, 두 왕자가 청나라로 잡혀간 일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다.
- ③ 꿈은 두 왕자를 보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반영된 것일 뿐이므로, 이것의 결과로 두 왕자가 조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 ⑤ 두 왕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작자 미상, 「이춘풍전」

| 해제 | 이 작품은 기생에게 빠져 재물을 탕진하는 인물 '춘풍'을 주인공으로 삼아 조선 후기의 부정적 세태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춘풍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추태를 부린다.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간 춘풍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이때 남장을 하고 나타난 아내의 활약으로 춘풍은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는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이 지닌 횡포를 풍자하고 동시에 여성의 능력을 부각하여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싹튼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 주제 |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
| 전체 줄거리 |

숙종 때 한양에 사는 이춘풍은 가정은 돌보지 않고 놀러 다니며 가산을 탕진한다. 나중에는 아내가 품을 팔아 모은 돈까지 다 없애고 빚까지 진다. 박득만이라는 상인이 돈을 써서 벼슬을 사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최 참판에게 다리를 놓겠다고 박득만을 찾아갔으나 용돈도 못 얻고 술대접만 받고 돌아온다. 춘풍은 돈이 떨어지자 기생 월향에게까지 천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 김 씨는 굶주린 채 누워 있다. 춘풍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반성하고 아내에게 서약까지 한다. 이에 김 씨는 기뻐하며 주린 배를 안고 열심히 품팔이를 하여 돈을 모은다. 춘풍은 다시 교만해져서 호조(戶曹)에서 돈 2,000냥을 빌리고 아내가 모은 500냥까지 합해서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간다. 그러나 평양 기생 추월에게 미혹되어 장사는 하지 않고 돈을 탕진하다가 이윽고 박대와 수모를 받으며 추월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한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김 씨는 마침 이웃에 사는 참판이 평안 감사로 부임하게 되자 그에게 부탁해 비장(裨將)이 되어 남복을 하고 평양에 간다. 추월의 집을 찾아가 추월의 간교한 행위와 남편의 저지 같은 모습을 확인하고 추월을 엄히 문책하여 5,000냥을 남편에게 주게 하고 춘풍 역시 태장(笞杖)을 쳐서 치죄한다. 춘풍은 의기양양하여 한양에 있는 집으로 왔으나 아내가 비장의 복장으로 나타나서 꾸짖자 다시 망신만 당한다. 춘풍은 비장이 아내인 것을 알고 개과천선하여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치가에 힘써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을 이룬다.

205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생녀하여 화목하게 평생 좋을씨고, 그런 것 없이 지냈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이춘풍 부부가 행복한 여생을 보냈음을 알리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완의 결말이나 새로운 사건 예고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구하고 볼 만하다', '아주 그만 제법일세' 등의 표현을 통해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글은 춘풍과 회계 비장(춘풍의 처)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처 앞에서 으스스하다가 회계 비장 앞에서는 찢찢매는 춘풍의 행동에서 해학적 웃음이 유발되고 있다.

⑤ '볼 만하다', '있을쏘냐', '효칙하옵소서' 등의 표현을 통해 이 글에 청자를 앞에 놓고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은 그렇지 않은 표현에 비해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가 밀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6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회계 비장으로 변장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춘풍을 탓하는 춘풍의 처에게 춘풍이 '이왕에 자넨 줄 알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으나 작품 맥락에서 보면 이 말은 머쓱해서 뺀 변명이다. 그러므로 춘풍은 실제 춘풍의 처가 변장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 부분을 보면 회계 비장이 평양에서 춘풍의 돈을 받아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춘풍이 한양으로 무사히 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춘풍의 처가 곧 회계 비장이고, 회계 비장이 평양에서 빈털터리가 된 춘풍을 도와 한양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으므로, 춘풍의 처는 당연히 춘풍이 평양에서 겪은 일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춘풍의 처가 회계 비장으로 변장하여 춘풍을 끌고 나서 옷을 다시 바꿔 입고는 춘풍의 등을 밀치며 자신이 회계 비장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⑤ 회계 비장이 춘풍에게 호통을 친 이유는 아직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허풍을 떨며 의기양양한 춘풍의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2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춘풍의 처'는 춘풍이 탕진한 가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춘풍으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여성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추월이 돈으로 양반인 춘풍을 사환으로 부린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당대 양반의 권위가 위축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생이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기>와 이 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무리한 해석이다.

② 평양 사포가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한 것은 춘풍에게 부당하게 돈을 갈취한 추월로부터 춘풍의 돈을 찾아주려는 것이었으므로 평양 사포를 당대의 부정부패한 양반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회계 비장이 춘풍을 골탕 먹이는 이유는 춘풍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회계 비장은 신분상 중인 계층이고 춘풍은 양반이므로 회계 비장의 행동을 신분적 권위를 내세운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회계 비장이 아내를 보여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대한 꾸중이므로, 이를 남녀 차별 철폐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보여 주는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8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춘풍의 처가 회계 비장으로 나섬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을 취했으므로, '하나의 일을 벌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뱃짐 내라 하는 썸'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짐을 잡음을 이르는 경우'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처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은 아니다.

②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심정'은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내는 심정'을 이르는 말인데, 춘풍은 비슷한 인물이 아닌 바로 그 인물을 본 것이므로 이 상황에 적절한 속담으로 보기 어렵다.

③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태가 더 나빠짐.'을 이르는 말이므로, 지어미 대신 어쩔 수 없이 죽을 썬러 나가는 춘풍의 경우에는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④ '처삼촌 뒷에 벌초하듯' 한다는 말은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못하여 건성으로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아내가 볼까 살피며 죽을 먹는 춘풍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이강백, 「결혼」

| 해제 | 1974년에 발표한 이강백의 단막극으로, 전통적인 희곡의 기법에서 벗어난, 실험성이 돋보이는 희곡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 오는 등, 관객과 무대의 명확한 구분도 없다. 이러한 극적 전략은 연극 공연에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한정된 시간 안에 결혼을 해야 하는 남자의 성공담을 풀어 나가고 있다. 작가는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주제 |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 전체 줄거리 |

가진 것이 거의 없는 남자가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와 결혼해 줄 여자는 없었다. 그래서 도박을 한번 해 보기로 결심하고 가진 것을 모두 털어 자신을 부유하고 화려하게 보이게 해 줄 물건들을 빌린다. 그런 준비를 해 놓고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 여자를 초대한다. 그런데 물건을 빌릴 때 붙었던 조건에 따라 일정 시간이 되면 물건들을 내놓아야 했고, 냉혹한 하인은 어김없이 물건들을 회수해 간다. 빌렸던 물건들은 하나 둘씩 없어지고 급기야 집까지 내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제야 상대 여자는 남자의 사기극을 알게 되지만 마지막 남은 남자의 진심을 믿게 되고 그와의 결혼을 약속한다.

209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하인이 남자에게서 저고리를 빼앗아 가는 장면에서 여자는 '..... 글썽'만 연발하며 남자를 대하는 하인의 행동에 당황해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남자는 하인에게 저고리를 빼앗기지만, 그의 행위에 대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여자는 남자가 맘에 들어 전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④ 여자는 남자가 하는 말, 남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뿐, 남자의 청혼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2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남자는 하인이 자신의 옷을 벗겨 갔을 때, '행복', '황홀'을 깨야 되겠느냐며 여자에게 묻고 있다. 남자는 '행복', '황홀'이 참된 재미임을 언급하며, 참된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물리적 시간의 너머, 즉 참된 것을 지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남자는 '이 놀이의 재미'가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으며, '참된 재미'는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시간을 재고 있는 하인'은 때가 되면 구두와 벡타이, 모자, 옷 등을 남자에게서 빼앗아 가고 있다. 이렇듯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극중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다. '시간을 재고 있는 하인'은 시간



이 흘러감에 따라 남자의 물건을 차례차례 빼앗아 가고 있다. 이는 물리적 시간이 지닌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남자는 여자에게 ‘참된 건 영원하다지요?’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 앞에서 하인에게 자신의 물건들을 빼앗기면서도 자신의 사랑이 줄어들기는커녕 불어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자신의 참된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자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남자는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옷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이 분산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훼손시키고 있었다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자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이 분산되었던 반면, 지금은 오로지 ‘당신’ 하나에로만 모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청혼하고 있다.

신석정, 「들길에 서서」 / 정희성, 「답청」

(가) 신석정, 「들길에 서서」

| 해제 | 이 시는 현실 생활이 어려워도 그에 굴하지 않고 이상을 지니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인은 대조적인 두 세계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세계는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의 세계’이다. 이곳은 이미 어두워져 버린 공간과 시간으로 설정되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의 삶은 뼈저리게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결코 연약하지않은 앉아서 푸른 산과 같이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산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두 번째 세계인 ‘푸른 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별’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은 이상과 꿈을 향해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슬픈 현실 속에서 별을 바라보는 일은 절실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슬픈 현실 속에서 별(이상과 꿈)을 바라보는 것을 ‘거룩한 나의 일과’라 하고 있다.

| 주제 |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상 추구

| 구성 |

- 1~2연: 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사는 숭고한 삶
- 3~4연: 지구를 디디고 사는 기쁜 삶
- 5~6연: 푸른 별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삶

(나) 정희성, 「답청」

| 해제 | 이 시는 소망하는 삶의 세계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봄’은 소망의 삶이 이루어진 세계로, 당대의 시대상과 결부지어 보면 폭압이 사라진 사회를 뜻한다. ‘풀’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힘든 현실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또한 ‘어두운 아희들’은 힘없는 민초이지만 풀을 더욱 푸르게 만드는 존재이다.

| 주제 | 소망하는 삶에 대한 의지

| 구성 |

- 1~4행: 풀을 밟을수록 시퍼런 봄의 모습
- 5~6행: 스스로 풀밭을 이루는 봄의 속성
- 7~10행: 어두운 아희들에게 답청을 권유함.

21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나)의 ‘어두운 아희들’ 등을 통해 화자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 (나)에서 풀을 계속해서 밟는 것과 그에 따라 그것을 견디는 것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 (나) 모두 지나온 삶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어나 상황을 찾을 수 없다.

② (나)에서는 ‘어두운 아희들’을 청자로 설정할 수 있지만, (가)에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서 이상에 대한 소망을 지닐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풀을 밟아야만 봄이 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 (나) 모두 대상과의 일체감을 중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가)는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상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나)는 소망하는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1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1연의 1, 2행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만, [B]에서는 대구를 이루는 표현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 숭고하다는 것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는 뼈가 저리도록 슬픈 생활의 모습과 푸른 별을 바라보는 모습이 대비되어 있다.

③ [A], [B] 모두 지구를 디디고 푸른 하늘과 별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수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A], [B] 모두 ‘푸른 하늘’, ‘푸른 별’의 시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213 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판단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매 맞는 풀’은 권력이 지닌 폭력적 힘에 의해 수난을 당하는 민중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⑤ 모두 ‘풀’과 ‘아희’를 민중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풀을 밟는 행위’를 민중의 바람직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시대 상황을 고려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항순원, 「학」

| 해제 | 이 작품은 ‘학’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이념적 갈등에서 비롯된 민족의 비극이 인간애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다 해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시점에서 순차적인 진행을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몇 개의 과거 사건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두 주인공이 함께했던 과거의 사건은 현실과 대조를 이루면서 긍정적 결말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이념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 논리와 순수한 우정을 나누었던 추억의 대립을 통해 현실 문제의 해결은 인간애의 힘을 회복할 때 가능해진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이념을 초월한 우정의 아름다움

| 전체 줄거리 |

6·25 전쟁 직후 성삼은 북한군이 도망간 삼팔선 부근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성삼은 동네 치안대에서 어릴 적 친구였던 덕재가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덕재의 호송을 자원한 성삼은 덕재의 죄를 심문하지만 덕재는 농사밖에 모르는 성실한 빈농이라는 이유로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 되었을 뿐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별판을 지나던 성삼은 그곳에서 덕재와 함께 단정학을 잡았다 풀어 주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고는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 주며 학 사냥을 하자고 제안한다. 처음에 덕재는 성삼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겁을 내지만, 곧 자신을 풀어 주려는 성삼의 의도를 눈치 채고 잡풀 사이로 기어가기 시작한다.

21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의 시점은 각 인물의 심리 상태나 행동의 동기, 감정, 의욕 등을 분석하여 서술하는 이른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해당한다.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 짐을 느낀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삼이의 내면 심리가 서술되는가 하면,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라는 부분에서는 덕재의 심리가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덕재의 심리는 그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작품의 전편에 걸쳐서는 주로 성삼이의 심리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전지적 시점에 가깝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술자가 이야기에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극적 제시 방법은 대사와 행동으로만 사건을 전달하는 연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

③ 외부적인 사실만 서술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을 뜻하므로 여기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부수적인 인물이 주요 인물에 대해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21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어린 시절 성삼과 덕재는 학을 포획하여 올라미에 매어 두고 등에 올라타며 논다. 이렇게 학을 괴롭히던 가해자 성삼과 덕재를 피해자인 학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 학의 괴로움은 타인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성삼과 덕재의 대립은 성삼이 친구인 덕재를 억압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괴로운 처지에 놓인 학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성삼과 덕재의 운명을 상징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삼팔선 완충 지대에 살고 있는 학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를 상징한다.

② 마지막 장면에 자유롭게 날고 있는 학은 자유를 찾은 덕재를 의미한다.

③ 학을 본 성삼은 어린 시절 덕재와 했던 학 사냥을 떠올리게 된다.

⑤ 총격에도 살아난 ‘학’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날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216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성삼’이 ‘덕재’를 묶었던 포승줄을 풀고 ‘덕재’에게 학을 몰아오라고 한 것은, 어린 시절 놓쳤던 ‘학’을 다시 잡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성삼’은 과거 회상을 통해 ‘덕재’와 나누었던 우정을 떠올리고는 친구인 ‘덕재’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해 ‘덕재’에게 학을 몰아오라고 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삼은 어릴 적 친구였던 덕재가 적이 된 현실에 화를 내고 있다.

② 성삼은 덕재의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③ 덕재는 앓아누운 아버지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④ 처음에 덕재는 성삼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217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에서 공간의 위치는 인물 간의 갈등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마을’에서 성삼이 포승줄에 묶인 덕재를 보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동구 밖’을 거쳐 고갯길을 오르는 사이에 두 인물의 갈등이 고조된다. 그리고 ‘고갯마루’를 넘을 때에는 성삼이 덕재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고갯마루’를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 성삼과 덕재의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뒤에 두 인물이 건넌 ‘들판’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



총답사, 「찬기파랑가」 / 길재, 「오백 년 ~」

(가) 총답사, 「찬기파랑가」

| 해제 | 이 노래는 제목의 뜻과 같이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향가이다. '달, 냇물, 조약, 잣가지'를 통해 기파랑의 인품을, '서리'를 통해 고난과 시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기파랑의 삶을 통해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파랑은 화자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 준 스승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주제 | 기파랑의 높은 인품과 덕을 찬양함.

| 구성 |

- 서사(1~5행): 기파랑의 고결한 자태
- 본사(6~8행):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예찬함.
- 결사(9~10행): 기파랑의 고매한 절개를 예찬함.

(나) 길재, 「오백 년 ~」

| 해제 | 이 시조는 고려가 망한 뒤 개성 근처의 계곡에 은둔하였던 화자가 옛 도읍지였던 송도를 돌아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며 망국의 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라가 망해 사람들이 사라진 것과 자연의 변함없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며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무상

| 구성 |

- 초장: 옛 수도인 송도를 방문함.
- 중장: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
- 종장: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218 작품의 공통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기파랑에 대해 회고하고 있고, (나)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날들을 회고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두 작품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회고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자연의 변화를 드러내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나)에서는 자연의 변함없음이 강조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자연물의 속성과 인간의 삶을 관련짓고 있고, (나)에서는 자연의 변함없음과 인간의 유한성이 대비되고 있다.

④ (가)는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을 뿐, 그의 가치가 점점 잊혀져 간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가)에서 기파랑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달'은 청신하고 광명한 인격과 풍모를 갖추었던 기파랑의 생전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사물이다. 그러므로 '달'이 '구름'을 쫓아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새파란 '냇물'의 모습은 청신한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기파랑의 깨끗함을 드러낸다.

③ '조약'의 단단함은 기파랑의 강직함을 드러낸다.

④ '잣가지'는 곧게 높이 솟아오르는 속성으로 인해 기파랑의 절개를 상징한다.

⑤ 문학 작품 속에서 '겨울'은 보통 부정적이고 암담한 시기를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도 추운 겨울을 대표하는 '서리'는 '기파랑'과 대비되면서 작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0 시어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찬기파랑가」는 10구체 향가로, 10구체 향가의 9행에서는 주로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나)의 시조에서는 종장에 감탄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상황에 대해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의 '아이'는 기파랑에 대한 추모의 정을 집약하고 있는 반면, (나)의 '어즈버'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한탄의 마음을 집약하고 있다.

작자 미상, 「홍보가」

| 해제 |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박타령」이라고도 한다. 권선징악, 형제간의 우애라는 표면적 주제 외에 당대 유랑 농민과 신흥 부농 사이의 갈등이라는 이면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3·4조 또는 4·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생생한 구어를 사용하여 서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극적인 상황조차도 엉뚱한 언행이나 장면 묘사로 익살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슬픔까지도 웃음으로 소화해 내는 해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며,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골계미를 발견할 수 있다.

| 주제 |

- 표면적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인과응보
- 이면적 주제: 유랑 농민과 신흥 부농 간에 벌어지는 경제적 갈등

| 전체 줄거리 |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한 형 놀보는 아우 홍보와 그 식솔들을 내쫓는다. 가난에 허덕이며 살던 홍보는 매품팔이까지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 한다. 어느 날 홍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오며 홍보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홍보는 그것을 심는다. 박이 열리자 배가 고프는 홍보 부부가 박을 탔는데,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홍보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이를 알게 된 놀보는 홍보처럼 되려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치료해서 강남으로 보낸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고, 거기에서 열린 박을 탔지만, 놀보는 박에서 나온 온갖 무리들에게 시달리며 패가 망신하게 된다. 결국 홍보가 찾아와 놀보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 후로 형제는 화목하게 살아간다.

221 갈래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문자를 매개로 하는 언어를 문어라고 하며, 문어는 구어에 비해 변화가 적어 구시대의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한자어 위주의 글이 문어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어체는 일상적인 우리말 위주의 문체라고 할 수 있다. ‘아이고 좋아라. 일 년 삼백육십 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는 주로 일상적인 우리말 위주의 구어체가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어체보다 문어체를 주로 구사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다’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 ② ‘가난이야’를 반복하고 있다.
 - ③ ‘시르렁 시르렁 ~ 툭툭’은 박을 타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 ④ 신선들이 보낸 약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222 어구에 반영된 상황 및 인식 추리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강남 갔다가 돌아온 제비를 보며 반기는 홍보의 심정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제비 다리를 고쳐 준 홍보가 다시 돌아온 제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이다. 즉,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대상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는 홍보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를 당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동네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영 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홍보는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추리할 수 있다.
 - ③ 삼신산의 신선들이 홍보의 덕을 칭송하여 여러 약을 보냈다는 설정은 당대 사람들이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먹을 것이 없어 추석 쇠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는 말이라도 점심 요기를 하고 가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해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박에서 돈과 쌀이 나오는 설정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당대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3 이본과의 비교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박씨에 적힌 글자를 제비가 적어 온 노정기로 해석하고 실제 지명을 나열하며 장면을 확장하여 재미를 주고 있다. <보기>는 제비가 물어 온 박씨를 보며 이를 연실이 아닌가 묻는 홍보의 아내에게 홍보가 연실일 리가 없다며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말하는 부분이다. 제비가 물고 온 박씨가 신기하여 박씨를 화제로 홍보와 홍보 아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난한 현재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나타나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박씨에 적힌 ‘보은포’라는 글자를 잘못 해석한 홍보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박씨를 부각하려는 설

정이다. <보기>는 홍보가 홍보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연실이다, 아니다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역시 박씨를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보은포’를 노정기 적은 것으로 해석하여 은진, 보은, 옥천 등의 지명을 언급하며 장면을 확장하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으며, <보기>는 강남 미인들의 고사와 구슬 고사를 인용하며 장면을 확장하고 있다.
- ④ <보기>의 ‘그 물고 오는 게 고마운게’를 통해 박씨를 물고 온 제비에게 홍보가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홍보는 ‘보은포’를 지명인 ‘보은’으로 해석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 해제 | 이 글은 박지원이 요동 별판을 본 감회를 바탕으로 울음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통곡할 만한 자리」는 글쓴이가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열하일기』 중 「도강록」에 실린 기행 수필이다. 박지원은 요동 별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독특한 시각과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울음이 갖는 의미

| 구성 |

- 기: 요동 별판을 처음 본 반응
- 승: 요동 별판을 보고 울고 싶은 이유
- 전: 갓난아이의 울음에 비유하여 설명
- 결: 요동 별판이 좋은 울음터임을 다시 확인

22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 진사가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운다면 칠정 중에서 어느 정이냐고 묻는다. 글쓴이는 이런 정 진사의 물음에 대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에 빗대어 이해시키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가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백담이 현신함을 아뢰오.’라고 하여 의인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글쓴이가 한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25 내용 전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는 요동 별판을 보고 울고 싶은 감정은, 갓난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감정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갓난아이는 광명과 부모 친척들을 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요동 별판을 보고 울고 싶은 감정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느끼는 슬픈 감정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요동 별판을 본 글쓴이는 감동하여 한바탕 울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② 정 진사는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울고 싶다는 글쓴이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계를 만나 홀연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라고 질문을 한다.

③ 인간의 ‘칠정’이 극에 달하면 모두 울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정 진사는 ‘그래, 지금 울 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겠소?’라고 하여 ‘칠정’ 중에서 어느 ‘정’이 극에 달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 「거울」 / 이승훈, 「이승훈 씨를 찾아가던 이승훈 씨」

(가) 이상, 「거울」

| 해제 | 이 시는 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 사이의 분열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거울은 ‘거울 밖의 나’가 ‘거울 속의 나’를 보게 하고 또 서로 닮았음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의식, 곧 자의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울’은 ‘거울 밖의 나’가 ‘거울 속의 나’와 대화를 하거나 악수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자의식이 자아 간의 단절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급기야 ‘거울 속의 나’는 ‘거울 밖의 나’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혼자서 거울 속에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극도로 분열된 상황임을 나타낸다.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서 ‘거울 밖의 나’가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담담히 말할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자아의 분열이 끝내는 극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자기 발견의 고통스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심화되어 가는 자아 분열로 인한 고뇌

| 구성 |

- 1연: 거울 속 세상의 조용함
- 2연: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울 속의 나’
- 3연: ‘나’의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거울 속의 나’
- 4연: 만날 수는 있지만 만져 볼 수는 없는 ‘거울 속의 나’
- 5연: ‘거울 밖의 나’와 극도로 분열된 ‘거울 속의 나’
- 6연: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는 ‘거울 속의 나’

(나) 이승훈, 「이승훈 씨를 찾아가던 이승훈 씨」

| 해제 | 이 시는 자아의 분열을 형식으로 삼아 시에 대한 자의식을 표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의미 해석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이승훈 씨와 시인 이승훈 씨라는 동일 인물이 동시에 두 인격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두 인격은 시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서로 논쟁을 벌인다. 먼저 시인 이승훈 씨는 갈매기를 강박 관념으로, 모래를 환상으로, 벽돌을 꿈으로 해석한다. 그는 시어의 의미를 상징성에서 찾고자 하며, 시어가 관념(의미)을 꿰뚫을 수 있다고 믿는 상징주의자이며 관념론자라 할 수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승훈 씨는 갈매기는 모래, 모래는 벽돌, 벽돌은 갈매기라고 주장한다. 이는 시어라는 언어 기호(기표)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기의)과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표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를 불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언어 철학의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두 이승훈 씨의 관점 중 어느 쪽이 맞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인은 사실상 분열된 두 자아의 논쟁을 통해 자신이 쓴 시어의 의미조차 제대로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시어 그 자체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 | 자아의 분열과 시어의 한계에 대한 자의식

| 구성 |

- 1~7행: 시인 이승훈 씨를 방문한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 씨
- 8~12행(~ 보여 준다):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 씨에게 자신이 지은 시를 보여 주는 시인 이승훈 씨
- 12(갈매기~)~21행(~아니니까요): 시어의 의미에 대해 논쟁하는 두 이승훈 씨
- 21(바바리를~)~24행: 논쟁 끝에 밖으로 나가 버리는 이승훈 씨

22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통해, (나)에서는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과 작업복을 입은 이승훈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작가의 내면 의식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첫 연과 끝 연의 대응은 (가), (나)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거울’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어내고 있다기보다는 시인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 역시 겉으로는 일상적인 상황인 듯 보이지만 시의 여러 장치를 고려하면 시를 쓰는 작가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표현은 (가), (나)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의 마지막 행 ‘좋아요 좋아!’를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 현실 세계의 이면에 감추어진 모순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22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추지만 거울 밖의 ‘나’와 ‘거울속의나’를 차단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작가는 이러한

거울의 이중성을 통해 자아의 분열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4연에서 '나'가 거울로 인해 '거울속의나'를 만져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분열된 두 자아가 소통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거울 덕분에 '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살펴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것이지, 차단되어 있던 두 자아가 다시 소통하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거울 속의 세계가 거울 밖의 세계와 달리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것은 거울 속의 세계가 거울 밖의 현실과는 다른,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관념적인 공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거울속의나'가 거울 밖의 '나'의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울 밖의 '나'가 오른손을 내밀 때 좌우가 뒤바뀐 '거울속의나'는 왼손을 내밀게 되기 때문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거울속의나'와 거울 밖의 '나'는 닮았지만 서로 다른, 분열된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연에서 거울이 없을 때에도 '외로된사업에골똘'하는 '거울속의나'가 있다는 것은 '거울속의나'가 거울 밖의 '나'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극대화해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거울속의나'는 거울 밖의 '나'와 차단된 채로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즉 '나'의 내면적 자아는 현실적 자아와 분열된 채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시에서는 '거울속의나'를 '근심하고진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섭섭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228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를 통해 (나)를 이해한다면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과 작업복을 입은 이승훈은 모두 시인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두 인물이 시어의 의미에 대해 싸우다 결국 한 인물이 문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은 자신이 쓴 시어가 시적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시인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통해 시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인 자신의 이름을 작품 속 인물의 이름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의 시인과 작품 속 인물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②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과 작업복을 입은 이승훈은 모두 이승훈이라는 동일 인물의 서로 다른 자아라고 볼 수 있다. 동일 인물을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인물의 모습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복잡한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시인은 작품 속의 작업복을 입은 이승훈을 시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두 이승훈이 논쟁하고 있는 시도 작업복을 입은 시인 이승훈이 원고지 뒷장에 휘갈겨 쓴 시, 즉 완성된 시가 아니라 만들어 가고 있는 시이다. 이것에 대해 또 다른 이승훈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자신의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시에 대해 가지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노출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갈매기, 모래, 벽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싸우는 두 이승훈의 모습을 통해 시인은 시어가 정확히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해제 | 이 작품은 도시 빈민의 궁핍한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같은 제목으로 된 연작 소설집 속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난쟁이 아버지,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취업해야 하는 자식들, 재개발로 인해 애써 마련한 집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의 중첩, '영수', '영호', '영희' 세 명의 서술자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시점의 이동 등의 기법을 동원하여 그려 내고 있다.

| 주제 |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과 그로 인한 고통

| 전체 줄거리 |

난쟁이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이다. 그들은 '낙원'과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된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입주비가 없는 마을 사람들은 입주권을 판다.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는 인쇄 제본 공장에 나가고 영수는 인쇄소 공부부 조역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간다. 영호와 영희도 학교를 그만둔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의 값이 오르고 영수네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지만 명희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집을 나간 영희는 투기업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함께 지내다가 입주권과 돈을 훔쳐 집으로 온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음을 알게 된 영희는 큰오빠인 영수에게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 버려."라고 말한다.

229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영희의 큰오빠이다. 입주권을 파는 것과 관련된 명희 어머니와의 대화, 과거 집 지을 때에 대한 회상,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 등을 관찰하면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주된 갈등은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인용된 부분에서는 그러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회상 장면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은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공약을 말하는 것으로, 가진 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서 대립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기에 인물 간 대립을 고조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인 ‘나’의 심리가 주로 드러나고 있는 반면, 내면 의식의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던 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받은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거나 아버지와 지섭 사이의 대화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할 수 없다.

③ 인용된 부분의 서술자는 ‘영수’로, 난쟁이가 가족의 큰아들이다. 이 질적인 시선을 가진 여러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입주권과 관련된 사건, 과거 집 지을 때의 사건,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 종이비행기를 날린 사건 등이 이 글에 제시된 사건으로 이 사건들은 동시에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를 지닌 사건이다.

230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가난한 동네에 찾아와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A] 이후 ‘나’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무수한 계획만을 내놓았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즉, ‘나’는 [A]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선거가 잠시 그때뿐인 헛된 약속임을 깨닫게 되며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겨 주는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나’의 의식의 변화 및 성숙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과거 사건을 회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난하지만 자신들이 살 집을 지으며 즐거움을 느끼던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떠서 동네를 돌아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어서 그들이 내놓은 약속이 허황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에 열등감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신들의 집이 헐리고 입주권마저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는 과거 자신들이 살 집을 짓던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③ 동네를 찾아온 사람이 난쟁이가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약속하자 ‘나’는 아버지를 거인처럼 느낀다. 이는 어린 ‘나’의 느낌인데, 이후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서술이 나오지 않기에 아버지에 대한 시각 변화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A]는 어린 시절 동네를 찾아온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로,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23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것은, 그들 가족이 도시 빈민으로 자본주의의 사회 질서에서 소외되어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비극성을 고조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즉, ‘난쟁이’는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로부터 핍박받고 억

압을 당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난쟁이라는 신체적 결함을 지녔기에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달나라’는 ‘죽은 땅’과 대립된 공간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한다.

② 이 글에 드러난 상황은 애써 마련한 집이 헐리는 상황에서 입주권마저 팔아야 하는 궁핍한 삶으로, 이를 통해 도시 빈민의 궁핍과 소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지섭은 아버지에게 아무 일도 안 했는지, 나쁜 짓을 한 것은 없는지, 기도를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며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지녔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그런 성실과 진지함에 보답하지 않는 이 땅을 지섭은 죽은 땅이라고 말한다. 즉, 이 대화를 통해 작가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정성을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아버지가 날린 ‘종이비행기’는 달나라(이상 세계)로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종이비행기라는 설정은 결국 아버지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그칠 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윤선도, 「오우가」

| 해제 | 이 작품은 윤선도가 해남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할 무렵에 지은 『산중신곡(山中新曲)』 속에 들어 있는 6수로 된 연시조이다.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을 다섯 벗으로 삼는다는 것을 서시(序詩)에 제시한 다음에 나머지 다섯 수에서 그 자연물들의 특질을 각각 들어 자신의 자연애와 더불어 지향하는 인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수·석·송·죽·월을 벗으로 삼는 까닭

| 구성 |

- 제1수: 다섯 벗의 소개
- 제2수: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물의 자질
- 제3수: 변치 않는 바위의 자질
- 제4수: 눈서리를 모르는 소나무의 곧은 자질
- 제5수: 곧고 사시 푸른 대나무의 자질
- 제6수: 밝고도 과묵한 달의 자질

23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조는 정형시이므로 율격이 일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순을 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는 어순을 도치한 구절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2수에서는 초장의 구름과 중장의 바람이, 제3수에서는 초장의 꽃과 중장의 풀이 대구 형식의 문장 속에서 제시되어 있다.

② 제2수의 구름과 바람은 물과 대립되는 이미지로, 제3수의 꽃과 풀은 바위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 ③ 제4수와 제5수의 초장은 각각 두 마디씩 나누어지면서 대구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는 술을, 제6수에서는 달을 각각 인칭 대명사인 '나'로 지칭하고 있다.

233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물(제2수)과 돌(제3수), 소나무(제4수)와 대나무(제5수), 달(제6수)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배치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과 돌은 무생물이고 소나무와 대나무는 생물이다. 이들 네 사물은 모두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달은 천상에 존재하는 무생물이다.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각 수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불변성을 돌의 자질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어긋난다. 그리고 달은 차고 기우는 순환성을 지니긴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를 부각하지 않았다.

② 소나무와 대나무가 초월성을 어느 정도 지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과 돌의 자질을 이와 대립되는 세속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용과 어긋난다. 달의 신성성도 근거가 없다.

④ 수석과 송죽을 내면 심리와 외부 풍경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모든 수에서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을 두루 포착하고 있다. 달도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⑤ 오히려 수석에 대해서는 부분적 일체감을, 송죽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체감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달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아닌 친근감을 보여 주고 있지만, 이는 나머지 벗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곤을 뿐만 아니라 사시에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를 좋아한다는 고백이지, 정적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곧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볼 수는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름과 바람, 꽃과 풀은 모두 한결같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 사물들이다. 우의적으로 해석하면 시류에 따라 변하는 정치인들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물이나 바위는 모두 시인 자신이 벗으로 삼을 정도로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물들이다. 따라서 그 자질은 곧 시인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③ 바위도 변치 않는 점에서, 대나무도 사시에 변하지 않고 푸르다는 점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불변성은 일관된 신념이나 불굴의 의지와 상통한다.

⑤ 달이 보고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본 것조차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모함을 하기 위해 보거나 들은 바를 왜곡하는 인물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자 미상, 「운영전」

|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사회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애정 소설이다. 작가와 창작 연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운영과 김 진사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다룸으로써 고전 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비극적 결말을 지니고 있으며, 선비인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의 이야기를 듣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인간이 지닌 본성과 성정을 억압하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인간 본성에서 우러난 참된 사랑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 주제 | 사회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인 사랑

| 전체 줄거리 |

선조 때 선비인 유영이 안평 대군의 옛집인 수성궁 터에 들어가 홀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다. 잠에서 깬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부 이야기 시작) 안평 대군의 궁녀인 운영은 궁궐에 들어온 김 진사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무녀의 도움으로 사랑을 주고받다가 김 진사는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나 달아날 계획을 세운다. 둘의 사랑은 안평 대군에게 들리고 운영은 목을 매어 자결한다. 운영의 소식을 들은 김 진사도 운영을 따라 죽는다. 김 진사와 운영은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유영을 만나 자신들의 비극적 사랑을 세상에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내부 이야기 끝) 유영이 취중에 졸다가 깨어 보니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남아 있었다. 유영은 그 책을 가지고 돌아온 후 명산대전을 두루 돌아다니다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235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운영이 수성궁을 찾은 유영에게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이므로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였어요.'는 자신의 마음을 진사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영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운영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진사의 일은 운영이 나중에 진사에게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② '예를 갖추지 못하고 삼가 쓰나이다.'는 진사의 편지 내용으로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이 아닌 진사의 목소리로 진사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③ 서술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저'는 1인칭 서술자를 말하는데 그가 바로 운영이다.

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는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이 무녀의 행동의 이유를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다.

236 인물의 심리와 행동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취는 운영과 자란의 말을 엿듣고 운영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희시를 지어 운영을 놀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무녀는 진사가 찾아온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신에게 물어보고서 알아차리고 있다. 그러므로 진사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② 진사는 운영을 만나지 못하고 편지를 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 운영의 편지를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대군은 무녀가 다녀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자란과 운영은 함께 서궁에 와 있으므로 자란이 운영을 배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37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무녀는 궁으로 가서 운영에게 진사의 편지를 전해 주어 둘의 사랑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운영은 무녀가 진사를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지만 진사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진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사는 운영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 위해 ㉠을 찾아 무녀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 ② 이 글로 볼 때 운영은 궁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진사는 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그러므로 궁은 둘의 사랑에 장애가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③ 대군은 궁녀들이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궁에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
- ⑤ 운영이 서궁으로 이동하면서 진사와 운영이 만나고 소식을 전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져 번민이 심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38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사는 운영을 한 번 본 이후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에 적용하면 오매불망하며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경이원지(敬而遠之)’는 공경하되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뜻의 말로, 진사가 운영을 공경하여 가까이하지 않고 자 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백골난망(白骨難忘)’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의 고마움을 이르는 말이다. 진사가 운영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뜻의 말로, 진사가 운영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는 뜻의 말로, 속을 썩인다는 의미는 유사하나 운영을 그리워하는 진사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근삼, 「유실물」

| 해제 | 이 작품은 물질적 욕망에 얽매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의 정신적 불구 현상을 우의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된 현대인의 삶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 인간적 가치를 잊고 사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 전체 줄거리 |

상무와 비서는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의 직원들로, 상무는 가족도 돌보지 않은 채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에 대기업의 총수인 노파가 유실물을 찾고 싶다며 찾아온다. 우연히 꽃다발의 향기를 맡게 된 노파는 꽃향기를 잃고 살았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비서에게 수표를 건네고 유실물 관리실을 떠난다. 그 일이 있은 후 상무는 더 이상 일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회사에 사표를 내고, 비서는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수표를 찢고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유실물을 찾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노파는 ‘꽃향기’에 담긴 의미, 즉 인간적 가치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비서에게 자신이 잃고 싶은 수표를 건넨다. 그런데 노파는 자신처럼 비서도 꽃향기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노파가 비서에게 수표를 준 것은 인간적 가치를 의미하는 꽃향기를 구하라고 준 것이지, 비서가 물질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표는 물질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수표를 찢는 것은 물질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② 상무가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회사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이다.
- ③ 노파를 만나기 전, 즉 꽃향기의 의미를 발견하기 전의 상무는 가정도 있고 회사 일에만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 ⑤ 노파가 꽃다발을 보며 눈물을 흘린 것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 삶에 대해 후회하기 때문이다.

240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을 통해 상무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아내를 떠올린다. 이를 통해 상무는 자신이 인간적 가치를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고,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 회사에 사표를 낸다. 그리고 상무는 그동안 무심하게 대했던 아내를 위해 ㉠을 준비하려 한다. 이는 자신이 깨닫게 된 인간적 가치의 소중함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다.

윤동주, 「간」 / 김중삼, 「술래잡기」

(가) 윤동주, 「간」

| 해제 | 이 작품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구토지설」을 '간'을 매개로 하여 결합한 작품이다. 시인은 현실적이고 육체적 자아인 '나'와 정신적 자아인 '너'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종결 어미 '-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 회복에 대한 소망과 자기희생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간'은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을 상징한다. 또한 '토끼'는 현실의 유혹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자신의 간을 지키려는 저항 의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프로메테우스'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기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둘 다 화자와 동일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 주제 | 현실적 고난을 감내하는 자기희생의 의지

| 구성 |

- 1~2연: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을 위해 간을 지키겠다는 다짐
- 3~4연: 육체를 희생하더라도 정신을 살피우겠다는 의지
- 5연: 현실적 유혹에 대한 저항적 의지
- 6연: 현실적 고난을 감내하는 자기희생과 속죄 의식

(나) 김중삼, 「술래잡기」

| 해제 | 이 작품은 고전 소설 「심청전」을 시로 변형하여 심청의 한과 슬픔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길이가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심청이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심청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심청의 한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로운 심청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한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미덕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다.

| 주제 | 심청의 한(恨)과 슬픔에 대한 동정과 연민

| 구성 |

- 1연: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심청
- 2연: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심청과 심청을 위로하는 친구들

241 시구의 의미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프로메테우스가 불이 없는 인류를 위해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죄를 말하는 것으로, 인류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돕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은 술래잡기를 하는 도중 술래가 된 상황이다. 심청은 ㉡을 매는 경험을 통해 아버지의 고통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며, 친구들 또한 이러한 심청을 보며 심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자신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다. 또한 ㉡은 상대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의 계기이다.

② ㉠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을 통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반응은 아니다.

③ ㉠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위이기에 미래 지향적인 태도와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은 과거나 미래 지향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은 인류를 위한 프로메테우스의 행동으로, (가)의 화자는 ㉠을 통해 자신의 희생 의지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내적 갈등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은 심청이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그 이전의 심청이 내적 갈등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갈등의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

24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용궁의 유혹'은 현실이 아닌, 현실을 벗어난 곳으로부터의 유혹으로,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순수한 양심을 저버리도록 만든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용궁의 유혹'에 다시는 안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용궁의 유혹'이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양심이나 자아를 저버리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궁의 유혹'이 희망을 상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간'은 지켜야 할 용기와 양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습한 간'은 더럽혀진 양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에서 코카서스 산중을 통해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토끼를 통해 구토 설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③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독수리'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외부의 존재로, 제우스로부터 주어진 형벌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독수리'는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존재로, 자신의 간을 뜯어먹히는 과정을 통해 양심과 자아를 갈고 버리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끝없이 침전하는'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미래를 예견한 것으로, 순수한 양심과 자아를 지키기 위한 희생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243 감상의 적절성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A]에서 심청은 친구들과 뛰어놀며 오랜만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만, [B]로 오면서 심청의 정서는 아픔과 슬픔으로 바뀌게 되어 시적 반전을 보여 준다. 이러한 반전은 전반부의 친구들의 이해와 위로를 후반부에 와서 심청 자신의 아버지의 아픔에 대한 이해, 그러한 심청에 대한 친구들의 공감으로 심화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친구들이 심청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심청일 웃겨 보자고'를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② '꿈속에서도 언제나 외로웠던 심청인 / 오랜만에 제 또래의 애들과 / 뽕박질을 하였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얼마 후 심청은 / 눈 가리기 형곶을 맨 채 / 한동안 서 있었다.'에



서 심청은 눈을 가리고 술래가 되자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전까지의 즐거움의 정서가 슬픔의 정서로 변화되고 있다.

⑤ ‘술래잡기 하던 애들은 안됐다는 듯 / 심청을 위로해 주고 있었다.’에 나타나 있다.

손창섭, 「비 오는 날」

| 해제 | 6·25 전쟁 당시의 부산을 배경으로 동욱 남매의 불행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비가 오는 음산한 풍경을 배면(背面)에 깔면서, 동욱과 동욱의 절망과 무기력이 음울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

| 주제 | 전쟁의 극한 상황이 가져다준 인간의 무기력한 삶

| 전체 줄거리 |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에 피란 온 대학생 원구는 친구 동욱의 집에 가 본 후부터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들 남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동욱은 누이동생 동욱과 1·4 후퇴 때 월남하여 살고 있다. 동욱은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동욱이 초상화를 그려서 그나마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동욱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로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를 절고 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동욱은 착실한 교인이며 목사 지망생이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 원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적대감을 보이던 동욱은 만남이 되풀이되면서 점차 태도가 부드러워진다. 동욱은 원구에게 동욱과 결혼하기를 권유한다. 동욱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은 그들의 비참한 생활만큼 황폐한 판잣집이었다. 비가 갠 어느 날 리어카에 잡화를 벌여 놓은 원구에게 동욱이 찾아와서, 통역 장교 모집에 응시하려다 수속이 복잡하여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며칠 후 동욱의 집에 찾아가던 원구는 동욱이 주인 노파에게 빌려 준 돈을 떼인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며칠 후, 동욱의 집을 찾아든 원구를 동욱 남매가 아닌 낯선 사내가 주인이라며 맞는다. 그 사내는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이 없고, 동욱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동욱은 얼굴이 반반하여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사내 말소리를 듣지며, 원구는 자기가 동욱을 팔아먹었다는 자책감에 빠진다.

244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사건은 주로 원구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동욱을 바라보는 원구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은 원구와 동욱이다. 하지만 이들은 친한 친구 사이로서 갈등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서술되지 않고 있다.

② 삽화 형식이란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에 끼인 짤막한 토막 이야기를 말한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발견할 수 없다.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며 주로 원구의 시선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지문에서 인물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동욱에 대한 묘사 부분을 찾을 수 있으나 주로 그의 비참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비극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245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욱은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형편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동욱이 원구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학교 시절에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면’이라는 서술을 통해 원구와 동욱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첫 문장인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를 보면 원구가 동욱에게 연민의 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동욱의 그 닳아빠진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 꺼렸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⑤ 동욱은 ‘내가 자네람 주저 없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라고 말하고 있다.

246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비 오는 날의 음울한 분위기와 음산한 풍경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까지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배경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가 성격 창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가 주제 결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가 치밀한 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보기>가 개성적 문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4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년간 찬양대를 지도해 온 동욱의 과거를 원구는 생각하며, 요즘은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따라서 ‘찬양대’ 지도는 동욱이 전쟁 이전에 했던 활동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은 동욱 남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②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④ ‘그 닳아빠진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감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따

라서 원구에게 그 웃음은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을 환기한다.

⑤ 원구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암 그럴 테지' 하며 말했다는 것은 둘 사이의 대화가 원만하게 오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두보, 「강촌」 / 이현보, 「어부단가」

(가) 두보, 「강촌」

| 해제 | 가족과 함께 강이 흐르는 마을에 정착한 두보가 그 속에서 느낀 정신적 여유와 안정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강촌의 한가로운 모습과 분위기가 선경 후정의 구성 속에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지고 있다. 전란으로 인한 아픔 속에서 지내던 작가는 49세 무렵 성도 인근에 정착하여 잠시나마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 수련과 함련에는 한가롭고 정겨운 자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경련에는 그 속에서 한가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이, 미련에는 그러한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그려지고 있다. '병을 다스릴 약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화자의 말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느낀 정신적 여유와 안정감을 반영한 것이다.

| 주제 | 한가한 강 마을의 풍경에서 느끼는 마음의 여유

| 구성 |

- 수련(1~2구): 맑은 강을 안고 흐르는 강 마을의 풍경
- 함련(3~4구): 유유자적하는 제비와 갈매기의 모습
- 경련(5~6구): 장기관을 그리고 낚시 바늘을 만드는 가족의 모습
- 미련(7~8구): 그 속에서 안분지족을 느끼는 화자

(나) 이현보, 「어부단가」

| 해제 |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조선 중기의 문신 이현보가 개작한 작품이다. 자연을 벗 삼아 고기잡이를 하는 한가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양반들의 풍류와 멋을 드러내고 있다. 생업으로서의 고기잡이가 아닌, 자연을 벗하며 세월을 낚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풍류를 즐기면서도 북벌에 계신 임금에 대한 걱정, 나라를 구제할 선비에 대한 고민도 드러내고 있다.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당시 양반들의 의식과 태도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 주제 | 자연에 은거하며 즐기는 풍류와 즐거움

| 구성 |

- 1수: 인세를 잊은 어부의 한가로운 삶
- 2수: 세속적 욕망을 벗어던진 자연 속의 삶
- 3수: 한가로운 삶 속에서 느끼는 일반정의미
- 4수: 시름을 잊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
- 5수: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과 걱정

24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여름날 강촌'이라는 계절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나)의 계절적 배경은 정확하

지 않다. 또한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알려 주는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제비'와 '갈매기'가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강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흥진을 벗어나 '녹수'와 '청산'이 있는 곳에서 살고자 하고 있다.

③ (가)의 5구와 6구에는 아내와 자식이 한가롭게 이것저것을 만드는 모습이, (나)의 <1수>와 <3수>에는 '일엽편주'를 띄워 놓고 고기를 낚으며 지내는 한가로운 '어부'의 삶이 제시되고 있다.

④ (나)의 <5수>에는 '장안'과 '북벌'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 있다. 이로부터 현실 정치에 대한 화자의 미련, 임금을 생각하는 신하의 마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5구와 6구에서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의 화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있다.

249 갈래별 특징, 성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경련에서 시상이 전환된다는 것은 수련과 함련까지 이어져 온 분위기가 경련에 이르러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의 [C]는 경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내'와 '자식'이 '장기관'과 '낚시 바늘'을 만드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이전까지 보여 준 자연의 한가로운 분위기를 인간의 모습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경련 안의 '장기관'과 '낚시 바늘'은 모두 집 안에 있는 소재들로, 물에서 강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시적 화자는 '맑은 강 한 굽이'를 안고 흐르는 마을(강촌)의 모습과 분위기에 주목하며 시상을 펼치고 있다.

② [B]의 '제비'와 '갈매기'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마을의 한가로운 풍경과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③ [B]와 [C]에서는 각 연 안의 행들 사이에서 서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3구의 '제비'와 4구의 '갈매기', 5구의 '아내'와 6구의 '자식'이 서로 내용상 대응을 이루고 있다.

⑤ [D]에서 화자는 '하찮은 이 몸'이 바라는 것에 주목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약물' 외에 '무엇을 구하리오?'(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는 화자의 질문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250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4수>에 제시된 '산두', '한운', '수중', '백구'는 모두 화자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들이다. 또한 이 속에서 '시름을 닛고' 하나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고백 속에는 내적 갈등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수>의 종장 '인세를 다 니졌거니 날 가는 주를 알랴'는 '날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지냈다'는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② <2수>의 '홍진'과 '강호'('녹수'와 '청산')는 각각 인간 세상과 자연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③ <3수>의 초장 '청하에 바불 뵈고 녹류에 고기 지어'의 경우 앞 구절과 뒤 구절이 대구를 이루며 화자의 생활을 보여 준다.

④ <5수>의 종장 중 '두어라', '제세현이 업스랴'와 같은 표현에서 영탄적 어조가 느껴진다. 시인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시상을 집약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작자 미상, 「박씨전」

| 해제 |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가, 연대 미상의 역사 군담 영웅 소설이다. 여타의 영웅 소설과는 달리 여성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이라 할 만하며 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는 우부현녀(遇夫賢女) 설화와 전쟁 이야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흥미롭게 구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함으로써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위로하고 있으며, 여성 영웅의 등장을 통해 남성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가부장적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 주제 | 박 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 전체 줄거리 |

한양의 이득춘은 총명하고 비범한 그의 아들 이시백을 금강산의 도사 박 처사의 딸과 결혼시키나 시백은 신부의 얼굴이 박씨임에 실망하여 부인을 돌보지 않아 박 씨는 후원에 피화정(避禍亭)을 짓고 홀로 지낸다. 박 씨는 부덕(婦德)과 신묘한 도술의 힘으로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남편이 장원 급제할 수 있게 한다. 어느 날 박 처사가 와서 액운이 끝났다면 딸의 허물을 벗겨 주니 박 씨는 절세미인으로 변하고 시백을 비롯한 가족들이 박 씨를 사랑하게 된다. 시백은 병조 판서가 되어 남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경업과 함께 가달의 난을 평정하고 귀국한다. 호왕이 조선 침공에 앞서 시백과 경업을 죽이려고 첩자를 보내지만, 박 씨가 이 첩자를 쫓아 버리고 시백을 통해 호왕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조정에 청한다. 그러나 김자점의 반대로 청은 거절되고, 이후 호국이 침입하자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란했다가 항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한다. 적장 용골대의 아우가 피화정에 침입했다가 박 씨에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하러 온 용골대 역시 박 씨의 도술에 혼이 난다. 용골대가 인질들을 데리고 회군하다가 의주에서 임경업에게 대패하고, 왕은 박 씨를 절충 부인에 봉한다.

251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박 씨라는 환상적 요소를 등장시켜 전쟁의 패배로 인해 현실

공간에서 이를 수 없는 욕망을 대리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적국의 장수인 용골대가 펼치는 칼 재주는 환상적 요소라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병자호란의 패배는 이미 현실이 된 역사적 사건에 해당한다.

② 이 작품에서 박 씨가 도술로써 적장을 제압하는 장면은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현실을 전복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낯설고 경이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④ 이 작품에서 박 씨가 적장 용골대를 도술로써 무찌르는 장면을 통해 병자호란의 패배로 상처 입은 민족의 자존심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청국에 대한 적개심, 전쟁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는 당대의 욕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⑤ 이 작품은 박 씨라는 환상적 요소를 등장시켜 적장인 용골대를 물리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좌절된 욕망을 대신 해소하고 있다.

252 해석의 적절성 판단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피화정은 화를 피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때의 화는 박 씨 개인에게 닥친 재앙일 수도 있고,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나 사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병자호란 때 용골대가 피화정을 공격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에 해당된다. 또한 용골대가 박 씨와 대결을 하다 목숨을 잃었으므로 피화정이 용골대 개인적 차원의 화를 해소한 공간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박 씨가 적장인 용골대를 호령하고 도술로써 적장을 죽이고 병사들을 일망타진한 것으로 보아, 피화정은 단순히 화를 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피화정을 박 씨가 남편의 구박 등과 같은 가정 내의 불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간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개인적 차원의 화를 피하기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피화정의 화초와 초목이 수천 기의 병정으로 변했고, 적장인 용골대를 맞아 싸워 승리했다는 점으로 본다면, 피화정은 박 씨가 국가의 앞날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호병으로 인한 피해를 면하기 위해 모든 친척과 충신열사를 피화정으로 피신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피화정이 일종의 전쟁의 피란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재앙을 피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3 한자 성어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합지졸'은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뜻으로,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배수지진'은 '적과 싸울 때 강이나 바다를 등

- 지고 친 진'이라는 말로,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대처함을 의미한다.
- ② '사생취의'는 '목숨을 버리고 의를 좇는다는 뜻으로, 목숨을 버릴 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의미한다.
- ④ '일진일퇴'는 '한 번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 뒤로 물러섰다 함.'을 의미한다.
- ⑤ '일촉즉발'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몹시 위급한 상태'를 의미한다.

김소운, 「특급품」

| 해제 | 글쓴이는 인생을 비자반에 빗대어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비자반은 인생을 의미하며, 비자반에 생긴 균열은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인간이 과실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과실을 딛고 일어서야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주제 | 과실을 극복하는 삶의 자세의 필요성

| 구성 |

- 처음: 비자반 특급품에 대한 소개
- 중간: 상처 난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과 인생의 과실
- 끝: 과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에 대한 긍정

25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가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비자반'이라는 특정한 사물을 제재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흥터가 없이 완전무결한 제품이 높은 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다. 글쓴이는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흥터가 있는 비자반이 일등급보다 더 높은 값을 받는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과실로 해서 더 커 가고 깊어 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되는 굳세어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비자반에 균열이 생겼다가 제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한 것은 유연성이라는 특질을 증명해 보인 '졸업 증서'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활용하여 글을 읽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55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자반 일등급과 달리 비자반 특급품은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흥터가 있다. 이는 상처 났던 바둑판이 제힘으로 제 상처를 고친 결과 남은 흔적이다. 글쓴이는 비자반 일등급과 특급품의 차이를 통해 과실이나 상처를 제힘으로 다스려 깊어 가는 인격, 굳세어지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글쓴이는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 유연성이란 특질을 지닌 '비자'를 과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과 견주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글쓴이는 비자반의 상처를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 인간은 누구나 과실을 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중략' 이후에서 과실로 인해 인격이 더 커 가고 깊어 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사고가 발생한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을 통해 비자반을 인생에, 비자반의 상처를 인간의 과실에 빗대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을 언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과실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이겨 내는 인생이 진정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글쓴이는 비자반 특급품이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대 3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비자반 특급품이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인간이 시련을 감내하는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과실을 다스려 인간이 성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소월, 「그를 꿈꾼 밤」 / 백석, 「여우난골죽」

(가) 김소월, 「그를 꿈꾼 밤」

| 해제 | 이 시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불빛은 '그'를 떠올리는 매개가 된다. 화자는 그를 기다리며 그리움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불빛이라는 몽롱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느끼고 있는데, 이는 비몽사몽의 상태에 화자가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각적 이미지는 다시 '발자국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대체되면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그래서 화자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다.

| 주제 | '그'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1연: 한밤중에 보이는 불빛
- 2연: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에 대한 아쉬움
- 3연: 그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
- 4연: 여운처럼 남아 있는 불빛

(나) 백석, 「여우난골죽」

| 해제 | 이 시는 유년의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작품으로, 다양한 친척들이 소개되고 그들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집에 모인 친척들의 수가 무척 많다는 느낌과 함께 그들이 서로 나누어 먹고 즐기기를 위한 음식과 정겨운 놀이 문화 등이 풍부하게 소개되고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에 친척들과 어울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속에 녹아 있었던 풍요로운 풍물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주제 | 유년의 풍요로움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1연: 명절을 쇠러 큰집에 간 '나'



- 2연: 큰집에 모인 친척들
- 3연: 설빔과 명절 음식들
- 4연: 민속놀이를 하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

256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그리워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나)는 어린 시절 명절 때를 떠올리며, 많은 친척들과 그날의 놀이, 음식 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5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는 놀이 제시에 평북 지방 방언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방언의 사용은 낯선 느낌과 더불어 신선한 느낌을 독자에게 주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불빛이 발갱게’는 ‘불’, ‘빛’, ‘발’의 ‘ㅂ’이 이어지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뒤척여도’ 대신 ‘뒤채도’란 방언을 사용하여 낯설고 신선한 느낌을 주며, ‘뒤척여도’를 ‘뒤채도’라고 압축하는 데에서 오는 묘미도 만들어 낸다.

③ 음식과 놀이를 여러 개 나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풍요로운 삶을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평북 지방의 토속적인 풍물들을 방언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258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는 ‘발자국 소리’를 내는 대상이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고, ㉡에는 ‘무이장계곡’의 냄새를 맡으며 아침으로 먹게 될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오정희, 「유년의 뜰」

| 해제 | 이 소설은 6·25 전쟁 때 일가족이 피란을 온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녀가 겪어야 했던 왜곡된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노랑눈이’라고 불리는 일곱 살짜리 소녀 ‘나’는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정, 할머니의 절도, 오빠의 폭력, 언니의 일탈 등 총체적으로 망가진 가족 상황의 영향으로 상처를 받아 비뚤게 자라나게 되며, 그 상처의 근원에는 전쟁으로 상징되는 세계의 폭력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작품은 성인이 된 서술자가 어린 시절 ‘나’의 눈으로 당시를 회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상처와 억압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통해 장면화하는 어린 소녀의 사고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제 | 전쟁의 외중에 한 소녀가 겪는 성장의 고통

| 전체 줄거리 |

일곱 살짜리 소녀인 ‘나’는 ‘노랑눈이’라고 불린다. 아버지는 전쟁에 징집되어 나가고 나머지 가족, 즉 할머니, 어머니, 오빠, 작은오빠, 언니, ‘나’, 동생이 한 마을로 피란을 와서 작은 방에 산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저녁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빠는 시위라도 하듯 영어책을 큰 소리로 읽는다. ‘나’는 한밤중에 부네의 방을 바라보곤 하는데, 부네는 외눈박이 목수의 딸로, 집을 나가 살림을 차렸다가 목수의 손에 붙들려 와 감금되어 있는 중이며, 부네에 관한 갖가지 추측만 사람들 사이에 무성하다. 오빠는 엄마가 외박을 할 때면 언니를 때려서 코피가 나게 만들고, 언니는 저항 없이 묵묵히 맞고만 있다. 할머니는 이웃의 닭을 몰래 훔쳐와 임자 없는 닭이라며 요리한다.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할머니는 늘 말했지만 가족들은 웬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기다린다. 어느 날 부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람들은 그 소식으로 인해 부네가 정말 그 방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는 피란민들처럼 ‘나’의 가족도 이사를 해서 ‘나’는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한다. 여름이 갈 무렵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지만 ‘나’는 어쩐지 반갑지도 않고, 서러움에 자꾸 눈물만 흐른다.

259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동네로 가족이 피란을 왔을 때 자꾸 닭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닭 임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피란민들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수군대면서 우리 방 쪽을 기웃거린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부터야 할머니는 닭을 훔쳐 오기 시작한다. 오빠는 처음엔 그 훔쳐 온 닭을 입에도 안 대고 닭국을 뜨물통에 쏟아 버리지만, 왕성한 식욕을 오래 외면하지 못한 오빠는 다른 가족들처럼 그 닭을 잘 먹고 흔적을 지우는 일에도 적극 협조한다. 그러므로 답지의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④-⑤-③-①-②가 될 것이다.

26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 두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할머니가 아버지의 부재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가 부재하는 것은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다.

② ‘밤마다 술 취해 오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어머니의 부정’에 해당하며, 이는 ‘나’가 비뚤어진 아이로 성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③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 있던 그 긴 시간의 갈피짜마다 연기처럼 모호히 서린 낯설음은 새로운 전쟁으로 우리 사이에 재연될 것’이라는 점이 가족들에겐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그림과 정답게 아버지를 추억하는 것을 통해,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아버지를 치부해 버리는 심리를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음지도 모른다고 ‘나’는 회상하고 있다.

④ 자신이 훔쳐 온 닭을 ‘입자 없는 닭’이라고 우기는 할머니, 그리고 그에 대해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은밀한 식사 시간을 즐기는 모습은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나’가 도벽을 지닌 비뚤어진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6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손에 묻어나던 머릿기름의 ‘찝찝찝찝한’ 촉감, ‘나’의 넓적다리나 발목을 잡던 아버지의 ‘악력’, ‘막연히 파스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보다 커다란’ 느낌, ‘땀으로 젖어 있던 등허리’ 같은 것은 모두 ‘나’의 기억 속 아버지의 존재를 구성하는 감각적 이미지들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에 대한 회상일 뿐 환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상징하는 소재로 볼 만한 것이 없으며,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도 없다.

③ 사건 발생의 원인을 밝힌 부분이 아니며,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감각적 이미지를 매개로 한 회상이 중심을 이룬다.

⑤ 아버지에 대한 정서는 그리움이지 연민이 아니다.

조위, 「만분가」

해제 | 이 작품은 사회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귀양길에 오른 데 대해 비분강개한 심정을 선왕(성종)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의 가사이다.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희생된 문신(文臣)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유배 가사라는 점에서 이후에 정철이 지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제 | 유배당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연군의 정

구성 |

- 서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와 욕구
- 본사 1: 유배 생활의 처지와 임에 대한 그리움
- 본사 2: 화자의 처지에서 느끼는 원망과 슬픔
- 본사 3: 유배 생활을 하는 처지와 운명에 대한 체념
- 결사: 임의 사랑에 대한 회와 번민

262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궁궐을 천상 백옥경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이 계신 궁궐을 가상의 공간인 천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화자의 처지를 공감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화자는 자신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봄이라는 계절은 확인할 수 있지만, 계절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263 감상의 적절성 판단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신을 역사적 인물인 굴원(초객)과 가의(가태부)에 빗대어 유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황하수, 형강 등의 중국 지명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생 내력을 소개하기 위한 소재들이 아니다.

③ 정적에 대한 원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일모수죽’과 같은 한자어가 등장하지만, 해당 한자어가 정적에 대한 원한과는 관련이 없다.

④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B]에는 ‘백옥’, ‘취수’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만, ‘백옥’은 자신의 충절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즉 대비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64 시적 대상에 대한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구름’은 화자의 가슴에 쌓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 ‘약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뜻하며, 이는 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 ‘양각풍’은 무오사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유배를 오게 된 원인이 된다.

조위한, 「최척전」

해제 |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전란으로 인해 한 가족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임진록」, 「박씨전」 등 당대의 전란을 배경으로 한 많은 고전 소설들에서는 민족적 영웅의 무용담이 나오는데, 이는 전쟁으로 실추되었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에 비해 이 작품은 전란으로 인한 당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구체적이



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재에 수록된 것은 정유재란 중에 최척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 주제 | 전란으로 인한 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 전체 줄거리 |

남원에 사는 최척이 부친의 친구인 정 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옥영이 창틈으로 최척을 엿보고 그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낸다. 결국 최척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혼사를 반대하는 옥영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마침내 둘은 약혼을 한다. 그런데 혼인 날을 기다리던 중 왜적이 침입하고, 최척은 남원 지역의 의병이 되어 참전한다. 혼인날이 지나도록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옥영의 어머니는 부잣집 아들이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옥영은 이에 반대하여 최척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드디어 두 사람은 혼인을 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만아들 몽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는데, 이때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고 최척은 흩어진 가족을 찾아 해매다가 우연히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만나 형제의 의를 맺고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된다. 여유문은 최척을 자신의 매부로 삼으려 하지만 최척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한편 일본에 잡혀간 옥영은 남자로 행세하면서 불심이 깊은 왜인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상선을 타게 된다. 여러 해가 지나 여유문이 죽자 최척은 항주의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최척은 안남에서 아내 옥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들은 중국 항주에 정착하여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 기르며 십수 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몽선이 장성하게 되자 홍도라는 중국 여인과 혼인을 시키는데, 홍도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했다가 실종된 진위경의 딸이었다. 이듬해 호족이 침입하여 최척은 아내와 아들과 헤어져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는데,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조선 장수인 강홍립을 따라 출전했다가 청군의 포로가 된 만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한다. 한편 옥영은 몽선, 홍도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모든 일가가 다시 해후하여 단란한 삶을 누리게 된다.

265 서술상 특징 및 효과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최척의 가족이 왜구의 침입으로 뿔뿔이 흩어진 뒤 각기 다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밝히고 있다. 즉, 최척의 아버지와 옥영의 어머니가 왜구로부터 탈출하여 연곡사에서 몽석을 만나는 사건, 옥영이 왜구에게 잡혀 일본에 가는 사건, 최척이 명나라에 가서 사는 사건은 유사한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각 사건은 '이때', '한편'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전환된다. 이처럼 이 글은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병치되어 입체감을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속마음과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당대 사회를 풍자하지는 않았다.

② 이 글에서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거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상징적 소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은 여러 인물들의 처지를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은 현재 장면의 사이에 과거 장면이 삽입되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다.

266 내재적 접근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옥영이 남장을 했다는 이유로 최척과 헤어져 왜국에 끌려간 것은 아니다. 최척이 옥영에게 남장을 하게 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옥영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최척은 가족이 죽었는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졌지만,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섬진강으로 가족을 찾으러 간다.

③ 왜적에게 잡혀가 몇 번 죽으려고 시도한 옥영은 꿈에서 장육금불을 본 뒤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④ 돈우는 힘이 많이 드는 남자들의 일을 하지 못하지만 바느질과 밥 짓는 일은 할 줄 안다는 옥영의 말을 믿고, 그녀를 자기 배에 태워 부엌일을 하도록 하였다.

⑤ 최척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밝혀 동생과 결혼하라는 여 공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267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과 [A]는 모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주제 의식은 다르다. 이 글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A]는 영웅을 등장시켜 허구적 사건을 통해 적군을 굴복시키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가는 민족적 치욕을 허구적 사건을 통해 위로 받으려 했던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옥영의 꿈에 장육금불이 나타나는 것을 전기적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인물 간의 갈등과 별 관련이 없다.

② 이 글은 [A]와 달리 영웅을 등장시키지 않고 평범한 백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③ 이 글은 [A]와 달리 조선이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④ 이 글에서도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구걸하며 떠돌다 가게 된 연곡사에서 몽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연적 사건이 나타난다.

268 관용적 표현의 이해 및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최척의 아들인 몽석은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나 조부와 외조모를 만나게 되었다. 혜정 스님은 이 사건을 하늘이 내

려준 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천우신조(天佑神助)’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려일실(千慮一失):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② 천신만고(千辛萬苦):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③ 천양지차(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⑤ 천의무봉(天衣無縫):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 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

작자 미상, 「봉산탈춤」

| 해제 |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으로 오락성과 예술성, 풍자성이 뛰어난 민속극이다. 전체 7개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장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제시된 부분은 여섯 번째 과장인 양반 과장으로,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말뚝이가 관객 악공과 함께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희롱하는 부분이다. 특히 말뚝이는 익살스러운 말투와 과장된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물을 열거하고 대비시키면서 웃음을 주고 양반들의 지시를 따르면 서도 그 품격을 깎아 내려 양반 계층을 풍자하고 있다.

| 주제 | 신분적 특권 계급인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

269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는 새치를 정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양반의 허위 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양반들의 비정상적인 외모와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양반을 희롱과 야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설정이다.

②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한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관객을 극중 상황에 참여시켜 함께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말뚝이의 변명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내심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깔려 있다.

270 장면의 특성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A], [B]는 모두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질책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으로 이어지는 재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탈춤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므로 장면의 전환이나 공간의 변화는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전달된다.

③ [A]와 [B]의 두 장면 사이의 특별한 인과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④ [A], [B]의 궁거리장단은 신명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무마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⑤ [A]보다 [B]로 진행될수록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조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